

○ 서울대학교 심 ○ 진

법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찾다가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는, 이게 어떤 봉사활동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활동을 진행하면서 내가 하는 봉사활동이 어떤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지 알 수 있었다. 또한 연속으로 2학기째 활동하는 것이었기에 이제 어느 정도 활동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었고, 이후 계속해서 참여하게 된다면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 같다.

처음 진행한 필수활동 중 하나였던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분류는 즐겁고 뜻깊은 활동이었다. 사실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의 공약은 굳이 들여다 볼 기회가 없는데, 이번 기회에 몇 곳이라도 확인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확실히 국회의원마다 성향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공약에서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당보다는 개인의 성향이 공약 선정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으로 진행한 봉사활동은 법 번역 봉사활동이었다. 벨라루스 헌법과 온두라스 헌법을 번역했는데, 한국어로도 어려운 법을 영어로 읽으려니 굉장히 힘들었다. 법 관련 용어를 일일이 찾아봐야 했고,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법체계를 살펴보아야 했다. 하지만 그만큼 배운 점도 많았다. 특히 생각보다 법이 굉장히 체계적임을 알 수 있었다. 법이 큰 범위에서의 규칙만 제정해 놓아 재판에는 재판관의 자의성이 꽤나 개입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세부사항도 꼼꼼히 기재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학기에 처음 진행한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였는데, 이 활동이 이번 학기 봉사활동 중 가장 뜻 깊었다. 사실 판결문을 꼼꼼히 살펴볼 기회는 드문데, 이번 기회에 판결문이 어떻게 작성되고 구성되는지 잘 알 수 있었다. 또한 1심, 2심, 3심 단계별로 판결문을 살펴보고 각 판결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내려졌는지, 왜 다른 판결이 내려졌는지 확인할 수 있었기에 로스쿨을 희망하는 내 진로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여러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시민으로써 법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었고, 법, 사법, 정치, 언론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선거를 넘어 진정한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국민의 관심이 사법체계에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활동이 재택봉사로 진행되어 학기 중 시간이 많이 없었음에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 같다. 여름 봉사도 신청했는데, 그때는 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싶다.

○ 고려대학교 류 ○ 정

대학교에서 여러 법 과목을 수강하며 법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법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해 보고자 작년에 이어 2024년도 여름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담당자님들께서 봉사활동 결과물에 대해 정성스럽게 피드백을 해주신 덕분에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의정 모니터링(의원 공약 분류) 및 번역 봉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정 모니터링 활동에서는 최소한 지자체단체장 2명을 선정하여 양식에 맞춰 각 단체장이 자신이 내세운 선거 공약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작년처럼 각 공약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약을 단순히 분류하는 작업이라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진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 4지역 단체장의 공약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단체장별로 담당하는 지역 자치구의 특성에 맞게 특화된 수많은 공약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활동을 통해 국민으로서 각 국회의원이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활동과정에서 다루어진 이슈 중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교과 과정이나 뉴스를 읽어도 미처 파악할 수 없는 다양한 분야들에 대한 지식을 각 공약을 분류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어떤 부분들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하는 부분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 어디

서도 얻을 수 없었던 값진 배움이었습니다.

번역 봉사활동에서는 알제리아 헌법을 배정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법률 번역을 맡아 낯설었지만, 미국 법과는 다른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나라 법과는 다른, 상당히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어 실력에 자신이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번역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영문 소설 및 뉴스와 괴리감이 느껴지는 법조문 특유의 딱딱한

문체, 가독성이 떨어지는 긴 문장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혼합되어 번역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조문이라는 것이 어떠한 형식으로 작성되는지, 문장들이 어떠한 짜임새를 가지고 기능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 활동은 학교 수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제가 배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법은 항상 제게 생소하고,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분야였습니다. 그러나 봉사 활동을 통해 법이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친숙한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법과 정치라는 두 분야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여름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도전하여 또 다른 새로운 배움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 결과물에 항상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의 모든 담당자분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 연세대학교 최 ○ 윤

이번 학기 활동은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네 번째 봉사활동이었습니다. 특히 의정모니터링과 번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둘다 정치와 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정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질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 번역 봉사활동에서는 다른 나라의 법과 교육 제도를 경험하며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들을 통해 얻게 된 깨달음은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번역 봉사활동에서는 볼리비아 헌법과 대만 국민교육법을 번역하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볼리비아 헌법을 번역하면서, 법조문 속에 담긴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권리와 의무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과정이었습니다. 언어를 단순히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만 국민교육법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대만의 교육 철학과 제도가 어떻게 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대만이 교육을 통해 어떤 시민을 기르고자 하는지, 그 목표가 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법적 문서를 번역하는 작업을 넘어, 다른 나라의 가치관과 교육 철학의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의정모니터링 활동에서 저는 해운대구의 김성수 구청장과 강남구의 조성명 구청장의 공약을 분석했습니다. 김성수 구청장은 해운대의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 경제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4차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로서의 성장을 꾀했습니다. 또한, 53사단 이전을 추진하여 국제적인 레저,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공공시설 유치로 상권을 활성화 하려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반면, 조성명 구청장은 강남구를 미래 성장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강남구 행정·문화 복합 타운 조성과 같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내세웠고, 자율순찰로봇과 AI, 메타버스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 도입을 통해 안전과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구청장의 공약을 분석하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제 발전과 주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접근 방식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으며, 해

사회(자원)봉사 소감문  
2024년도 여름학기 소감문

운대는 경제 활성화에, 강남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도시 발전에 중점을 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여름학기 동안 의정모니터링과 번역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의정모니터링을 통해서 정책이 실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정책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번역 봉사활동에서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서로 다른 나라의 법과 교육 시스템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에게 앞으로 학문적, 사회적 성장을 이끌어줄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배움들을 바탕으로 더 넓은 시야와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 이화여자대학교 장 ○ 수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법률과 관련된 봉사활동 중 학생인 내가 유의미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을 찾다가 참여하게 되었다. 변호사가 된 선배가 대학 시절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것이 기억에 꽤 오래 남는다고 말해준 것도 내 참가에 영향을 미쳤다.

여러 봉사 분야 중 가장 기대했던 활동이 번역봉사였고, 총 3개 국가의 헌법을 번역하여 22시간의 활동 시간을 인정받아, 가장 의미있게 느껴졌다. 외국어 공부에 관심이 많아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의 3개 국어를 할 수 있는 만큼, 나의 봉사활동이 도움이 되길 바랐다. 특히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와 같이 외국어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할 줄 아는 언어가 아닌 프랑스어 번역 봉사로 기여하고자 했는데, 프랑스어 번역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아쉬웠다. 그러한 이유로 참여한 3개의 헌법 번역 봉사는 모두 영어로 진행했지만, 헛수를 거듭하면서 나 스스로 영-한 번역에 익숙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유익했다. 헌법이라는 것이 본디 나라의 기틀을 담은 최상위의 법이기 때문에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보더라도 해당 국가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주요 국가가 아닌 국가의 이름만 들 어봤거나 어디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는 국가들의 헌법을 번역했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내가 맡은 3개의 국가는 바하마, 부르키나파소, 차드 공화국이었다. 그 중 바하마는 영국 식민지였던 작은 국가이고 부르키나파소와 차드 공화국은 프랑스 식민지였던 역사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나는 바하마를 카리브해에 위치한 휴양지로만 알았을 것이고, 부르키나파소와 차드 공화국은 이름만 겨우 아는 것에 그쳤을 것이다. 인상적이었던 점은 세 국가 모두 헌법에 민주주의를 획득했다는 조문이 강조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의 첫 문장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는 문장이다. 독재 국가나 공산권 국가가 아니라면 어느 국가이든 민주주의가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식민 지배를 당했던 역사가 있는 국가들이라서 그런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획득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어렵게 획득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

이번 여름학기 의정모니터링은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분류 활동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는 다양하지만, 나는 자연스럽게 강원도, 부산시 등의 큰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를 떠올렸다. 내가 배정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충청북도 영동군과 보은군의 군수들이었다. 당선인들마다 내세운 공약의 종류와 양에 차이가 있었는데, 공통적으로는 지방 소멸 위기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는 듯했다. 지방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지역 특산물 지원 정책, 저출생 지원 정책, 노인 의료 문제 등이 공약에서 가장 자주 보인 내용이었다. 사실 나는 정치외교학과 학생이면서도 내가 속한 지역구 정치인들의 공약 외에는 다른 정치인들의 공약을 자세히 알지 못했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공약 이행을 또한 자세히 알아본 경험이 없다. 대의 민주제를 채택하여 실행하는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치인들 본인이 성실하며 청렴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본분과 초심을 잃지 않게 감시하는 국민들의 역할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는 일반 시민들이 정치인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당선 후에 그들의 공약 이행을 검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법률소비자연맹과 같은 단체에서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안심되면서, 내가 할 수 있

는 일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공약을 분석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일은 법률소비자연맹 직원 분들이 하실 테지만,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공약을 자료로 정리하는 일을 맡아서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이번 방학에는 다른 일과 병행하느라 번역 봉사와 의정모니터링만 맡아서 활동했으나,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언론모니터링이나 판결문 리서치, 법정 모니터링에도 참여하고 싶다. 끝으로, 여름학기 내내 봉사자들의 활동을 확인하고 컨펌하느라 바쁘셨을 담당자 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 ○ 숙명여자대학교 김 ○ 주

비법학사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며 법학 관련 대내의 활동을 찾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선배의 합격 수기에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어 망설임 없이 지원하게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매우 많은 것을 얻어가며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목과 대학교 교양 교과목에서 접한 법학 지식이 전부였기에 활동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매뉴얼이 매우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법학 지식이 전무하신 분들 역시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어렵지 않게 활동을 이어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 필수 활동이었던 의정 모니터링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분석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선거에 항상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이 어떠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는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당선인들의 공약을 매우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선인의 이력과 해당 지역에 대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흥미로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정당 정책이나 당선인 공약을 생각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일반인들도 접근하기 쉬운 정보가 많은데 그동안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성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진행한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였습니다. '판결문'이라고 하면 어려운 법률 용어가 많고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 느껴졌지만 생각보다 일목요연하게 서술되어 있어 쟁점을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인터넷에서 몇 가지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익명화된 판결문을 즉시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을 각각 두 사건씩 리서치하였는데,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쟁점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법률적 글쓰기나 판결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보다 친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학적 지식을 넘어 다양한 분야의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모니터링은 시간 관계상 1회밖에 진행하지 못했지만 가장 인상적인 활동이었습니다. 법원을 방문하여 재판을 방청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경험이었었고, 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방청을 선택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 재판정에서 판사, 검사, 피고인, 변호인, 그리고 증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지를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방청한 재판에서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증언하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진술 조력인이나 신뢰 관계인이 동행했던 점, 비대면 증언을 요청한 점 등 흔치 않은 사례를 직접 지켜볼 수 있어 매우 유익했고,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법원의 태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자로 활동하며 살면서 처음 해보는 경험을 수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주신 연맹 관계자님들과, 메일을 주고받을 때마다 따뜻한 인사를 남겨주셨던 봉사활동 담당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봉사활동에 참여해 더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 ○ 서울대학교 장 ○ 서

2024 여름학기 소비자법률연맹 봉사활동은 제가 법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하게 된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막연히 법조인을 꿈꾸고 법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 지식과 경험은 부족한 상태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담당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학기에는 판결문 리서치, 언론모니터링(10대 일간지 사실 분석), 의정모니터링, 스페인 헌법 번역 봉사를 하였습니다. 이 중 판결문 리서치와 언론모니터링 활동이 특히 저에게 의미 있었던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제국의 위안부' 책에 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우리의 역사, 특히 근현대사에 있었던 일들이 현재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관해 법적인 영역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제가 전공하고 있는 국사학과 법이 만나는 지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사건과 판결 내용을 분석하며 사실관계를 스스로 파악하여 정리하고 1심과 2심, 3심 대법원 판결 내용에서의 쟁점들을 정리하며, 하나의 사건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법원 판결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사 측에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책의 구절들이 판사가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길고 어려운 판결문이었지만, 판결문 리서치를 하며 점점 판결문 읽는 법을 알게 되고 법과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아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론모니터링은 10대 일간지인 경향·서울·한겨레신문, 국민·동아·문화·세계·조선중앙·한국일보에 일주일 간 게재된 사실들을 전부 정리하여 분류하고 비교·분석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7월 셋째 주에 게재된 141개의 사실들을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로 분류하고 그중에서도 많은 언론사들이 게재한 與 전당대회 폭력 사태, 전공의 사직과 의료 공백 사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사실들을 요약 정리하고 종합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언론모니터링을 하며 뉴스나 기사로 여러 번 접했던 이슈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이라는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도 어떤 언론사는 이 사건이 상징하는 민주주의 붕괴 위기에 대한 우려를 중심으로 사실을 작성한 한편, 어떤 언론사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 높아진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에 따라 예견되는 미 우선주의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을 교훈 삼아 대한민국의 정치 양극화 현상을 돌아봐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 사실 또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분석하며 한 사람이 사회 이슈나 사건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는 데에 있어 언론이 가지는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으며, 비판적 사고와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는 능력 또한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의정모니터링 활동으로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분석활동을 하며 단체장들의 선거공보에 생각보다 많은 수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공약사항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번역 봉사 활동을 통해 스페인 헌법을 번역하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다른 점들을 찾아보는 활동도 재미있었는데, 이번에는 10 페이지 정도밖에 번역하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더 많은 부분을 번역하고 다른 나라의 헌법이나 사법제도들도 다양하게 번역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사활동이 거의 끝난 지금 이번 여름학기에 했던 활동들이 되돌아보면, 단순히 법 그 자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미래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비판적인 사고와 분석력까지 기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봉사활동을 경험하고 나니 다음번에 봉사활동을 할 때는 저에게 필요한 활동들을 찾아 더 효율적이고 많은 것을 배워가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가을 학기에는 법정모니터링 활동, 사법감시배심원단 등 이번엔 하지 못했던 활동도 해보고,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도 이번엔 하지 못했던 민사사건, 행정사건의 판결문을 리서치 해보고 싶습니다.

## ○ 고려대학교 김 ○ 후

2번째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회와 정치에 대한 무지를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판결문 리서치와 공약분류를 중점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판결문 리서치의 경우 지난 학기에서의 판결문 리서치와는 또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익숙해졌지만, 또 수많은 판결문들을 보며 얻어가는 게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많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리서치를 수행하면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사법 활동을 조금이나마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민법과 형법 등 다양한 분야의 판결문을 보며 그 차이를 경험해 볼 수 있었다는 점도 좋았고, 지난 학기에 중점적으로 리서치했던 횡령죄에 관련된 새로운 판례를 경험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던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횡령과 관련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 또한 되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봉사활동을 수행할 예정인데, 이때에는 형법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도 리서치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공약 분류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해당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은 가장 먼저 정치인들이 정말 많은 분야를 섭렵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공약이행률조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을 조사했지만 이번 학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에 대한 공약 분류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떻게 4-5년 간 활동 하느냐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나 총선들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는 사람들의 관심을 덜 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이러한 활동을 수행해보니 우리 지자체를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대로 뽑을 수 있는 것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학기는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 법학적성시험을 준비하면서 병행하게 되었는데, 이를 병행하면서도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는 여타 수험생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포스트 리트 과정을 통해 바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는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추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사법활동이 일반인들에게 친숙해지는 데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봉사활동을 꾸준히 수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필수 활동 또한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다음 학기에 진행되는 필수 활동인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 또한 기대가 됩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 ○ 연세대학교 엄 지 혜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으며 더불어 법조계 관련 활동을 항상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학교 선배의 추천으로 소비자법률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제가 원하던 방향에 활동들이라서 즐기며 배워갈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바로 사법 감시 배심원단 활동입니다. 재판 참관은 중학생 때 이후로 너무 오랜만이라 당일까지 떨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재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많은 자료를 메일로 제공해 주셔서 쉽게 이해한 후에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와 판사 그리고 피고인이 마주 앉아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이 무언가 일상적인 것 같으면서도, 내가 법률의 집행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몸소 느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장기간의 재판이었기에 피고인의 마지

막 최후진술을 들으며 안타까웠습니다. 오랜 재판으로 한 사람의 소중한 시간이 달아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도를 개선하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겠다는 피고인의 향후 계획이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고, 나 또한 법 분야에서 진로를 꿈꾸고 있기에 오늘의 법정 모니터링이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 의정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한 것은 국회의원의 선거공보였습니다. 구체적인 공약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공약의 수가 많아서 정말 4년간 실현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공약을 정리만 하는 활동이 위주라서 정확하게 이행이 되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며 이해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 시민들의 모니터링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질수록 국회의원들도 이틀만 내세우는 공약이 아니라 정말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이행을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앞으로 선거에 참여하기 전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서 공약을 자세하게 확인하는 자세를 갖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헌법 번역 봉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내가 신청한 양이 적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 꽤나 많았습니다. 피지라는 나라에 대해서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처음 보는 나라라서 당황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그 나라에 대한 배경지식을 맨 앞 페이지에 소개해 주어야 하는데 조사하다 보니 모르던 부분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번역 봉사활동 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pdf에서 복사하다보면 줄이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 직접 수정하다가 사이트를 따로 찾아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지의 선거는 비례대표제를 실시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한국과 비슷한 결이 많아서 번역하면서 신기했습니다.

여름에 더운데 이런 뜻깊은 활동들을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고, 제 진로에 도움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도 있었던 경험이 되어 좋았습니다. 친절하게 매 봉사활동 문의 받아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후배나 동기들에게 법률소비자연맹 활동을 꼭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 ○ 덕성여자대학교 신 ○ 연

법률과 사회를 있는 다리,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배움에 대한 소감

저는 이번 여름방학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법률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법률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먼저, 해외 헌법 번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엔티가바부다와 볼리비아의 헌법을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은 생소한 국가의 법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헌법의 전문 용어와 법적 표현이 복잡하여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과정에서 외국어 실력과 법학 지식을 동시에 기를 수 있었던 점은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법률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이 경험은 법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법정 모니터링 활동은 교과서에서 배운 법 이론을 현실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절도와 사기죄 혐의를 받는 형사재판, 민사재판 등 다양한 재판을 방청하면서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역할과 법정 절차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여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판단 과정을 지켜보면서 법이 단순한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구임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 분류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공약집을 직접 찾아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론적인 법적 지식이 실제

행정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공약의 내용을 분석하고 분류하면서, 법학의 이론이 구체적인 정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은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실무적 통찰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의 법률 봉사활동은 단순히 법학적 지식을 쌓는 데 그치지 않고, 제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봉사활동을 통해 법률 분야에 대한 실제적인 감각을 익히고,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세심한 지도와 지원 덕분에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봉사자로서의 경험이 제 앞으로의 법학적 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 ○ 서울대학교 이 ○ 슴

2024년 봄학기에 이어, 이번 여름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과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선배님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생겨 처음 신청하였던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한 학기 동안 저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었고, 법률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었습니다. 그래서 단발적인 활동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고, 이번 학기에도 참여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필수활동이었던 의정모니터링 활동과,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였습니다.

저번 학기에 비해 활동의 종류는 줄었는데, 이는 제가 가장 의미 있게 했던 활동에 집중하여 활동하고 싶었던, 일종의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판결문을 읽고 사건의 쟁점과 판결요지 등을 분석하는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제가 법률의 깊이를 이해하고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양한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법률이 해석되고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 논리를 매우 흥미롭게 배웠습니다. 사건의 개요만 읽었을 때는 갈피를 못 잡다가도, 판결의 근거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법 적용의 흐름이 더 잘 이해된다는 점이 무척 신기했습니다. 예전부터 '실제 판결문을 읽어보아야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법률소비자연맹의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통해 여러 개의 사건과 그에 대한 판결을 정리하며 실천에 옮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활동한다면 제가 분석한 판결문이 꽤 많이 누적될 텐데, 그것을 바탕으로 좀 더 나아가서 보다 심화된 공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한 활동인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도 총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하였습니다. 의정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선거공보를 통해 의원들의 공약을 파악하고 정리했는데, 공약들이 생각보다 매우 많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공약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각 의원의 공약 이행률도 쉽게 정량적인 지표로 나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어느 의원이 공약을 잘 지킬 사람인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관심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역시 들었습니다.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시민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변해줄 대표자들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번 학기 활동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깨달음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도 법률 공부와 사회 활동에 정진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법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 KAIST 정 ○ 주

이번 봉사활동은 공대생인 제가 법을 제대로 접할 수 있는 첫 경험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미디어를 통해 재판이나 변호사 등 법조인의 삶을 간접적으로 접해보긴 했지만, 직접 법원에서 방청하거나 판결문을 읽어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중 하는 일 하나하나가 다 어색했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배웠고 견문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정치인들의 공약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총 4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분석했는데, 어떤 자치단체장은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근거를 상세히 제시한 반면, 다른 자치단체장은 특별한 근거 없이 다양한 분야의 공약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번 의정 모니터링을 통해 그동안 공약을 제대로 읽지 않았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률소비자연맹의 이 활동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공약 분류만 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직접 정치인들의 공약 이행률을 조사해 다른 이들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총 두 건 진행했는데, 두 사건 모두 환경오염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아, 환경과 관련된 법적 논쟁은 어떤 종류의 사건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지 알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한 재판은 환경오염의 원인과 책임당사자를 묻는 재판이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원인 제공을 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배출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닐 경우에도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문제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환경보전을 위해 여러 법률로 보호막을 만들었기에 개인이 홀로 관련 법률을 정확하게 검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조인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법감시 배심원단 활동에서는 SAT 저작권법 위반 재판을 다른 분들과 함께 모니터링했습니다. 재판을 모니터링하면서 미디어에서 그리는 재판의 모습이 실제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에서 검찰 측이 여러 부분에서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느꼈는데, 다른 사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되었습니다. 법조인이 되어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 기간 중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 실질적인 활동 기간은 약 한 달 밖에 없었던 점이 아쉽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기간 동안 세 종류의 봉사활동밖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긴 기간동안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고, 이번엔 참여하지 못한 언론 모니터링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 중 공학계열 전공생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학과 관련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이슈가 있다면 전공을 살려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 ○ 연세대학교 박 ○ 루

법률과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한 지 벌써 2회차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법률적 지식을 습득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식이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성장하며,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합니다.

2024년도 여름학기 봉사활동으로 저는, 의정모니터링, 국내외의 사법제도 · 헌법 등 번역 및 조사활동, 판결문 리서치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여름학기의 첫 봉사활동은 의정모니터링 활동으로, 2024 의정모니터링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분류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핵심 공약들을 분석하며, 각 지역 주민의 필요에 맞춘 공약의 내용 구성을 파악하였고, 실제로 해당 공약들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 시민으로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투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선 이후 정치적 약속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번역봉사의 경우, 일본국과 대한민국간 양국 인접 공동 개발협정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 일본방송법, 일본어교육기관인정에 관한 법률 등을 번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법률 체계를 비교하며 법률 용어의 차이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일반인도 알기 쉽게 번역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제도와 법률을 가진 나라의 언어로 정확하게 법률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법률 번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판결문 리서치를 실시하였고, 이는 불학과 마찬가지로 이번 학기 진행한 봉사활동 중 가장 뜻깊은 활동입니다. 저는 대법원2024두32973 부당하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과 대법원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에 대해 판결문 리서치를 하였습니다. 먼저, 대법원2024두32973 판결의 경우,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해당 판결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해, 기존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보다 완화하여 적용한 결과로서, 국내 플랫폼 종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당 판결은 근로자성의 인정 영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2023두36800 판결의 경우, 대법원에서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배우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해당 판결을 분석하면서, 학부 수업을 통해 학습하였던 기본권 관련 개념들을 복습하며, 기본권의 침해와 범위 및 대법원에서 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시 한 번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식뿐만 아니라,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 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까지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게 큰 의미와 배움을 안겨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게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가을 학기에도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법률소비자연맹의 시민의 권익보호와 사회정의를 위한 활동에 함께하겠습니다.

### ○ 서울대학교 김 ○ 우

이번 여름학기 동안 열심히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봉사활동이 큰 깨달음과 뜻깊음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법률과 관련된 언어적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및 정부의 올바른 정책 방향성은 무엇인지, 더 나은 사회란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번역 봉사의 경우, 알바니아의 헌법을 번역하면서 알바니아 사법 체계, 헌법 개정 배경과 개정안의 내용, 헌법 기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등을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알바니아 헌법의 내용을 대한민국의 헌법과 비교하면서, 또한 조항이 개정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찾아보면서 법률의 기초가 되는 헌법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알바니아 헌법에는 결정권자가 특정 기간 내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추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조항이 많은데, 이러한 조항을 해석하면서 전문성과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균형적으로 제고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번역 활동을 통해 알바니아 헌법에서 국가 기관 사이의 균형과 견제를 중시하고 있고, 공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한 투명한 국가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들을 제정했다는 점을 배우게 되었고 이를 해석하고 번역하는 기회가 있어 좋았습니다.

의정 모니터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6명의 공약을 분류하면서 어떤 행정 공약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어떠한 목적으로 정책이 운영되고 있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도시의 육성, 응급센터와 특화병원 신설,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 프로그램과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 사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현안이 무엇인지, 더 올바르게 모두가 소외되지 않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와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다만 거의 모든 당선인의 공약이 100가지가 넘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공약들의 실행 여부를 더욱 철저히 평가하는 공식적인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공약들이 사회에 도움 될 수 있는 훌륭한 내용이었지만, 공약의 실현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허울뿐인 약속이며 선거의 수단이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름학기 동안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 문화, 법에 대해 정말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헌법을 해석해보며 각 조항에 담긴 의미와 사법적 가치를 생각해볼 수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을 분석하면서 유권자와 정치인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일부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뜻깊었으며, 의미 있는 활동으로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법정 모니터링 혹은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 ○ KAIST 윤 ○ 원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단순했다. 로스쿨 입학에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법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찾다 보니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이 눈에 띄어서였다. 그런데 이번 여름 동안 봉사에 참여하고 나서 내 경험을 돌아보니, 많은 것을 배웠다고 느낀다. 나처럼 추후 법조인이 되고 싶은 친구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며, 나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참여하고 싶다.

우선,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에 대해 알게 되며 이 단체의 목적과 사명감에 깊이 공감했다. 나는 법조인이 되기를 꿈꾸지만, 그 이유가 내 적성과 야망 때문이다.

그런데 법률소비자연맹에 소속된 분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 그 덕분에 사법 감시를 꾸준히 이어온 것을 보고 과연 나는 그들처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지금은 학생 신분이므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여러 봉사 경험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봉사자로서 첫 번째로 참여한 활동은 의정모니터링 활동이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정리하는 자료를 만들었다. 광주광역시의 단체장 두 명, 부산광역시의 단체장 두 명의 공약을 정리했다. 그러나 과연 공약을 만들 때 정말 그들이 광주나 부산의 시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봤는지 의문이 들었다. 공약에는 AI, 빅데이터, 플랫폼, 융복합과 같은 요즘 핫한 키워드들이 나열되었으나, 공약의 상세 내용을 들여다보았을 때는 그것이 현실성이 있을지, 그리고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인지와달지 않았다. 따라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추후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실제로 그 활동이 다음 기수 봉사자들과 함께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을 알게 된 후 그 취지에 깊이 공감했다.

또한, 나는 3건의 판결문리서치를 진행했다. 판결문을 읽어본 경험은 많으나, 대법원의 핵심 판결에 대해 쟁점을 모두 정리하고, 변호사 및 판사의 상세 정보를 찾아본 적은 없어서 새롭게 느껴졌다. 1심, 2심, 3심에서 각 쟁점에 대한 판사의 판단이 갈리는 것을 분석하는 과정이 재밌었고, 판결문의 잘 정제된 텍스트를 읽는 것이 재밌었다. 특히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의대 증원에 대한 판결문을 분석하는 것이 재밌었는데, 이 판결문 리서치를 끝낸 후 의대 증원 뉴스를 볼 때 그 이슈에 대한 내 시야가 넓어진 기분이 들었다.

이번 여름동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고,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

#### ○ 연세대학교 박 ○ 빈

저번 학기에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지라, 이번 학기에는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신청할 수 있었다. 봄 학기에 처음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신청할 때에는 1학기 공부 및 법학적성시험(LEET) 준비와 병행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고 처음 해보는 법률 관련 봉사활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실제로 활동해보고 나니 그러한 우려들이 기우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봄 학기에 비해 비교적 편안하고 부담 없이 봉사활동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이번 학기에 수행한 봉사활동은 번역봉사 및 의정모니터링으로 저번 학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동일한 활동을 통해서도 새롭게 깨닫고 느낀 점들이 많았다.

우선, 번역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서, 저번 학기에는 미국 하원규칙을 번역하는 활동을 했지만 이번 학기에는 베냉 헌법을 번역하는 활동을 했다. 미국이야 우리가 어디에서든 지 늘 접하고 잘 알 수 밖에 없는 국가이지만 베냉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국가였다. 자연스레 미국이라는 국가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 국가의 풍속 등은 알고 있었지만, 베냉의 그러한 요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그러나 베냉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하고, 헌법 번역을 하며 느낀 것은 '우리나라 헌법과 비교해도 큰 위화감이 없다'였다. 어떠한 경로를 거쳐 왔든 현재 민주주의 체제가 정착하여 민주주의적, 인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지향하는 바와 가치들이 상당 수준 보편성을 지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성과는 별개로 헌법에 명시된 베냉의 간략한 역사, 상징, 국풍 등 해당 국가에 고유한 요소들을 파악하는 재미 또한도 있었다.

의정모니터링에 관해서도 저번 학기에는 국회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공약 분류 활동을 했지만 이번 학기에는 지방선거 당선자를 대상으로 공약 분류 활동을 하였는데 아무래도 국회의원 지역구에 비해서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각 당선자의 지역별 세부적인 현황, 특성과 문제를 보다 더 잘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내가 가보지 못했거나 아예 몰랐던 지역들의 여러 문화, 환경, 시설 등을 확인하는 재미 또한 있었다.

이렇듯 저번 학기와 동일한 활동을 통해서도 새롭게 느끼고 깨달은 것들과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즐겁고 유익한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번 학기와 마찬가지로 시간적 환경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7월 말까지 법학적성시험 준비에 전념하여야 했던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다. 봄 학기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도 여름학기에는 번역봉사나 의정모니터링 말고도 법정모니터링, 언론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해보자고 다짐했었는데 법학적성시험을 준비하고, 법학적성시험 이후에는 체력이 고갈되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쉽다.

앞으로도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며 지금껏 해보지 못했던 여러 활동들을 더욱 다방면으로 해보며 법조인의 밑거름이 될 다양한 활동 경험을 쌓고, 사회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싶다.

#### ○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조 ○ 종

이번 방학 동안 저는 번역봉사와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분류 의정모니터링이라는 두 가지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두 활동 모두 단순히 시간 채우기를 위한 봉사가 아닌, 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봉사활동을 통해 개인적인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감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과 행정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졌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문적 및 직업적 목표를 확고히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방학 동안 시간을 매우 유용하게 사용했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번역봉사는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된 법률 및 정책 자료의 번역 작업을 맡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번 번역 작업을 통해 저는 법률 문서의 중요성과 그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의미를 왜곡 없이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와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법률 관련 문서를 번역하는 일은 일반 문서와는 다른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용어 하나하나의 선택이 전체 문서의 의미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 단어의 정의와 문맥을 철저히 분석하며 번역 작업에 임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의 언어적 역량뿐만 아니라 분석적 사고 능력도 함께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번역 작업을 통해 국제적인 법률 문서가 국내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고, 앞으로도 이러한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생겼습니다. 번역 활동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서, 실제로 사회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가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번역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며, 더 나아가 법

를 전문 번역가로서의 경험을 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정보니터링은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분류하는 작업으로, 제가 담당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수원시와 시흥시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약은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들이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분류하고 분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번 활동은 제가 지방자치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특히, 공약을 분류하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공약은 그 자체로는 단순한 약속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방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지를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봉사활동을 통해 법률 및 행정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번역봉사는 언어적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고, 의정보니터링 활동은 지방자치와 공공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법과 행정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분야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고 싶습니다. 방학 동안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큰 만족감을 안겨주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의 학업과 경력에 있어서도 큰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더 나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가고 싶습니다.

### ○ 서강대학교 방 ○ 슐

2024 봄학기부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다. 우선, 미국 헌법 번역을 하였던 저번 학기와 달리, 이번 학기에는 아르메니아 헌법을 번역하는 활동을 하였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법률 체계로, 국가의 조직, 권력 분배,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는 최상위 법이기에, 아르메니아와 미국의 헌법을 번역함으로써 두 나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헌법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해당 두 나라의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하고 보장하는지, 그리고 의무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관해 배울 수 있어 좋았다. 번역을 진행하며 두 나라를 비교 분석하였고, 미국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매우 중시하며, 수정헌법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확장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반면, 아르메니아 헌법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아르메니아 국민의 역사적 경험과 국가적 정체성을 반영하여 고유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헌법 번역 과정에서 두 나라가 헌법을 어떻게 수정하고 발전시켜 왔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미국은 수정헌법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 왔고, 아르메니아는 독립 후 헌법을 개정해 현대적인 요구에 부응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두 나라 헌법을 비교하며 번역하는 활동은 이전에 비하여 국제적인 시각을 넓혀주었고, 법률과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주었다. 이와 동시에 고등학교 때의 영어 전공을 살려, 이와 관련한 봉사활동 할 수 있어 뿌듯한 마음 또한 들었다.

그 다음으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한 점이 인상 깊다.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선거 공보를 자세히 읽어보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공약을 걸었는지 알 수 있었다. 사실 나는 해당 봉사활동을 하기 이전에는 정치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해당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정치 분야와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든다.

구체적으로, 해당 봉사활동은 지방자치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 중에는 지역 발전, 복지 서비

스 제공, 공공 인프라 관리 등 다양한 측면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분배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의정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참여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다. 의정 모니터링은 시민으로서 지방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시민 참여를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의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적극적 시민 참여를 통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에서 나에게 그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 ○ Duke university 윤 ○ 원

저는 여름학기 동안 법률소비자 연맹과 함께 키리바시와 바하마 헌법을 번역하는 봉사활동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언어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미래에 법조인으로서의 진로에 대한 관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각 국가의 헌법을 접하면서 각기 다른 법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으며, 특히 각 헌법이 그 나라의 독특한 역사, 문화, 그리고 가치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 번역 작업을 통해 원문이 지닌 법적 뉘앙스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이는 법률 분야에서 매우 필수적인 기술임을 깨달았습니다. 법률에서는 단어 하나하나가 상당한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봉사활동은 제가 법조인을 꿈꾸는 데 있어 더욱 확고한 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세계화된 사회에서 법률이 국경을 넘어 서로 교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명확하고 정확한 법률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언어 장벽을 허물고 법률 정보를 더욱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일에 기여한다는 느낌이 들어 매우 보람찼습니다. 이는 사회에서 정의와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번역 프로젝트는 제가 법조인이 되기 위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법률 번역에 필요한 실용적인 기술을 습득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법률 문서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대한 확고한 의지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법의 힘과 그 접근성을 높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어 매우 뜻깊었습니다.

### ○ 성균관대학교 졸업 이 ○ 준

해외로스쿨 진학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 로스쿨 학생으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2~3달 남짓의 여름 봉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보내준 교재를 읽던 중 미국 조지 워싱턴이 1789년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 초대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편지를 발췌한 내용: "The due administration of justice is the firmest pillar of good government"라는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와닿지 않은 글귀였지만,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이 글귀와 관련되어 법률소비자연맹이 하는 중요한 역할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사법, 언론, 의정 모니터링을 통해 due administration of justice가 잘 행해지고 있는지를 상시 예의주시하고 이를 통해 firmest pillar of government를 지키는 것이 법률소비자연맹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강직하고, 전통이 있는 중요한 단체에서 소중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했으며, 좋았습니다.

먼저 번역 봉사를 진행하면서 알바니아 헌법과 보츠와나 헌법을 조금이나마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을 번역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본권과 자유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헌법에서 나열되고 보장되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평소애 법률 번역을 많이 안 해봤는데, 이러한 번역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법적 용어가 어떻게 번역되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봉사 또한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2017년에 선고된 난민 불인정결정취소 사건을 리서

치했는데, 이 선고는 여성 할례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여성에 대해 난민 불인정 처분을 한 서울 출입국 사무소의 행정 처분이 1심과 2심에서는 적법한 처분이었다고 선고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시킨 사건입니다. 평소에 관심이 있던 난민 분야의 사건에 대해 깊이 파헤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더 나아가, 사실관계와 판결 요지 및 판결 전문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봉사활동으로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법정에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법원 사건들을 방청하면서, 기본적으로 법정 안의 분위

기와, court session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이러한 court proceedings가 due process of law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면서 법률소비자연맹의 가치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필수 봉사 활동 영역이었던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의 선거공보와 5대 공약을 보는 방법과 이를 분류하는 과정을 배우고, 투표권을 가진 한 명의 시민으로서 능동적으로 당선인들의 공약 이행 준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에 일조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보통 타 자원봉사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많은 경우 자원봉사활동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률소비자연맹은 자원봉사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체계적인 봉사 방법과 그 경과에 대한 중간 피드백을 통해 자원봉사활동가들이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법조계나 법을 다루는 분야로 진출하길 바라는 학생이나 일반인이 꼭 한 번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 중앙대학교 박 ○ 은

지난 봄학기 봉사를 끝내고 주저없이 신청한 여름학기 봉사도 어느덧 끝이 났습니다. 소감을 작성하기에 앞서, 3개월 가량 봉사자들이 어려움 없이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률연맹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처음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했던 봄학기에는 기대했던 판결문 리서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필수 활동이었던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분류 의정모니터링을 시작으로 이후부터는 판결문 리서치를 중점적으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공약분류는 지난 봄학기에 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 분류와 비슷했습니다. 처음 보는 지역이었지만 구 별로 나뉘어져 있는 공약을 보며 생각 외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꼼꼼하게 공약을 준비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래에 비해 정치에 관심이 있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은 하는 일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 태도가 항상 마음 속에 있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정치인이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 제대로 일을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당선된지 꽤 지난 지금 이분들이 공약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을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저와 같은 국민들을 움직이는 건 결국 번지르르한 말이 아닌 실생활에 와닿는 변화일 것입니다. 부디 정치인들이 공약을 제대로 잘 지켜주길 바라는게 되는 봉사였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총 네 번 하였습니다. 제가 판결문을 직접 골라 꼼꼼하게 읽어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 기대한 만큼 정말 유익한 활동이었습니다. 판결문을 읽기만하는 건 혼자서도 할 수 있었지만 판결문 리서치 봉사에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분석하는 것

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특히 소송대리인의 과거 판결 기록이나 이력을 찾아보는 게 인상깊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찾아봐야 하는지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의아했었는데, 하고 나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법률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앞서는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였기 때문에, 판매자인 법조인에 대해 누구보다 꼼꼼히 잘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지 못한 접근이었고 그래서 더 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행정, 민사, 형사 등 각종 사건들의 판결문을 읽어보며 알지 못했던 기업의 이야기도 알게 되었고, 국민들의 법감정과 맞지 않아 분개했던 사건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의외의 판결이라 꼭 본문을 읽어보고 싶었던 판결문도 다뤄 보았습니다.

여름학기를 돌아보니 많은 시간을 봉사에 할애하지 못해 아쉽지만, 목표로 했던 판결문 리서치를 충분히 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는 단순히 봉사가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큰 성장과 경험의 기회가 되는 활동이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큼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신청해서, 보다 다양한 종류의 봉사를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여름학기동안 친절하게 안내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신 법률연맹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홍 ○ 지

이번 여름학기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 의정모니터링, 번역 활동을 통해 내가 참여한 사회의 법과 정치 시스템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재판에 참석하여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는 과정은 법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원고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가진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판사, 검사, 그리고 변호사의 근엄한 태도를 가까이서 배울 수 있었고, 재판 진행 과정을 실감나게 경험하면서 제가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모니터링 활동에서는 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구분하는 일을 했습니다. 각 의원이 내세운 공약을 나열하면서, 정치인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사회를 위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공약을 내세우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고, 미래의 유권자로서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역 활동인 키프로스공화국 헌법 번역은 매우 도전적이면서도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법률 문서의 번역은 단순한 언어적 작업이 아닌,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법체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 차례의 수정과 검토를 거치며 언어의 뉘앙스를 파악하고, 법적 용어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험했습니다.

유학생활 동안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 여름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과 함께 32시간의 봉사활동을 통해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활동을 마무리 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무렵에는 내가 한 일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했음을 바라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저에게 많은 교훈과 영감을 주었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잊지 않고 실천해야 할 가치들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예비 법조인으로서 이러한 봉사활동들을 꾸준히 할 것 입니다.

### ○ 동국대학교 김 ○ 혜

2024년 여름학기 봉사활동은 지난 봄학기에 이은 법률연맹에서의 제 두 번째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지난 학기에 워낙 검고 보람차게 봉사활동을 했던 지라, 이번에도 큰 경험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또 신청했습니다.

매 봉사활동 때마다 번역 봉사만큼은 30시간을 전부 다 채워서 진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학기 때는 주로 상원 매뉴얼과 같은 의회의 설립 체계, 운영 체계 등과 같은 주로 딱딱한 양식에 관한 내용을 주로 번역했다면, 이번 학기 때는 세계 각국의 헌법을 배정해 주셔서 3개국에 걸친 다양한 국가들의 기초 법률 체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세 개의 국가 모두 각각의 Background Information을

조사하면서 헌법이 탄생하기까지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식민지배를 받던 국가들이 독립해서 헌법을 마련한 경우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슷한 맥락을 띄고 있다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번역했기에 단순한 번역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번역 담당자님과 메일을 주고받으며 간략하지만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독립을 맞이한 국가가 마련한 법체계의 근간'을 살펴본다는 것이 '우리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름학기 내내 인턴 업무 및 각종 시험들로 너무 바빠서 봉사활동을 더 하지 못해 정말 아쉬웠습니다. 물론 봉사는 단순히 그 시간만으로 가치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시간적으로 여력이 닿지 못해 더 할 수 없었던 것은 분명 한 사실이므로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다음학기에도 이어서 봉사활동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번역 봉사서 서두를 열게 될 것 같은데, 어떤 번역들을 배정해주실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나눔의 가치, 정신적 기쁨을 제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 일반 배 ○ 영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문득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는 고민이 들어 봉사활동을 알아보았지만 마음에 맞는 활동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지인이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추천해주었습니다. 이전에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법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추천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재학 당시, 법 관련 수업들을 여러 차례 수강했었고 법조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참여한 봉사활동은 네 가지입니다. 1)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 2) 법정모니터링, 3)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분류, 4) 판결문 리서치입니다. 각 활동 이후 느꼈던 개인적 활동 소감들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 1)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 2) 법정모니터링

2024년 08월 23일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법원 내부에 들어간 날이라 앞으로도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재판 시작을 기다리면서,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는 방청하게 될 재판의 내용과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 등에 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재판 내용과 봉사활동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었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선생님의 열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재판을 방청하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활동이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선생님께서는 과거 판결을 비롯해서 어떻게 긴 시간동안 재판이 진행되어 왔는지 등 사건에 관한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단순히 봉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활동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이후의 봉사활동을 이어가는데 있어 좋은 지침이 되었다고 생각했고, 보다 감정이입해서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 및 법정모니터링을 수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나'같은 일반인도 직접 법원에 가서 재판을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고 생각한 것과 동시에 '법원의 벽이 높구나'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 활동 매뉴얼을 받았을 때 정말 법원에 들어갈 수 있을지, 신분증 검사 등으로 인해 입장 제한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등 혼자 쓸데없는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쉽게 법원에 들어갈 수 있었고, 재판을 방청할 수 있었습니다.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의 경우, 많은 봉사자들과 함께 방청했기 때문에 마냥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정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법원에 방문했을 때는 사뭇 느낌이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재판에 방청객이 없어 방청석에 혼자 앉아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없어서 공개된 재판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 법원경위께 매번 여쭙보고 들어갔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혼자 앉아있었다 보니 익숙하고 조용한 분위기에 압도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심리적 긴장감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법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 저조차도 재판 방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봉사활동이 더 많이 알려져서 조금이라도 법원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재판을 방청하면서 법조인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보여지는 법조인은 '카리스마 있고 말 잘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본 법조인들의 이미지는 차분하고 정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방청하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두 가지 있었는데, 먼저 법조인들은 방대한 자료들을 보고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도 보일 만큼 자료의 양이 방대했지만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참여한 모든 법조인이 자료를 헛갈리거나 틀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문 과정에서 증인 또는 피고인의 답변을 듣고 그 속에서 추가적인 질문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인상깊었습니다. 추가 질문들은 답변의 쟁점을 파악해야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재판을 보며 '어떻게 재판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저런 질문을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증인이나 피고인을 신문하면서 그들을 배려하는 것 같아 보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청력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큰 목소리로 말해주거나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은 답변을 해도 답변을 끝까지 경청한 이후에 다시 설명하고 질문하는 등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법조인이라고 해서 사건과 관련 법률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며, 그래서 안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3)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분류

지금까지 선거에 참여하기 전, 집으로 배송되는 선거공보물은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공약 분류 활동을 수행하면서 생각보다 공약이 다양하고 많은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분류하다보니 한 사람당 100가지 이상 공약을 제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거공보물을 읽을 때, 나에게 해당되는 것들만 선별적으로 읽어왔다는 생각이 들어 그동안의 행동을 반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공약이 있다는 것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번 활동에서 전라도 지역을 담당하였는데, 고령층을 위한 복지 공약과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출산육아 공약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공약을 보는 것이 우리나라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있고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해당 활동을 마무리한 후, 현실적으로 모든 공약들이 다 시행되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공약들이 다 지켜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공약들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등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단계에서 공약 분류 및 공약 조사 활동을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이 공약 이행에 관심을 가지고 / 자치단체 등에서는 공약을 이행하고 / 보다 개선된 환경을 보며 국민들은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는, 선순환적 흐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쏟을 수는 없지만 나부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활동이었습니다.

#### 4) 판결문 리서치

여러 활동 중 구체적인 활동을 선택할 때, 판결문 리서치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판례들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현재 혹은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주요한 법적 이슈를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또한 조사할 판결문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조사할 판결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3개의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라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차례 진행해도 예상만큼 시간이 단축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법조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자료의 양과 비교했을 때, 판결문은 굉장히 짧아서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판결문은 굉장히 밀도 높은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같은 사건이라도 1,2,3심의 구체적인 판결 내용에 차이가 있거나 각 판결에서 사용한 단어 및 근거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읽기에는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니, 판결문 리서치가 얼마나 의미있는 활동인지 알 수 있었고 보다 진심을 다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판결문을 볼 일도 많지 않고 판결문과 같은 형식의 글 자체를 접할 기회가 적다 보니 쟁점 위주의 글 읽기를 연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같은 사건 판결에서, 다른 이유를 들었으나 결론이 동일한 경우 혹은 유사한 이유로 다른 결론을 내리는 판결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며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느낄 수 있었는데 법학과 재판이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임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활동을 하면서 한 가지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은 당사자 검색 과정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료 조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낀 것이 당사자 검색이었습니다. 대법관의 경우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 경력 등을 조사하는데 무리가 없었지만, 1,2심 판사 및 소송대리인 정보를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소송대리인(변호인)의 경우, 재판 당시 소속된 회사를 기준으로 검색하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포털사이트에 검색해서 블로그, 카페 등 게시글을 찾아 동일인인지 확인하였고 새로운 법무법인 명이 있으면 검색해보는 등 반복적인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1,2심 판사의 경우, 법률신문 등 법조계 인사 관련 기사나 인물검색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었는데, 자세한 정보는 유료정보이거나 'oo법원, 이름'만 나와 있어 동명이인인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고서의 신뢰도가 저하될까 우려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을 개선하면 다음 봉사자분들이 보다 더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들여 참여하지는 못해 조금 아쉬움이 납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활동들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어서 의미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자료 중 '사회봉사를 하면서 사회봉사의 이념과 철학을 학습하게 된다'는 문장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다른 봉사활동이랑 많이 차이가 있을까 싶었지만, 활동을 마무리하니 다른 봉사활동과 다르게 진심이 들어간 활동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활동들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학기도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참여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습니다.

### ○ 중앙대학교 주 ○ 지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제게 많은 배움과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봄학기부터 여름학기까지 이어진 이 활동은 제가 법률과 정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봄학기 동안, 저는 미국 하원 규칙을 번역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입법 절차와 규칙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번역 작업을 통해 법률 문서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또한, 법과 정치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법과 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인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로 하여금 법률이 단순히 문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실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름학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분석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공약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을 검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고, 그것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불어, 일본 방송법을 번역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일본의 법 체계와 언론 관련 법률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타국의 법률 체계와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를 비교해 보는 흥미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을 통해 저는 법률이 단순히 지식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번역과 분석이라는 작업을 통해 법률의 내용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저에게 법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저에게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 ○ 고려대학교 이 ○ 연

저번 학기에 봉사활동을 한 후 느끼는 바가 많아 이번 학기에도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이란 늘 도움받는 대상이 가시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언론과 국회 법원 등을 감시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판결문 리서치와 법정 모니터링은 저번 학기에 이어 이번에도 진행했습니다. 두 활동을 통해 재판과정, 법리, 판결문 작성법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학교에서도 법과 관련된 수업들을 많이 듣는데, 아무래도 이론 중심의 수업이다 보니 실무적인 부분을 배우지 못하는 것에 항상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활동은 그런 아쉬움을 해소하게 해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판사와 검사, 변호사, 그리고 법원 공무원의 말이나 행동을 지켜보며 한 시민으로서 그들의 사소한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가 매우 크게 와 닿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관으로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지만, 사건의 당사자들에게는 일생의 한 번인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확실히 실감할 수 있었고, 앞으로 법관으로서 활동하게 되더라도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서 다양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민사,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소년 범죄와 관련된 부분까지 깊이 다룰 수 있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하나의 조문, 하나의 상황을 가지고도 법리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판결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보며 법적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한 활동은 언론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성향이 반대되는 두 언론사가 하나의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분석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채상병 특검논란'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도 자체도 높아지고, 정치와 언론이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정치와 언론의 유착 관계가 생각보다 공고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 여론 형성과 정치 싸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이번 활동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이 언론과 정부를 꾸준히 감시하고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 ○ 중앙대학교 김 ○ 진

중학교 시절, 일련의 경험을 계기로 법조인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학생이 되고 나서 법조인이라는 장래희망을 구체화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더불어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학술회와 같은 법 관련 활동들에 참여하고, 철학 고전 독서토론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여한 활동들이 그 과정과 결과가 추상적으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조금 더 현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활동을 찾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을 알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법률소비자연맹의 2024년 봄학기 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해당 봉사활동은 현실과 직접 맞닿아있는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법률과 관련된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고, 그와 동시에 저의 여러 역량을 점검하고 기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더 본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2024년 여름학기 봉사활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사법감시 배심원단 활동이었습니다. 본 활동에서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에서 진행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을 모니터링을 하며, 당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 법률연맹 측에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와 설문지를 바탕으로 모니터링하는 사건의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법정 내 시스템을 충분히 숙지하고 재판장에 들어갔으며, 사법감시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설문지의 기준점에 부합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법감시 배심원단으로 활동하는 동안 법관(판사)들이 항상 재판 당사자들에게 경어체를 사용하고 법률용어를 잘 모르거나 발언을 어려워하는 당사자에게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등 상호 존중의 태도를 지키며 재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쏟는 모습을 보며, 이와 같은 법관의 태도가 재판 당사자들로 하여금 재판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법정 내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사법감시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사건 하나하나를 기록하며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추구하여야 할 모습과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점이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국제영역 봉사활동인 외국 법률 번역활동이었습니다. 본 활동에서 '벨리즈 헌법' 원문을 번역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단어가 법령에서는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에는 한 장을 해석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영미법계의 법조문 정리체계를 먼저 공부하고 영미법계 법 조항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의 의미에 대하여 정리해놓은 논문 자료 등을 찾아 읽어보며 영미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한 결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던 번역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고, 한 페이지를 번역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점차 줄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번역봉사를 통해 각 나라의 법률들은 정의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두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며 다른 나라의 법률을 번역하고 참고하는 것은 더 넓은 시각으로 진정한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차이를 인정하며 배워야 할 것은 배우고, 고수해야 할 것은 유지하는 것이 법률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언어적 재능을 통해 조금이나마 우리나라의 법률 영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저에게 새로운 경험과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사법감시 배심원단 활동을 하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공익신고자 관련 법규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주었고, 번역봉사를 통해 새로운 생각과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번만 아니라 본 활동은 법률 영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뜻깊은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힘이 닿을 수 있는 데까지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더 의미 있고 보람찬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뜻깊은 봉사활동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영남대학교 임 ○ 령

봄학기 봉사활동을 신청하여 판결문 리서치와 국회의원 공약분석, 법정 모니터링과 같은 법률 관련 활동에 참여했는데, 법적 사고를 깊이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봄학기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얻게 된 법적 지식과 경험들이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판결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며 정책과 법률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법 공부에 대한 열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름학기에도 봉사활동을 한 번 더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학기에 활동했던 봉사 또한 앞선 봄학기 봉사활동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영역의 법을 다루었지만, 법이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법률과 사회, 정치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었고, 앞으로 법률 관련 지식을 더 넓혀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도 판결문 리서치 봉사 [소유권 등기이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퇴거불응], [이혼및재산분할] 3가지 사건의 판례를 분석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사건마다 법적 쟁점이 달랐기 때문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어떻게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분석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내세운 공약을 찾아보고, 어떠한 공약을 내세웠는지 분석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최영일 전라북도 순창군수와 유희태 전라북도 완주군수의 공약을 분석했습니다. 두 단체장은 각각 농업 중심의 순창군과 산업 개발 중심의 완주군에 맞춘 다양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정책이 지역 주민이 살아가는데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있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순창군의 농업 관련 공약은 지역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완주군의 산업단지 개발과 일자리 창출 공약은 지역의 미래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정책이었기에 공약들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흐름으로 전개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티 공화국 헌법 번역 봉사를 통해 헌법의 일부 조항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법률 문서 번역은 일반적인 번역보다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번역해야 했습니다. 특히, 법적 의미가 바뀌지 않도록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티의 헌법에서 쓰이는 특정 용어들은 한국 법률에서 쓰이는 용어와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자연스럽게 번역하기 위해 아이티 공화국에 대해 조사하고 정리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번역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법률 용어를 단순히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고 번역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 번역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경험들은 단순한 법적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서, 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생각해 보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봉사활동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판례를 읽어보며 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판사라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 것인지, 또는 국회의원 공약 분석을 통해 내가 이 지역의 주민이었다면 과연 만족할 만한 공약이었는지 등 생각해 보며 더욱 깊이 있게 공부해 볼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 ○ 한국외국어대학교 임 ○ 원

이번학기는 인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한 학기간 봉사활동을 마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쁜신 와중에도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고, 친절한 안내를 해주시는 담당자님들께 심심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학기는 판결문 리서치를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좋아하는 대한민국 프로야구에서 발생했던 불법 스포츠베팅 및 도박사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스토킨거벌등에관한 법률위반,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라고 생각되게 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을 다루면서 상당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투수이자 프로야구 명문팀 삼성 라이온즈의 1선 발을 맡았던 모 선수는 자신의 은퇴경기마저 불법 도박사이트에 베팅을 하고, 브로커를 만나 자신이 은퇴경기에 어

떻게 투구를 하겠다는 정말 대한민국 프로야구계를 농락하는 것이 판결문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 어이가 없을 뿐더러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편화, 정보의 다각화로 인해 불법도박을 접하기 쉬운 현 세대들이, 특히 운동하는 엘리트 체육인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스토커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다루면서도 현재 데이트 폭력, 살인 등 심심하게 치정문제가 빈번한 시대라는 것을 느낍니다. 한 때 사랑했던 사이였던 사람들인 경우도 있고, 자신이 피해를 본 입장에서 정당한 서류 제공과 같은 요구를 하려고 연락했다가 상대가 차단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붉히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전자의 경우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그 이후 문제가 생겨 서류를 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일이라던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명백한 피해자였던 사람이 스토커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나아가 피고인이 되어 형벌을 받는 일들은 존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더 맑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 많은 판사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단순 봉사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한 발짝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일들이 꽤나 생깁니다. 더 깊게 이해를 하기 위해 뉴스를 찾아보거나, 유튜브로 내용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발 더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단순 봉사활동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많은 다른 자원봉사자들께서도 봉사를 꾸준히 진행함과 동시에 자신의 관심사를 키워 나가고, 봉사의 종류 중에서도 내가 무엇을 잘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꼭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이번 학기 역시 잘 마무리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다음 학기도 이렇게 소감을 적을 수 있길 바라며, 다음 학기도 함께 할 많은 동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힘 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서강대학교 김 ○ 린

하나의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벌써 햇수로 3년이 넘도록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들을 되돌아보니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시간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특히나, 지난 봄학기에는 사법감시 배심원단 활동을 하였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교대역 방문을 통해 법원의 웅장하고 경건한 분위기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고, 하루 빨리 법조인의 꿈을 이루어 이곳을 재방문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시작할 때는 항상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끝날 때의 보람과 뿌듯함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년동안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법률을 번역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평소에는 항상 미국의 주 헌법이나 상원 매뉴얼 등의 법률을 번역하였지만, 처음으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헌법을 번역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번역을 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동티모르라는 나라의 특성을 파악하며 헌법에는 다양한 가치와 이념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지 오래 되지 않은 동티모르 헌법에는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독립정신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헌법은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이번 활동은 의정모니터링과 법률 번역 봉사활동에만 참여하였지만, 가을학기 봉사활동에는 조금 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참여하여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으로 남아있는 재판 모니터링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더욱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여 언론모니터링 봉사활동도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가을학기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참여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에게 항상 좋은 기회를 주시는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합니다.

#### ○ 한양대학교 박 ○ 형

먼저 좋은 기회에 뜻깊은 봉사활동을 할 기회를 제공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여름학기 봉사활동을 통하여 주권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고취하고 우리의 주위에서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재판의 경우, 봉사활동 이전의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실제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할 기회가 없으며 언론매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접하는 것이 전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봉사활동을 통하여 재판을 실제로 방청하면서 각각의 행위자가 재판장 내에서 작용하며 법적 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집행이라는 하나의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보는 것은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법적 정보들에 대하여, 제가 대신하여 재판을 방청하고, 그 내용을 공익에 배포하며 결론적으로 사회 내 공공선을 높일 수 있는 봉사활동은 저에게 매우 인상적이고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는 개인적인 다짐과 함께 추후에 법 관련 직종에 근무하게 된다면 이를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나아가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는 좋은 계기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모니터링 또한 우리가 법은 대표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견제라는, 건전한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한 약속인 공약을, 또 우리가 그들에게 권력을 줄 때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공약을 대표자들이 권력을 쥐었을 때 이행하는 것은 민주사회에 대한 약속이자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욱 선진화된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이슈가 되는 정치인들의 스캔들 및 개인적인 이슈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아가 그들이 나아가고자하는 나라의 방향에 대한 관심, 더욱 세부적으로는 그들의 정책과 그들의 공약에 대한 견제 및 토론과, 그 이행에 관한 지속적인 목소리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좋은 계기였습니다.

#### ○ 경북대학교 변 ○ 혁

막연한 관심에서 구체적인 확장으로의 첫걸음 평소 법률과 재판과정에 관심이 많아 관련 활동들을 찾아보곤 했다. 하지만 관심만 있었을 뿐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던 나로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했다. 그러던 중 인터넷을 통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되는 여름학기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다. 봉사활동을 매개로 법률과 관련된 지식을 확장하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법조인의 꿈을 구체화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여 봉사자로 처음 지원했다.

관심있는 분야의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었지만, 막상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받아보니 나의 얕은 지식으로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과 우려의 마음이 있었다. 자료에 명시된 대로 활동을 시작해보니 금방 적응하여 흥미를 갖고 활동할 수 있었다.

이번 여름학기 필수 봉사활동이었던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분류활동과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였다. 공약분류활동의 경우, 배정받은 지자체장의 선거공보를 찾아 읽어보며 해당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실용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내세웠는지 확인해볼 수 있었다. 이전에는 선거철이 되면 걸려있는 후보자 포스터에 게시되어있는 공약의 주요내용만 보곤 했었는데, 기존에 알던 공약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까지 공약으로 적혀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공약을 천천히 읽어보며 분류하였고, 연임에 성공한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이전에 수행한 공약을 중복으로 작성한 것인지를 검토하는 과정을 가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활동을 진행하다보니, 배정받은 지자체장이 공약을 어느수준까지 이행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직접 찾아보고 스스로 평가해보기도 했다. 선거공약 등의 정치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나랑은 거리가 멀다고만 생각하여 관심이 적었는데 공약분류활동을 통해 해당분야에 대한 흥미가 생겼고, 앞으로는 유권자로서 더욱 의미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선거공보를 찾아보고 선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정모니터링 활동의 경우, 법원에 가 형사부, 민사부, 행정부 등 진행 중인 재판을 방청하는 것으로, 직접 법원에

가서 진행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흥미롭게 느껴졌다. 재판의 과정이나 재판부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제 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판사님의 경어체 사용여부, 검사와 변호사의 모습, 법원직 공무원의 업무태도, 법원 내 바뀌어야 할 점 등을 감시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활동을 위해 방문한 법원은 대구지방법원으로, 호기심과 열정을 품고 방문하였으나, 법정의 엄숙한 분위기와 복도에서 대기 중인 재판 당사자들의 모습을 보니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어 약간 위축이 되는 듯했다. 꾸뻑거리며 개정 중인 법정에 들어가 방청을 하였고, 첫 방청을 경험한 이후로 모니터링을 진행한 모든 재판이 기억에 남을 정도로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의 과정은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재판공개주의 원칙에 따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방청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주관서민으로서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매체를 통해서만 접하던 법정 내 재판당사자들의 모습은 너무도 생생하게 다가왔다. 냉철하고 단호한 판단을 위해 엄숙한 분위기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님의 모습은 특히 기억에 남았다.

물론 모니터링 과정에서 비효율적이라고 느끼는 문제들도 존재하였다. 재판절차가 길어질수록 판사를 비롯한 당사자들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한 달이 넘도록 준비하지만, 재판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마무리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특히 증언을 위해 증인이 대기하는 경우, 재판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다른 재판과의 시간 조정을 위해 다른 날 다시 참석할 수 밖에 없는 점이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졌다. 시간 조정을 위해 증인에게 양해를 구하는 판사의 모습도 기억에 남았다. 당사자들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많은 준비를 했을 텐데 다음과 같은 경우로 헛걸음을 하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활동을 통해 재판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도 유익한 시간이었다. 여러 재판부의 재판을 방청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들을 수 있었고, 재판에 몰입하여 듣다보니 관련 사건의 경우, 어떠한 판례가 있었는지 찾아보기도 하는 등 방청을 통한 지식을 확장하는 기회가 되었다.

선거공보를 찾아 공약을 분석하고, 더운 날씨에도 법원을 직접 방문하는 과정이 마냥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각각의 활동들이 향후 중요한 경험이 되어 나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양분으로서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한 나의 결정에 만족하며 뿌듯하게 여름학기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리라 생각한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다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다른 활동도 진행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며 여름학기 봉사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 경희대학교 강 ○ 은

더운 여름 학기, 법률소비자 연맹의 활동은 의정모니터링과 꾸준히 해오고 있는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었습니다.

두 활동 모두 1년 이상 법률소비자 연맹 봉사를 하면서 꾸준히 해왔던 활동이었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공약을 정리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의 선거 공보를 보고 공약을 정리하는 활동인데 선거 공보에는 정말 여러 지역구 별로 자세한 선거 공약이 나와 있었습니다. 지역구의 큰 활동들도 있었지만 마을 별로 국민을 위한 작은 활동까지 선거 공보에 나와 있는 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4년동안 어떻게 이 공약들을 지켜나가는지 저를 비롯한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 봉사하시는 여러 분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민주 사회가 잘 운영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봉사 활동은 꾸준히 해오는 판결문 리서치입니다. 이번 학기에도 민사 재판을 주로 리서치하였지만 형사 재판과 행정 재판도 리서치해보았습니다. 판례를 찾다보니 정보가 민사 재판 쪽이 많아서 리서치를 주로 하였는데 이번 학기에는 뉴스를 보고 관심 있게 된 성폭력 범죄에 대한 판례도 리서치하였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알려진 N번방의 심층 보도를 보게 되었고 거기에 관련하여 관심을 갖

게 되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판례를 리서치하였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사건의 피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처벌의 정도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처벌의 강도를 강하게 하여 범죄자들을 처벌한다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예방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SNS가 넘쳐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범죄 예방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도 여러 생각을 해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국민들에게 엄중하고 존엄한 존재이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국민과 국가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국민들의 관심은 의무와 책임입니다. 저는 민주주의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사법부와 국회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법률 소비자 연맹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학기에도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하겠다고 생각하여 뿌듯하였고 다음 학기에도 민주사회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 ○ 전북대학교 양 ○ 비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민선 8기 공약분류, 의정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등의 주요 활동을 통해 법률과 공공정책에 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춘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과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의정 모니터링 활동은 지역 사회의 정책 변화와 발전 상황을 세세히 추적하면서 공약을 분류하는 작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5대 공약을 매우 세심히 살펴보고도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의회의 활동을 주의 깊게 파악하기도 했다. 그들이 제시한 정책과 공약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분석하며, 그 영향에 대해 체감하기도 했다. 특히 그러한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이해하게 되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와 지역의 꾸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민주 시민의 역할이자 책임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한편,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을 살펴 보면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우선순위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각 공약이 어떤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지 살펴보고, 당선을 위해 무리한 공약을 내세운 것은 아닌지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공약분류 작업에 임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실제로 해당 공약과 정책이 지역 사회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약을 분류하고 분석함으로써,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을 파악하고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

판결문 리서치는 법률적 판단의 과정과 근거, 그리고 그 결과가 재판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활동이었다. 판결문을 차례대로 분석하면서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또한, 법률적 판단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어떻게 기여 하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특히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법적 사고를 쌓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법률이 현실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단순히 봉사라는 개념을 넘어, 법률과 정책의 실제적인 적용과 그로 인한 사회적 정의와 변화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였다. 이 활동들을 통해 법률과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더욱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법률적인 이해를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의 활동과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싶다.

### ○ 용인대학교 박 ○ 정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봄학기 봉사활동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교육적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며, 법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더욱 확장하고, 실제 법률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

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국회의원 의정 모니터링, 코트디부아르 헌법 번역, 판결문 리서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의정 모니터링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몸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공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약은 단순한 선거 운동이나 정치 전략이 아닌, 실질적인 정치적 책임과 투명성의 중요한 근거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코트디부아르 공화국의 헌법을 번역하는 작업을 통해 제가 평소 접하지 못했던 다른 국가의 법률 체계와 문화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문화와 법률 체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쌓을 수 있었으며, 이는 제가 법률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이를 이해하며 해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주요한 실제 사건을 통해 법률의 실무 적용과 그 영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활용에 대한 이해도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이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켜 주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판사들이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판단이 실제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법률은 다른 아닌 사람들의 삶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법률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넘어, 법률이 어떻게 사회를 통합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2024년 여름학기 봉사활동은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남겨 주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이론적으로만 접했던 다양한 전공지식을 작게나마 직접 활용해볼 수 있어 뜻 깊었습니다. 가끔은 개인적인 일상 활동과 함께 병행해야 하는 이 봉사활동이 문득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낸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저에게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 ○ 동국대학교 강 ○ 영

작년 가을학기에는 학업으로 인해 바빠서 봉사활동에 집중하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학기에는 시간이 남는 만큼 뜻깊은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신청했는데 여러모로 로스쿨 진학과 변호사 준비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하고, 매번 선한 영향력 끼치며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 제공해주는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 인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의정모니터링, 언론모니터링, 사법감시배심원단, 판결문 리서치 총 4가지 활동을 했는데 각각의 활동 모두 의미 있었습니다. 의정모니터링의 경우, 각 지자체장의 5대 공약과 선보를 읽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주민자치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머릿속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당선 후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공약과 당선 전 내세우는 공약이 다르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장은 본인의 임기 때 성과를 거두기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보며 국비, 시비 등으로 충당한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을 수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는 지자체장이 많았기에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디에 얼마만큼 쓰이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언론모니터링의 경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만큼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평소 언론과 정치성향에 관심이 없었던 저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등 특정 언론사들의 보도경향이 완전히 나뉘는다는 이야기들을 믿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두 언론사를 비교분석하면서 어느정도 일 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료인 증원 논란에 관해

서 상당히 편협한 시각으로 보도하는 모습의 두 언론사를 보며 언론 또한 반성해야하지만 소비자도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법감시배심원단으로 방청한 재판은 참 숙연했고 인상 깊었습니다. 10년이나 넘는 긴 시간동안 꿈을 향한 길을 포기하고 재판에 얽매어있을 수밖에 없던 피고인이 참 안타까웠고 형사소송, 재판의 기본이 되는 대원칙마저도 무시하며 공판을 진행하는 수사기관을 보며 우리나라 사법의 미래가 어둡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있을 최종 공판 기일에 재판을 방청하러 가서 과연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인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능동적인 삶을 계획해나가게 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리서치는 제가 타 학회에서도 보고서로 작성했던 주제인 강제추행죄 법적 변경 관련 대법원 판결이었는데 역시 오랜만에 읽어오 어렵고 생각해볼 문제가 많았던 판결이었습니다. 1,2,3심 판결 약 90페이지 가량을 모두 읽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해하는데 힘들었지만 학점을 잘 잘 받기위해 기계적으로 판결문을 암기하는 것보다 판결의 근거와 공정성, 타당성, 합리성, 논리성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반문하며 정말 이게 최선이었는가 비판적으로 판결문을 읽어보니 훨씬 사고력이 증진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2심 판결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판단의 근거가 많았지만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읽으면서 독해력 향상을 위한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가을학기에도 시간이 되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 ○ 경희대학교 강 ○ 재

지난 여름, 저는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봉사활동 중에서도 특히 법정모니터링과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 공약이행률조사 의정모니터링, 그리고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법과 정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으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한층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 봉사활동에 참여할 때는 약간의 두려움과 기대감이 공존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과 정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법정모니터링을 선택하였는데, 법정의 분위기와 재판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법정모니터링을 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각자의 역할을 맡은 판사, 검사, 변호인, 그리고 피고인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이 단순히 글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도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분류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 당시 약속한 공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공약들을 보며 정당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정치인이 단순히 약속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봉사활동 중 가장 도전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판결문을 처음 접했을 때 그 복잡성과 법률 용어의 난해함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매뉴얼의 지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며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먼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원하는 사건의 판결문을 검색하고, 필요시 판결문 제공신청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쟁점을 도출한 후 원고와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및 근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판결문을 해석하고 요약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으며, 법률적 사고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법과 정치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한층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

고 싶습니다. 이번 활동이 저에게 준 깨달음과 배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법과 정의, 그리고 정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서강대학교 강 ○ 혜

이번 2024년 여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제 첫 법 관련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로스쿨 진학을 결심한 후 어떤 활동을 해야 할 지 고민을 거듭하던 제게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창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많은 봉사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법 관련 활동에 대해 전무하던 제게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활동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활동들의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의정모니터링 공약 이행률 조사 활동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치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러한 활동을 해보면서 '정치인들이 내거는 공약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과연 이 공약들의 절반이라도 이행할까?' 하는 의구심이 크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서의 반장선거처럼 보여주기 식 공약을 내거는 건 아닐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공약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널리 알리는 의정모니터링과 같은 사회 활동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번역 봉사 활동을 하면서 라오스의 헌법을 번역하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라오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깨지는 순간을 겪었습니다. 내심 라오스는 개발도상국이고, 법체계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헌법이 국민의 자유를 꽤 보장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이다 보니 한국과는 꽤 달라 놀라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꽤 노력한 헌법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 개인적으로 아쉬게 느끼는 점은, 첫 활동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익숙한 활동들을 골라하게 되어 법정 모니터링, 시민 배심원단,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학기에 주로 했던 활동은 국제 번역 활동이었는데, 영어 관련 고등학교를 나와 영어를 번역하는 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다는 이유로 국제 번역 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것 같습니다. 헌법을 번역하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나름의 보람과 재미를 느끼기도 했지만, 이왕이면 법정에 직접 가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판결문을 직접 읽어보며 분석하는 활동을 했더라면 더 폭넓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을 지워보고자 다음 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음 학기에는 법정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시민 배심원단 등의 활동에 도전하여 관련 경험을 더 쌓아볼 계획입니다. 분가에서 서울까지 가는 교통편이 좋지 않아, 주로 장소는 서울이고 시간은 아침 시간인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장담은 하지 못하겠으나, 만약 수원에서 열리는 법정 모니터링 활동이라면 꼭 참여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활동은 첫 로스쿨 관련 대외활동으로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 ○ 부경대학교 강 ○ 연

2024년 6월 21일부터 2024년 9월 1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법률 소비자 연맹의 여름학기 봉사자로서 활동하며 느낀 것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2024년 봄학기 봉사활동 경험이 있었기에 법률연맹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해진 시점이었다. 이번 여름학기 역시 온라인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고, 아쉬움이 있었지만 언젠간 대면으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기회가 있겠지라는 기대도 생겼다. OT 회신문을 제출하고 나니 여름학기 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봄학기에 하지 못했던 법정 모니터링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대학생 신분으로 방학 동안 해야 할 것이 많고, 여유

가 없다 보니 이번에도 제대로 된 활동을 못 하게 되어 아쉬움이 있다. 늘 시간은 흘러가고, 과연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냈는지 되돌아보면 항상 후회가 뒤따르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의미 있고 보람찬 다른 활동을 통해 여름학기 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필수활동이었던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분류 활동은 각 지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공보를 확인하고, 5대 공약 및 공약을 분석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활동을 하다 보니 흥미가 생겨서 지정된 단체장 외에도 추가로 해운대구의 단체장까지 조사를 해보았다. 단체장이 각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심도 있게 연구하고 시민들에게 알린 공약들을 조사하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공약을 계획했는지 어느 정도 알아차릴 수 있었다. 특히, 5대 공약에는 목표나 이행 방법, 이행 기간, 재원조달 방안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주민 삶의 질과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이해할 수 있었다. 시행 여부와 정책 결과 및 정책 평가 부문에서는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려는 다양한 노력과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봄학기과 마찬가지로 독일어와 스페인어를 번역하는 활동에 참여했다. 독일의 변호사 보수법과 스페인 재산세 법을 번역할 수 있었는데 지난번에 했던 독일 행정법, 스페인 정부법 번역 활동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각 나라의 언어를 직접 공부한 경험이 없어서 생각한 것보다 까다로운 활동이었고, 나라의 문화와 법 성립 배경, 경제, 사회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자연스러운 번역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독일과 스페인의 나라 건국 배경, 종교, 정치적 상황 등을 사전으로 조사한 후에 번역을 진행하면서 더욱 깊이 있게 번역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독일 변호사 보수법 번역을 통해 보수 제도의 특색과 법정 보수의 기능, 소가, 산정 방법, 단위 제도, 특별한 경우의 보수, 합의에 의한 보수, 보수 계약 등을 추가로 배울 수 있었다. 스페인 재산세 법으로부터 세금의 성격과 목적, 적용 범위, 과세 요건, 재산 및 권리, 납세자, 자산 요소의 소유권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재산법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재산법과 비교해 본다면 더 효율적인 재산 운용을 위한 법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지금까지는 독일과 스페인 법에 대한 번역 활동만 해와서 더 다양한 나라의 법과 문화를 알고 싶어졌다.

매번 학기가 끝날 때마다 했던 활동을 되돌아보고, 다음에 하고 싶은 활동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실천해 보는 게 뿌듯하면서도 보람찬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든다. 이번에도 조금의 아쉬움과 함께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여름학기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다가올 가을학기 봉사활동을 기대해 본다.

### ○ 서울사이버대학교 고 ○ 현

작년 겨울에 이어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두 번째 참여하게 되었다. 지난번에 했을 때도 나름 재미있는 활동이라고 느껴 다시하게 된 것이었다. 이번 시즌에도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법정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를 위주로 그리고 민선 8기 지자체장 공약분류 조사까지 진행하는 봉사를 하였다.

OT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메일전송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판결문 리서치 부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이번 시즌에서 한 첫 번째 판결문리서치는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자신이 맡은 피고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군검사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형사사건의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군검사가 찍은 녹화영상을 헌법재판소에 증거제출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해 불복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이고, 두 번째 판결문리서치는 원고 법무법인은 북한주민인 피고들의 대리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을 위해 법정변론을 해서 100억이 넘는 큰 돈인 상속재산을 찾아줬으나 피고들의 대리인이 무효를 주장해 이에 대해 법원에 약정이행을 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제기한 사건이었다.

두 차례 시즌을 통해 6개 판례의 판결문을 리서치를 했는데, 일관되게 느꼈던 점은 판사님들이 판결문을 너무나도 장황하게 늘려서 쓰신다는 인상을 받았다. 많은 국민들이 사법 자체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판사

님들이 판결문을 간략하게 풀어써주신다면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지난 시즌에도 했던 활동인데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정모니터링을 5차례 실시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전반적으로 마이크 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재판당사자들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발언해 방청석에서 뭐라하는지 잘 들리지 않아 아쉬움이 컸고 서울행정법원은 지지직 거리는 했지만 영상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을 생전 처음봐 인상적이었고 재미있게 방청했던 거 같다. 법원 판사님들마다 재판하는 방식이 제각각 다르면서도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이어 마찬가지로 지난 시즌에서도 방청했던 사건이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SAT 문제 관련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12년만에 재판절차가 마무리되는 사건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지연될 수밖에 없었는지 의아함을 가지고 방청했던 거 같다.

2022년도 실시된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장에 대한 공약분류활동을 하는 자원봉사도 하였다.

마포, 동작구청장과 강릉시장이 그 대상이었는데 공약을 내세우는 이유는 당선이 된다면 주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노력하겠다는 취지였으나 공약수가 100개가 넘어가기도 했어서 4년이라는 제한된 임기동안 이 많은 걸 다 하실수 있겠냐는 의문이 가장 많이 들었던 활동이었다.

지난 시즌부터 반 년정도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 나라의 사법절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사님들이 판결문을 어떻게 쓰시는지, 법과 국민 삶의 관계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공부하고 사회에 대해서 배울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 사회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 해봐야겠다고 느꼈다.

### ○ 경희대학교 구 ○ 찬

어릴 때부터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참 해왔던 것 같다.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내가 사회정의를 위해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부분이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해왔고, 봉사활동이나 소논문 작성, 전공 및 교양 수업도 사회 복지와 관련된 영역을 많이 들여다보려고 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막상 법조인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고, 실제로도 진로에 대해 많이 방황하기도 했다. 그러던 와중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지인으로로부터 권유받았고, 해당 봉사활동을 하면서 일선에서 법조인에 대한 꿈과 사회정의에 대한 인식을 환기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는 3가지 봉사활동을 했다. 첫 번째는 법정 모니터링이며, 두 번째는 사법 감시배심원단, 마지막으로 의정 모니터링이다. 첫 번째의 법정 모니터링은 말 그대로 법원의 각 법정에 들어가 판-검사, 변호사, 법정 경위, 당사자들의 상황과 양태를 살펴 법적 공정성과 절차 정당성이 확보되는지 확인하는 일이었다. 이미 2022년도에 '사기'사건 구발인으로 재판에 참여해본 적이 있었지만, 오랜만에 법원을 방문하니 여전히 엄숙하고 차분한 재판장 분위기에 위축되기도 했다. 하지만, 다들 무척 친절하셨고, 어디서 왔냐, 꿈이 뭐냐, 이거는 이런 걸 나타내는 거 다는 식으로 긴장감을 풀어주시고, 살갑게 얘기를 걸어주시는 법정 경위님도 계셔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총 10시간 정도를 법정에 머물면서 최대한 다양한 사건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려 했다. 사건명마다 중요하게 인식되는 심문 양식이나, 증거들, 또 거기에 반박하는 형태는 어떤지 하나 둘 씩 궁금해져 갔다. 아직 대략적인 형태도 못 잡았지만, 법조인에 대한 환기가 될 수 있었던 것에 크게 감사하고 있다.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는 재판을 한 번도 방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가을학기나 겨울학기에 가볼 기회가 생긴다면 꼭 한번 방청하고 싶다.

또 하나는 의정 모니터링이었는데, 이번 여름학기 모니터링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분류였다. 공약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닌 단체장이 선거에 내세운 공약을 하나하나 나누고 몇 개의 공약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등을 살피는 간단한 활동이었다. 나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맡아 공약을 분류하였다. 행정학과를 다니다 보니 해당 공약이나 정책 분류에 익숙한 편이라 비교적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공약을 분류하면서 공약의 효과성이나 적절성 유무를 나름대로 파악하는 것을 병행하려 노력했던 것 같다. 또한, 해당 자치단체들을 조사하면서 다른 지역에도 관심이 생겨 임의로 분류하여 총 7명의 지방자치단체의 공약을 분류하였다. 조사하면서 처음엔 당연히 규모가 작은 단체일수록 공약도 추상적일 것이고,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리라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경북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큰 포항이나 혁신 도시의 김천 등의 공약이 추상적이고 한쪽 분야로 치우치는 등의 모습을 보여 다소 아쉬웠으며, 합천군과 같은 작은 도시가 오히려 공약을 매우 자세하게 분류하고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물론 이를 얼마나 실현할지는 미지수이기에 이를 얼마나 시행하는지 감시하고 새로이 요구하는 시민들의 노력이 부단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봉사활동을 하면서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내가 비교적으로 늦은 시기에 봉사활동을 접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아 공약 분류의 대상이 중복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보조해주시고 관리해주시는 관리자분께 굉장히 죄송스러웠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였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법조인에 대해 진로를 환기하고 재판장, 법정이라는 일선에서 법에 조금 더 친숙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나에게 큰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해당 활동이 다른 시험과 봉사활동을 병행하다 보니 시간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봉사활동이 처음이다 보니 다양한 활동이 많은데 크게 2개 정도의 봉사활동만 수행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기회가 된다면 가을학기의 국정감사나 번역 봉사도 같이 활동해보고 싶다.

### ○ 계명대학교 금 ○ 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봄학기 봉사활동을 하고 저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는 생각에 여름학기 봉사활동도 신청했었습니다. 저는 여름학기 봉사활동 중 번역 봉사와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했고 필수 활동으로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분류 의정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이번 번역 봉사는 바하마 연방 헌법을 번역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처음 배정받았을 때, 대한민국 헌법 외에 다른 나라 헌법을 접해본 적이 없었기에 궁금하고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에 번역한 미국 하원 의사규칙보다는 헌법이 더 익숙하다고 느껴져 수월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한 헌법의 느낌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헌법은 해당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가 조직이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에 대한 배경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도 한글말로 번역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하마의 건국 배경이나 정부형태, 헌법 전문을 먼저 알아보고 해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한민국 헌법을 기준으로 잡고 있어서 바하마 연방 헌법이 제가 생각한 헌법의 느낌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활동을 하며 나라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다 보니 왜 이런 조항이 있고, 이런 부분을 따로 규정하는지 등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조항에 내용이나 조건이 세밀하게 나열되어 있다 보니 번역할 때 헛갈리는 부분도 많았고, 똑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영어로 된 긴 문장도 자연스럽게 의역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으로는 민사사건 2건과 형사사건 1건을 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은 관심 있는 주제나 사건을 직접 선택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사안에 대해 신청하여 조사했습니다. 이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보험금과 관련된 판례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판례였습니다. 우선 보험금 판례의 경우, 소외인이 회사 업무와 육아 등 사에서 갈등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야근 후 귀가하여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들러싸고 소외인의 행위가 보험약관의 면책사유인지 예외 사항인지에 대한 다툼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사망보험과 관련하여 자살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여러 사건을 보며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 사항도 따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살아생전에 우울증 등 정신과적 기록이 없더라도 사후에 당시 정황상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면 자살이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판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들은 행위가 '청취'인지 여부가 대법원에서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며 법은 정말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사건에서 갈보기에 혹은 법 감정으로는 해당하는 행위가 맞는 것처럼 보여도 단어를 분석하고 입법 취지나 법률 문언과 함께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안을 꼼꼼하게 들여다봄으로써 역올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름학기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법도 해석해 보고 새로운 판결문도 분석해 보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로 작지만, 꾸준히 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사법 감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 이화여자대학교 김 ○ 영

2024년 봄학기에 이어 여름학기 동안에도 활동한 법률 소비자연맹에서의 법률자원봉사활동은, 법조인 희망 진로를 위해 더욱 강렬한 동기부여를 얻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의 봉사 기간 동안, 제 22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을 조사와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분류 의정모니터링 활동, 독일 내부자고발법과 연방평등법 번역 활동, 법정 모니터링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반적으로 법과 정치, 사회의 동태에 대해 배우고 이를 통해 내면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독어독문과 학생으로서 독일 내부자고발법과 연방평등법을 번역하며, 어렵고 생소한 낯선 독일 법률 용어들을 직접 찾아보며 힘든 과정을 통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주전공과 복수전공(이화여자대학교 내의 법학 연계전공과목)을 융합시키며 진정한 전공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한 것 같아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공수업을 들으며, 독일 민법이 우리나라 민법 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배운 적이 있는데, 이번 학기에 법여성학 수업을 들으며 우리나라 또한 젠더법적 발전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독일의 연방평등법과 같은 내용의 법률을,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법의 취지 또한 독일의 연방평등법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고용 차원에서 남녀평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독일과 달리 여성이 저대표(각 개별적 호봉집단, 보수집단, 임금집단, 이력집단 등과 같은 영역에서 여성의 업무참여가 50%이하일 때) 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기에, 실효적인 할당제 실행이 애초부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AGG) 제 15조 상의 손해배상은 차별의 희생자들에 대해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비물질적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차별행위(차별금지위반행위)의 사법적 효과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율이 없는 경우가 적

지 않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은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내용이 규정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해 독일의 관련 규정을 우리나라 법률제도에 맞게 변용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법정 모니터링 역시 판사님과 검사님, 변호사님들을 직접 보며 재판의 흐름을 몸소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역경에 처하지 않는 이상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며, 따라서 재판장이 마치 검사와 변호사의 불꽃같은 토론

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 드라마나 각종 영상매체에서 다루지는 토론장과 같은 흥미진진한 재판장의 모습만 보았기에, 실제로도 이러한 기초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장은 다른 의미로 흥미로웠습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실감이나 토론을 벌이는 일은 거의 없고, 오히려 증인이 감정적으로 울분을 토로하는 일이 잦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변호사와 같은 경우, 마치 자신이 피고인 양 감정이입을 너무 지나치게 하여 판사에 의해 제지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또한 일반사람이 보아도 폭행치사죄가 명확히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혼신을 다해 변호하는 변호사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건이더라도 한번 맡기로 했다면 온 책임을 다하여 최선의 논리로 변호하는 법조인의 리걸 마인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준비서면 등 대부분의 서류작성이 온전히 준비된 채로 법정에서 서기 때문에, 말하기에 비해 작문실력이 법조인의 자질로서 더욱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 ○ 중앙대학교 김 ○ 영

대학교 입학 후 제가 관심있는 분야인 법률과 봉사를 아우를 수 있는 활동이 없을까 찾아보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법률 관련 봉사활동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번 2024년도 여름학기에 참여했습니다. 막상 참여한 후에는 학부 수준인 제가 법률 봉사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료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각 언론의 입장을 분석하고, 국회의원들의 공약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공약 분석을 하는 활동 등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실시하는 활동들 모두 법률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한 활동으로는 이번 2024년도 여름학기의 필수활동인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을 분류하는 활동이 필수활동이었습니다.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던 편이라 유권자로서 국회의원의 공약을 면밀히 살펴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한 개인이 내세우는 공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한 공약을 세우고 실제로 이행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주권을 가진 국민이 국회의원의 공약과 그 실현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역시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된 언론 모니터링 활동입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한 주 동안 10대 일간지에서 개재한 사실들 약 150개를 분석하는 사실 분석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특정 주제를 정하지 않고 모든 사실들을 읽다 보니 모든 분야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사회 이슈들이 정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각각의 모든 사실들을 최소 3회 이상 읽고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막막했지만, 같은 사건을 두고 언론사마다 주목하는 시사점이 다른 것에서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또한 사실이 각 언론사 별 정치 이념이 많이 반영되어 그 점이 구분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평소에 뉴스 기사나 시사물을 잘 찾아보지 않는 편인데, 앞으로는 평소에 즐겨 읽지 않는 분야라 할지라도 꾸준히 읽어 사회 현상을 폭넓게 바라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처음 시도해 보는 활동들이 많아 다양한 경험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봉사활동들과 달리 재택에서 할 수 있어 편하게 작업할 수 있으면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활동들이었기에 그 과정에서 또다른 깨달음을 얻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한 활동들이 아니라 직접 하나하나 찾아보고 분석하는 노력이 깃들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참여하여 우리 사회에 지속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싶습니다. 따라서 다음에는 이번 학기에서 진행하지 못한 번역봉사,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 활동에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 ○ 성신여자대학교 김 ○ 립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학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와 분석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특히 판결문 리서치 작업을 통해 법적 문제를 깊이 파악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롭고 유익했다. 이 소감문에서는 내가 참여한 판결문 리서치의 주요 활동과 그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민사 이혼 소송에 관한 판결문 리서치가 가장 흥미로웠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을 다루면서, 법적 판결이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민사 소송에서의 법적 논리와 판결의 근거를 분석하는 과정은 내게 법적 판단의 복잡성과 섬세함을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다. 민사 사건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판결문을 통해 이러한 법적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해결되는지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반면, 행정법 판례는 처음 접하는 분야였는데, 예상보다 복잡하고 난해하다고 느꼈다.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을 분석하면서 행정법의 다양한 규정과 절차를 접할 수 있었지만, 그 복잡한 법적 구조와 판례의 해석은 쉽지 않았다. 행정법은 법적 원칙이 행정적 결정과 행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하며, 이는 법적 논리와 규정이 매우 세밀하게 얽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법은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학습이 필요한 분야임을 느꼈다.

형사법 판례를 다루면서도 흥미로움을 느꼈다. 형법 상해 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법적 논리와 판결의 접근 방식이 흥미로웠고, 비교적 쉽게 읽히는 판결문이 많았다. 형사법의 경우,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적 원칙이 명확하게 제시되기 때문에 법적 분석이 상대적으로 직관적이었다. 형사법 판례를 통해 법적 판단의 논리적 전개와 형벌의 적정성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는 내 법적 사고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법적 분야에서의 연구와 분석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었다. 민사 소송, 행정법, 형사법 등 다양한 법적 분야를 접하면서 각각의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과 법적 논리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법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법학 대학원에서의 학업과 연구를 위해 중요한 기초가 되었으며,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깊이 있는 분석 능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나의 법적 관심과 열정을 더욱 확고히 하고, 다양한 법적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는 데 기여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학문적 여정에서 법적 사고방식을 더욱 정교화하고, 법적 분야에서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분류 의정모니터링 작업은 지방 자치와 공공 정책의 실질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강원도 춘천시와 태백시의 공약을 분석하면서, 지역 사회의 필요와 발전 방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공약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공공 정책의 중요성과 그 이행 과정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와 그 대책에 관한 언론 모니터링은 현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전세사기의 피해 규모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분석하면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과 정책적 노력을 이해하게 되었다. 언론 보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대책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고, 이러한 지식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쌓고, 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적 사고를 배울 수 있었다. 각기 다른 작업을 수행하면서, 나의 분석 능력과 사회적 이해도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나의 개인적 및 직업적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며, 봉사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이해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앞

으로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해서 모색해 나갈 것이다.

## ○ 동의대학교 김 ○ 경

법률소비자연맹 여름학기 봉사활동은 현재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저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대학에서는 법과 관련된 이론을 중점으로 배우기 때문에 이러한 법들이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가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름학기 봉사활동을 통해 법들이 실무에 적용되는 과정들을 배울 수 있었고 법적 분석과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정모니터링 활동에서는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들을 분류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른 세대에 비해 1020세대의 정치 관심도는 낮고 저또한 그러하였기 때문에 초반에는 다른 봉사활동에 비해 흥미를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면서 저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공약들을 표에 나열하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률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어떠한 정책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정책들이 실현되었을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후보자들의 공약을 형식적인 약속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입후보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는 장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판결문리서치 활동에서는 대법원 판례 판결문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는지 알아보고 판례와 관련된 법조인들의 인적사항을 조사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법을 배울 때는 요약된 판례들을 접하기 때문에 판결문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습니다. 판례의 쟁점과 결과를 중심으로 배우는 학교 수업과 달리 판결문리서치는 일반인이 판결문을 읽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지 분석해야하기 때문에 색다른 경험이면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했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법률용어는 한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판결문을 보았을 때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법률용어의 한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여러 미디어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비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만 민사사건은 다양한 목적으로 재판하는 사람들이 많고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다루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일반인들도 판결문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번역봉사 활동에서는 키프로스공화국의 헌법을 번역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원문으로 된 다른 나라 헌법을 번역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기 때문에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번역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라의 법적 개념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번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키프로스공화국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여름학기 봉사활동 중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활동이었지만 한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법을 번역할 수 있어 많은 보람과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여름학기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법학도다운 여름학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법 관련 이론들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 재밌었고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리절마인드를 기를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오랜 시간 생각했던 저의 목표와 한걸음 가까워질 수 있는 경험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법률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법조인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 중앙대학교 김 ○ 민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처음 법률소비자연맹

이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법률, 정치와 관련된 유의미한 봉사를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던 저에게는 최고의 선택지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저는 성향이 내향적이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호하기 때문에 재택봉사가 사법감시비심원과 같은 봉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첫 봉사의 시작은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분류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의 공약만 눈여겨보았기에, 타지역 의원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세세하게 분류하는 일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인천광역시 소속 두 개의 지역구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두 명 모두 같은 정당 소속이었지만 선거공보에서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구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둘 중 한 명의 선거공보에는 공약의 내용들이 굉장히 명료하고 직관적이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공약을 분류하기에 수월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은 다소 불명확하고 직관적이지 않게 적혀 있었기 때문에 공약을 분류하는 작업에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공약이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으면 대중에 투표권을 행사할 때 공약을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판결문 리서치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결이었던 2018다212610손해배상(기)20240826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역대 국가손해배상 판결 중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와 기준의 판도를 바꾼 의미 있는 판결로, 학부 시절 행정법 수업 시간에 접한 적이 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봉사를 신청할 때 이왕이면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판결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단순히 판결문을 읽어보기만 했지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정리해보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물론 전원합의체 판결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하였지만, 이번 기회 다시 한번 꼼꼼히 내용을 정리하고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모니터링 활동으로 이슈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8월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언론에서 자주 다루었던 주제인 노란분투법 관련하여 언론사 간의 보도 행태를 비교하였습니다. 보수 진영의 대표적 언론인 조선일보와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띠는 한겨레신문을 비교하여 같은 내용을 두 언론사가 각각 어떻게 상반되게 다루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같은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지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동일한 사실에 대해 각자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걸 기사의 제목이나 타이틀에서 확연히 느낄 수 있었는데, 역으로 생각해보니 기사를 읽는 대중의 분별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한 쪽에 편향되어서 기사를 읽다보면 한 언론사에서 주장하는 사실만이 진실이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사는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의 이념이나 성향이 드러나는 보도를 내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보도를 읽는 사람들이 항상 비판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분기 동안 여러 가지의 활동을 하면서 사법감시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회의 사법, 정치 체계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시선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았고, 해당 기관의 일원으로 사법 감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부경대학교 김 ○ 현

이번 여름학기 동안 여태껏 미루어 오던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었지만 이번 하계 봉사활동 때는 의정모니터링과 번역봉사 두 가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선 의정모니터링 활동에서는 두 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공약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평소에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직접 분석해 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작업은 매우 흥미로웠고 또한 정치와 관련하여 공부 가 된 경험이었습니다. 공약을 조사하고 정리하면서 각

공약이 그 지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보게 되었고 정치와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우리 정치판에서 공약이 실제로 어떻게, 누구를 타깃으로 만들어지는지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한 의원이 내세우는 공약의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공약들이 모두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국회의원들의 공약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조사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활동이었던 번역봉사로도 영어와 일본어 두 가지 언어로 번역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영어로는 키리바시 공화국의 헌법을, 일본어로는 일본 방송법을 번역했습니다. 이 활동은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법률 문서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은 언어적인 요소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번역을 하여 한국어로 바꾸어두고도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법은 그 나라의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100퍼센트 완벽하게 그 법을 이해하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제적인 법률 체계와 다양한 언어적 니앙스를 배울 수 있었고, 정확한 번역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활동이었지만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았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시스템과 법률 문서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본인의 역량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많이 배우고 성장한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번에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번에 했던 활동들 외에도 더 많은 활동들을 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특히나 법정모니터링을 다음번에는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 ○ 한국외국어대학교 김 ○ 정

2024년 여름, 이번에 처음으로 법률 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가 원하는 봉사의 활동을 선택할 수 있고, 재택 봉사도 가능하여서 시작한 봉사였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한 봉사는 법정모니터링 봉사였습니다. 법원에 견학도 처음 가보면서 제가 꿈꾸는 법조인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들떠던 기분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법정 모니터링이 이번 학기에는 필수 활동이 아니여서 저는 가장 관심이 많은 형사 재판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방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가 꿈꾸는 검사만이 보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검사만이 아닌 피고인의 태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검사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이 두 명에 대해서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은 '살인'사건과 '성범죄'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살인 사건을 방청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범죄자의 모습이 아닌 그저 평범한 모습의 피고인이 등장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대한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가족이 울면서 선고를 기다리고 계셨던 모습을 보며 '내가 과연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 죄를 지은 피고인에게 알맞은 형량을 주장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형사 재판을 방청하면서 검사가 가져야 할 덕목과 더불어 항상 차분하면서도 단결하게 선고를 내리는 판사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꿈을 되짚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양 시간에 배웠던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을 보며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었던 좋은 계기였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판결문리서치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총 4개의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였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리서치 활동은 유서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문이었습니다. 제가 전공시간에 배운 형사소송법의 지식을 가장 많이 활용한 판결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의자들 중 한명이 자결을 하면서 유서에 그 당시의 범행에 대해서 쓴 것을 가지고 하위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했었는데, 이 판결문에 대한 활동을

하면서 1심과 2심에서 같은 증거를 가지고 판결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 측이 치열하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당시 처음부터 피고인들의 범죄가 다른 증거로 인정되지만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는 것을 보고 '과연 정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선고를 받아들이는 범죄자들은 우리가 보는 미디어 속에서만 보여주는 모습일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총 '성범죄'와 관련된 3개의 판결문과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1개의 판결문에 대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판결문에서도 법률의 어떤 단어와 문장의 차이로 검사와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형량과 판결의 흐름이 바뀌진 않는 것을 깨달았고 법률이 살짝 모호하다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나올 수는 있어도 법률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 주장에 대한 타당성이 뒷받침되어 적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좋은 활동이었습니다. 다음 기회에도 법률봉사활동을 하게 된다면 다시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봉사활동은 이번 학기에 필수적인 '의정모니터링'이었습니다. 선거 방송만 보고 선거에 관심이 없던 제가 이번 활동을 통해 선거에 대한 생각 또한 갖게 되는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총 '이상일'의원과 '김성제'의원에 대해서 선거 공약을 분류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상일 의원의 선거 공약집을 직접 보고 의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역에 맞게 이렇게 다양한 공약이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고, 제가 방송으로만 보는 공약은 극히 일부인 점, 그 지역구의 각 동마다 또 그에 맞는 선거 공약이 많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필수여서 한 의정모니터링 활동이 아닌 직접 지원하여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하여 제가 생각했던 공약들을 제시한 의원들이 누가 있는지를 다시 살펴 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여름 방학을 보내면서 내내 지치지 않고 오히려 제가 원하는 봉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시간이 된다면 꼭 다시 해보고 싶고 다음에는 번역 봉사까지 할 것입니다.

### ○ 중앙대학교 김 ○ 서

법률소비자연맹의 여름학기 봉사활동을 마무리 지으면서 지난 봄학기 봉사활동과의 차이점 및 느낀 점을 적어보고자 한다. 이번 여름학기 봉사활동에서 나는 민선8기 자치단체장의 공약 분류 의정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였다.

봄학기 봉사활동 당시에도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했었는데, 경험과 노하우가 생겨서 여름학기 판결문 리서치는 조금 더 쉽게, 동시에 더 세밀함을 높이면서 리서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나의 진로가 군법무관이기에 하급심이 군사법원인 판결문들을 많이 리서치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이 모두 존재했다. 단점은, 군사법원의 특성상 폐쇄적이고 기밀보호의 측면을 강조하여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문은 공개되더라도 하급심인 군사법원의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문을 보고 리서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 사건들 중에서 1심 판결문을 구하지 못해 포기한 사건들이 다수여서 정말 아쉬웠다. 장점은, 군내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의 경우 군대 밖의 사회와 달리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기에 그 특수성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더불어 법리이더라도, 사안에 적용함에 있어 군대라는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동일한 법리가 일반 사회와 다르게 적용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는 재미가 있었다.

총 6개의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던 율령병 폭행사망사건과 임병장 사건인 것 같다. 넷플릭스 시리즈 'D.P'에서도 각색되어 다루어졌던 사건이기에, 해당 시리즈를 본 나로서는 판결문을 리서치하며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에 적용된 법리와 양형에 대해 분석하면서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잔인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인간이 저질렀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행동과 태도가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삼권분립에서 사법권은 결국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사후적인 수단을 사용한다. 따라서 무언가를 사전에 예방하여 막기보다 사후처리적인 성격

이 강하기에 무언가를 사전에 예방하여 막는 측면이 약하다는 것이 매우 아쉽지만, 이것은 입법권이 해야 할 일인 것을 안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법을 적용함으로써 그 모습을 일반 국민들이 보고 깨닫는 일반예방적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기에 사법권은 항상 조심스럽고 세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반예방적 측면이 있기에, 양형에 있어 적절한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경우 양형이 매우 약하다는 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의정 모니터링의 경우, 경기도 남양주시와 동두천시의 주광덕과 박형덕의 공약을 분류하였다. 공약들이 생각 이상으로 구체적이고 세밀해서 놀랐다. 그러나 공약은 내세우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꾸준히 봉사활동하며 공약 이행을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번 여름학기 봉사활동은 봄학기 봉사활동보다 더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한 것 같아 스스로 뿌듯함이 크다. 봉사활동은 꾸준함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가을학기 봉사활동도 열심히 해보고 싶다.

### ○ 충북대학교 김 ○ 하

저는 이번 학기에 의정모니터링(3인), 사법감시 법정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2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봄학기에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정리하는 활동을 재미있게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한 의정모니터링도 재미있을 거라는 기대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해당해주신 분 외에 추가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지자체장님의 공약을 대상으로 의정모니터링을 진행했는데,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부분이 이루어졌는지 비교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지자체장님의 공약에 대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처음 해본 활동인 사법감시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저에게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짚으면서 변호를 진행한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는데 범죄구성요건의 미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를 이야기하면서 이 재판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저에게 변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보면서 피고인이나 사건 당사자, 관계인의 진술을 어떻게 이끌어낼지도 변호인이 생각해볼 부분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리서치로 진행한 판결문들도 저에게 정말 좋은 배움을 준 판결문들이었습니다. 2023도2982[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21도11126[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이렇게 두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리서치 활동을 진행했는데 2023도2982 판결문의 경우 1심, 2심과 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달랐기 때문에 1심, 2심의 판결과 대법원의 판결이 다른 이유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대법원이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판결문을 몇 번 읽다보니 대법원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어쩌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한 부분을 짚어내어 내린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판결문을 리서치하면서 사건을 객관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한 2021도11126 판결문은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자일 때 그에게 성년후견인이 있을 경우 그 성년후견인이 반의사불벌죄에서 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 그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사건인데 다수의견과 반대의견과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어떤 근거로 각기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다음 학기를 아마도 마지막으로 해서 봉사를 마무리하게 될 것 같은데 사법감시 법정모니터링이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어서 다음 학기에는 법정모니터링을 꼭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활동을 하면서 얻은 것이 정말 많고, 이 활동을 하면서 리걸 마인드도 조금씩 성장하고있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나도 뿌듯합니다.

### ○ 일반 김 ○ 서

2024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법·정치와 관련하여 학습에 많은 도움을 받고 사회봉사의 이념을 함양하는 시간을 보낸 기억에 이번 여름학기에도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학기에도 필수활동인 의정 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으로 한 활동은 필수 봉사활동인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분류였습니다. 2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정받아 공약을 분류하는 활동입니다. 공약 분류 활동은 저번 학기에도 경험해보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정 모니터링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공약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는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후보자들의 책임과 정책의 투명성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뿌듯했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입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법률 연맹 활동 중 가장 좋아하는 활동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을 정리하고 쟁점을 파악하는 것과 특히, 판사들의 판단을 정리하는 부분이 가장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의 적용과 해석하는 통찰력과 합리적인 판단이란 무엇인지 그 기준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판례와 다양한 사건을 리서치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총 네 건의 판결문을 리서치했는데, 두 건은 지식재산권법 사건이고, 두 건은 가사사건이었습니다. 어떤 판례를 고를지 고민하던 중 최근 지식재산권법 자격증을 준비했던 경험이 떠올라 상표권 침해 금지, 저작권법위반 판례를 선정하였습니다. 판결문을 읽은 지 오래되어서 그런지 첫 번째 판결문을 리서치할 때는 판결문이 다시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져 걱정했지만 다행히 잘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저번 학기와는 다른 사건을 리서치 하고 싶어서 가사사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가사사건 리서치를 통해 다시 한 번 구체적인 법조인상을 그릴 수 있었고 법 감정을 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학기를 신청하면서 저번 학기보다 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신청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도 로스쿨 진학 목표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고, 원동력이 되어 학업을 열심히 이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로스쿨 진학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법조인이 될 것인지 기틀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 을지대학교 김 ○ 원

법조인의 꿈을 꾸고 있지만 관련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법률소비자연맹을 통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생소하고 어려워 꿈포기해야하나 싶었지만 알려주신 방법을 토대로 계속 읽고 읽기를 반복하면서 점점 눈에 읽기 시작했고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뉴스 기사로 단편적으로만 접했던 사건들이 직접 알아보고 작성하면서 누가 어떤 주장을, 어떤 증거가,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게되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법에 관심이 있고 법조인을 꿈꾸는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꼭 경험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기회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 국민대학교 노 ○ 영

6월 27일 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법률연맹 여름학기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오리엔테이션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는데,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있는 빈칸을 두 교재를 참고하여 채워넣으면 참석한 것으로 인정되는 형식이였다. 오리엔테이션 이후로 첫번째로 진행한 봉사활동은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이었다.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은 다양한 대법원 판례 중 깊이 조사해보고 싶은 판례를 찾아, 그 쟁점, 사실관계, 전문, 각 법조인들의 이력 및 판례 관련 기사를 리서치해 문서로 작성하는 활동이었다. 처

음에는 어떠한 판례를 선정할지부터 막막했지만,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법률이 활용된 판례나, 최근 이슈가 된 판례들을 찾아보면서 선정에 있어서의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존재했지만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판례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당황스러웠던 경험도 있었다. 하지만, 봉사활동 방법이 자세히 작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판례를 받을 수 있었다. 처음으로 다른 사건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사건이었는데, 최근 형법 시간에 학습한 조문이었기에 관심이 가 선택하게 되었다. 특히 사실관계 등이 실제 정치적으로 많이 이슈가 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흥미롭게 분석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다보니, 쟁점을 찾고 비교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는데, 판결문을 여러 번 살펴보고, 직접 사실관계를 도입해 정리하면서 쟁점을 차차 정리해나갈 수 있었다. 또한 용어해설을 하면서 대중들이 어렵게 느낄 만한 법률용어를 찾아보고, 그 의미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활용되는지, 반대개념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자세히 작성하다 보니 단어 하나 하나를 이해하게 되면서 나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다. 이렇게 첫 번째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총 4번 진행하게 되었다. 법학부에 재학하고 있기도 하고, 법을 진로로 하다 보니 판례에 많이 친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건은 유류분 반환에 대한 사건이었다. 친족상속법을 공부하면서 유류분의 내용에 대해 접해본 경험이 있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고 싶었다. 두 번째로 하는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이라서 그런지 처음보다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특히 유류분을 선정함에 있어서 평소 망인과의 관계 및 기여한 정도를 고려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사람 간의 관계에 큰 비중을 둔 판결이라고 느껴 인상 깊은 판결이었다. 세 번째로는 손해배상 사건이었다. 학교폭력과 그로 인해 발생한 살인사건이었는데, 꽤 오래전 판결이지만,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기준을 명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학교폭력 사건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다루어보고 싶었다. 역시 3번째로 진행하다 보니 점점 능숙하게 쟁점을 정리하고, 판결요지를 작성하는데 부담이 줄어든 것 같다고 느꼈다. 하면 할 수록 다양한 사건과 그에 대한 판결문을 살펴볼 수 있어 자기발전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4번째로 진행한 판결문 리서치는 학교폭력에 있어서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에 관한 판결이었다. 3번째로 진행했던 학교폭력과 관련한 판결문을 리서치하면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서 선택한 판결문이었다. 하지만 원고측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기 때문에 1심, 2심, 3심의 쟁점이 거의 비슷해 이전에 다루었던 판결들에 비해 쟁점으로 삼을 만한 요소가 많이 없어서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다양한 판결문을 보면서 쟁점이 계속해서 바뀌는 판결이 있는 반면, 이처럼 비슷한 쟁점으로 계속 이어지는 판결도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총 4번의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서는 여름 봉사활동의 필수활동이었던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1회마다 2명의 의원에 대한 각각의 공약을 분류하면 되는 활동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선거공보, 5대 공약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다양한 선거 공약을 보면서 그 중에서는 정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공약도 있었지만, 표를 받기 위한 공약처럼 보이는 것도 몇 가지 있었다.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공약은 퇴직한 공무원이 자문 등을 하면서 다시금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공약이었다. 노인일자리 문제가 많이 떠오르고는 있지만, 이러한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신선하다고 생각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제외 총 33시간의 봉사활동을 끝마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했던 봉사활동들 중 가장 발전적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봉사활동이었다. 다만, 더 많은 종류의 활동을 하지 못하고 2가지 봉사활동에 그친 것이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에도 법률연맹의 봉사활동에 지원할 예정이다.

### ○ 한남대학교 문 ○ 정

저는 이번 봉사활동에서 판결문 리서치를 주요 과제로 삼고, 그 외에 필수 활동인 의정모니터링(공약 분석)과 법

를 번역을 했습니다. 법학을 전공하면서 짧은 판결문을 본 적은 있었지만,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실무에서 접하는 긴 판결문을 처음으로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작업에 부담감이 있었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소비자연맹을 통해 이러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판결문을 읽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법원의 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차례대로 분석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각 쟁점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법원의 논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판결문에서 드러나는 법적 논리와 근거들이 인상 깊었고, 이를 어떻게 정리하고 해석해야 할지 점차 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리서치한 판결문은 크게 경업금지,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이혼 및 위자료,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이었습니다. 경업금지와 이혼 및 위자료 사건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라 상대적으로 친숙하고 이해가 쉬웠습니다. 반면,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와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영업비밀침해 사건은 유전자 관련 기술과 전문적인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고,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은 의료 과실과 관련된 내용이라 법적 근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건을 이해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그리고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각 쟁점마다 상반된 주장이 존재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흥미롭고 인상 깊었던 점은 이해가 잘되지 않던 판결도 대법원에 가면 더 명확하고 타당한 판결로 뒤집히는 그 과정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판결문을 통해 법률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판사의 법리 해석이 어떻게 실질적인 결론에 도달하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판결문을 단순히 법적 문서로만 보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적 분쟁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읽을 때마다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서 그 배경에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막막했던 봉사활동이었지만, 차츰 법률을 해석하고 판결문을 분석하는 과정이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법적 지식을 실제 사건에 적용해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제 법률 지식이 한층 깊어진 것 같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법적 분쟁과 사회적 이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률가가 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의정 모니터링 활동으로 공약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었고, 선거일이 아니면 공약을 따로 찾아보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정치인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민선 8기에서 최기문 시장과 박남서 시장 두 후보자의 공약을 정리하였습니다.

공약 정리는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각 후보가 제시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 및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분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공약을 찾아보며 '이 많은 공약들이 과연 모두 실천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고, 재선된 시장의 공약을 보면서 지역 주민을 위해 열심히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마무리되었는지도 자연스럽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각 공약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정책이 실현되었을 때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고민하면서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번역 작업을 하게 되었을 때 사실 일

본어에 대해 약간의 지식은 있었지만, 번역에 대한 자신감은 크지 않았습니다. 일본어 단어를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한국어 문맥에 맞게 자연스럽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 조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와 번역 중 모르는 단어들을 찾아보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평소 취미로 일본어를 접하곤 했지만, 이렇게 공식 문서를 번역하는 일은 전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어 교육 추진에 관한 법률을 번역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거의 직역에 가까운 번역을 하면서 법률용어에 표현을 맞춰 찾아보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려고도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번역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평소엔 일본어를 취미로 접하긴 했지만, 이렇게 공식 문서를 번역하는 것은 전혀 색다른 경험이었고 약간의 어색함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보이는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이런 과정을 통해 법률 번역의 복잡함을 경험해볼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번역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교육제도와 법률 체계를 비교하면서, 두 나라의 용어와 개념 차이를 이해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번역을 통해 언어와 법률의 세부적인 차이를 배우가는 과정이 보람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일본어 실력을 향상시켜 자연스러운 번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의정 모니터링 공약 정리, 법률 번역까지 모든 활동을 끝마치고 나니, 다양한 법적 과제들을 수행하며 얻은 지식과 경험이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고 어려워 보였던 과제들이었지만, 차츰 그 안에서 법의 의미와 실제 적용 과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각 분야에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을 실무적인 과제에 적용하는 기회를 얻은 것은 매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률적 사고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공익에 대한 시야를 넓히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지식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서울대학교 박 ○ 규

봄학기에 이어 어느덧 두 차례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계절에는 주로 법정모니터링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판결문리서치도 병행하며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판결문리서치 활동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법조계에 막연한 관심이 있으면서도, 정작 법적 판단의 결과물인 판결문을 접할 기회가 많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판결문리서치를 통해 접하게 된 대법원 주요판례들과 그 원심, 제1심 판결들을 읽으며 법적 언어에 조금은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언론보도를 검색해 보자 판례가 다르게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판결문에 드러난 법적 판단의 과정뿐 아니라

라 그 행간을 읽을 수 있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이해한 판례에서 쟁점을 도출해 내고 이를 풀어 정리해 공유함으로써 시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사법과정은 원론적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 있지만, 사용되는 언어가 생소하고 계층되는 장소가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원론적 가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도움을 받아 저의 리서치로써 조금이나마 시민사회의 법적 개방성에 기여할 수 있었다면, 이번 여름학기의 활동이 뜻깊은 시간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학기째 진행하게 된 법정모니터링 활동과 의정모니터링 활동 역시 뜻깊었습니다. 시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요소를 꼽으라면 정치와 법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시대에서조차 지역구의 정책은 삶에 너무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른바 '간단해' 보이는 사건조차 재판당사자에게는 무겁고도 절박한 순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민학의 두 축이 공정한 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 모니터링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우리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기쁩니다. 유난히

더운 날씨에. 법정에 가는 길이 지난 계절보다도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착한 법정에서의 활동은 더 뿌듯했고,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OT에서 접할 수 있었던 이른바 '3D' 봉사활동의 정신에 조금은 익숙해진 것도 같습니다. 어려웠던 만큼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고, 그만큼 제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 한 학기였습니다.

이번에도 주로 형사부와 관련된 활동을 진행했다는 점이 개인적인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법정모니터링과 판결문리서치 모두에서 민사사건을 검토하는 것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비법학사학생으로서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민사사건을 리서치하면서는 판결문을 더 여러 차례 읽어가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차학기에는 법적 전문성을 조금은 더 갖추고, 활동에 조금은 더 익숙해지면서 보다 분야를 넓혀 활동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 ○ 성신여자대학교 박 ○ 윤

법률저널에 기고된 모 법학전문대학원 합격 수기를 보고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주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여러 봉사활동 중에 직접 법원에 가서 방청하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있어,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고 마침 그때가 하게 봉사활동 신청 기간이어서 바로 신청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이수 후 개인적인 사유로 한 달간 봉사 시간을 한 시간도 채우지 못해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이후에 이번 학기 필수 활동인 의정모니터링부터 하나씩 완료하여 최소 봉사 시간인 30시간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 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재택으로 충분히 끝마칠 수 있으니 시도해 보라고 조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의정모니터링, 법정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를 했습니다.

#### 1. 의정 모니터링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의 충청남도 홍성군과 태안군 당선자 공약 모니터링을 배정받았습니다. 군수 선거였는데도 불구하고 공약을 정리하고 보니 한 후보당 100여 개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약을 과연 읽기 내에 마칠 수 있을지, 기재된 예산 마련 방식은 실현할 수 있는 방식인지 등이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잘 모르는 지역의 의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지역 당선자들의 공약 이행 정도 또한 잘 감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2. 법정 모니터링

법정 모니터링을 처음 수행하기 위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방문했을 때 법정동 1층에서 청원경찰들로부터 여름 휴정 기간 중 방청 가능한 재판은 없을 것이라 안내받았습니다. 그때 여름 휴정 기간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고, 방청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다른 사람들이 저처럼 헛걸음하지 않도록 법원 측의 홈페이지 공지 외의 휴정 기간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형사 단독 재판, 민사 합의부 재판, 형사 합의부 재판 총 3번의 재판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단독 재판은 익히 들어온 바와 같이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합의부 재판은 단독 재판보다 한 사건을 오래 다루어서 사건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 3. 판결문 리서치

수업 시간에는 중요한 부분만 발췌된 판례를 결론만 외웠는데 판결문 리서치를 통하여 전체를 읽고 정리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판결문을 정리하면서 법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판결문을 봐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의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판사들이 판결문에 사실관계 및 쟁점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정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는 저에게 학업적 역량을 증진할 좋은 기회였습니다. 재판 과정을 직접 보며 소송법 수업을 복기할 수 있었고 4개의 사건을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세세히 읽은 결과 법률 용어와 더욱 친숙해져 전공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법학을 전공하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학업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 덕성여자대학교 박 ○ 진

이번 하게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알지 못했던 사회의 다양한 방면을 알게 되어 새로웠다.

먼저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다. 법률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막연히 인터넷에 '법률 관련 봉사활동'이라고 검색한 결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에 대해 다양한 후기와 활동들을 알게 되었고, 그 후기들을 바탕으로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다. 처음에 30시간이라는 최소한의 봉사활동을 내가 과연 채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안고 시작하였다. 하지만 차곡차곡 쌓다 보니 최종적으로 거의 50시간에 가까운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법률에 관련된 사회 활동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먼저 번역 봉사를 했을 때 다른 나라의 헌법에 관한 내용들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어떤 점이 다른지 알 수 있었던 좋은 봉사활동이었다.

두 번째로 법정 모니터링 봉사활동에서는 법원 견학과 함께 많은 재판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억울한 사람들이 더 많이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국회에 가서 세미나를 듣고 그 세미나에 관련된 보고서를 쓰는 활동이 기억에 남는다. 국회에 출입이 생각보다 자유로워서 놀랐다. 국회 출입은 일반인들에게 막혀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국회에 신분증만 제출하면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 좋았다. 그리고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현안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국회의원들이 고안해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봉사활동도 기억에 남는다. 내가 담당한 지역을 살펴 본 후 우리 지역구 등 다양한 지역구들의 공약을 살펴보게 된 기회였다. 공약들을 살펴보면서 이걸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공약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공약들이 있어 흥미로웠다.

약 3달간의 봉사활동이 끝이 났다. 처음에는 내가 전공하고 있는 법학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법학과 관련된 봉사활동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법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추천할 것이다.

### ○ 한림대학교 박 ○ 애

이번에 제대로 봉사활동에 참가하였습니다. 법학을 전공한 자라 판결문이나 법률을 보는 것은 매우 익숙하여 솔직히 겁 없이 신청한 봉사활동이 '판결문리서치'였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제가 보던 방식과 다르게 봐야 처음에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판결문을 보던 방식은 사실관계만 대충 파악하고 결론만 보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4년간 판결문을 봐왔는데, 이번 봉사를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판결문을 봐야 해서 평소 판결문을 보던 시간의 몇 십 배를 할애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 다'라는 말이듯이 법학과 4년이니 어느 정도 사실 파악을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아마 매우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법학과를 졸업했다고 하면 매우 놀라는지 다시 한 번 깨닫는 기회였습니다. 판결문에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쉽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들로 충분히 바꾸어 사용할 법한 단어들도 법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판결문을 보면서 제가 서 있고 싶어 하는 법정에서 어떠한 단어를 사용해야 할지, 또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법정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아픔이 있을 것인데, 법조인들이 그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에 '치료는 못해줘도 상처에 소금을 뿌리지는 말자'라는 결심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모니터링 봉사를 하면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생각하는데 왜 공약했는지 모르겠는 공약들을 남발하여도 당선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나라 정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소속되어있는 당을 보고 뽑

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은 슬펐습니다. 하지만 저조차도 조금의 색안경은 끼고 사람을 바라보기에 이상향을 원할 수도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투표'라는 제도를 통해 삼권분립을 감시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리인 '투표'만이 '법'이 누군가의 입맛에 맞게 휘두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에도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저는 그 법이 진정한 의미의 '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학과에 진학했던 이유도, 법의 그런 점이 좋아서, 세상 어느 곳을 가도 이름만 다르지 '법'이 존재하기에 그 법을 더 알고 싶어서 진학했습니다. 4년동안 법을 배우면서 법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법이 누군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조금의 위로와, 치료를 건낼 수 있는 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연맹이 끊임없이 법에게, 또 법을 올바르게 만들어야 하는 사람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법을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줬으면 합니다. '법은 아프고, 무섭고, 힘든 사람이 가장 마지막까지 믿는 것이라고'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법을 안다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는 것'을 법을 만드는 사람에게도, 올바르게 법을 세워야 하는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말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미래에 법을 올바르게 세워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저에게도 끊임없이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 ○ 가천대학교 박 ○ 교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의 2024년도 여름학기 봉사활동 중 저는 판결문 리서치,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분류 의정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총 3번의 봉사활동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의정 모니터링 중 공약이행을 조사만 해왔던 작년, 재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분류를 직접 해보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공약 이행률 조사를 했을 때에는 이 활동을 통해 정치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이 선택한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공약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그 과정을 수행하면서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을 알게 되었고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번 활동이 그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기에 앞서 토대가 되는 기본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각각의 의원마다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고 공약의 구체화는 어떻게 했는지 이러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공약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저 정보를 취합하는 간단한 작업이었지만 이러한 활동이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건강한 민주사회의 기반이 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매 활동 집중해서 많은 검토를 거친 후 결과물을 제출했습니다. 분명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큰 발돋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매년 새로운 법률용어를 깨우치는 데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공 특성상 다른 학과에 비해 법률용어에 친숙한 편이지만 일반인의 기준에서는 아주 쉬운 단어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것을 이번 활동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단어 어떠한 것이든 초등학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풀어서 설명하려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법률에 대한 친숙함을 느끼게끔 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문 리서치는 특수준강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조사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성폭력 관련 범죄에 대하여 더욱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 또는 유사강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의 죄 등 강간과 추행의 죄라는 카테고리 안에 많은 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법들을 알고 배움의 과정을 통해 익힐 수 있어 아주 좋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24 여름학기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은 저에게 큰 자산이 되었고, 법률에 대한 흥미와 이해가 더욱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법률용어를 해석하고 일반인에게 보다 친숙하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소양과 능력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이러한 경험이 나의 미래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법률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더 나은 법률 전문가가 되기 위한 지식과 열정을 갖추게 되었고, 사회에 봉사하는데 대한 책임감과 의미를 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은 저를 더 나은 시민으로 성장시키고, 사회에 기여 하는 길을 찾게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과 관련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식을 공유하고 사회의 더 나은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목표를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의 관계자분들 모두에게 감사하며 덕분에 이 봉사활동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되어 더없이 뿌듯하고 보람찼습니다. 감사합니다.

#### ○ 서울대학교 송 ○ 미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이론으로만 접했던 데이터베이스 권리와 개인정보 관련 권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공학부 복수전공하며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링해본 경험이 있고, 교내 수강 신청 사이트를 클론코딩하면서 웹사이트내 HTML 소스도 '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가시적인 재화나 서비스가 주로 자산으로 보호받았다면,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와 데이터가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등장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적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판례에서는 어떤 수준까지 보호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이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살펴본 판례는 아놀자와 여기어때 간의 불법 크롤링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기어때가 아놀자의 웹사이트에서 숙박 정보를 크롤링하여 자사 사이트에 무단으로 복제해 게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 '여기어때'의 크롤링 행위를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가 피해자 회사의 API 서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했으며, 수집된 데이터가 피해자 회사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숙박 플랫폼 기업에서 숙박업체 관련 가격, 숙박 기간 등 주요 정보가 '상당한 부분'이 아니라면 무엇이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플랫폼 산업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데이터를 무단 이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하여 선발주자의 경쟁력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본 판례는 '엔하위키 미러' 사건으로, 이 사건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게시물을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원고 '리그베다위키'가, 피고가 원고 웹사이트의 자료를 미러링 방식으로 복제해 '엔하위키 미러'에 게재하면서 발생한 민사 소송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사이트는 '위키'로서 대부분의 내용이 사용자가 작성, 수정 및 삭제하는 게시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할지 여부가 핵심쟁점이 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게시물의 내용은 주로 사용자가 작성하고 편집하지만, 그 게시물의 집합체에 대한 원고의 운영과 관리에 '상당한 노력'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인정한 2심 판결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모호해진 데이터 경제 사회에서 기업의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위키 사이트일지라도 원고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하

여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 크롤링관련 판례에서는 주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책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다204315 판례에서는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이 1억 이상으로 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손해배상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하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판단 기준과 보호 범위에 대해 깊이 고민해볼 수 있던 보람찬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판례는 잡코리아와 사람인 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이인 잡코리아의 구인/구직 게시물을 무단으로 크롤링한 사건입니다. 법원이 잡코리아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하고, 사람이인의 복제 행위에 대해 집행문 부여 청구를 인정한 것은 매우 공정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정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쟁사로서, 핵심 자산이자 수익 창출의 주요 기반이 되는 웹사이트 내 HTML 소스를 크롤링하여 정보를 복제한 것은 심각한 권리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잡코리아에게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며, 피고의 불법 복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주목받는 데이터 산업에서 '상당한 수준'의 데이터베이스 침해, '정당한 접근권한'을 넘어선 정보통신망 침입 등 법률적 해석이 모호한 용어에 대한 실제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면,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한 기업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 ○ 아주대학교 신 ○ 리

이번 여름학기 법률연맹 봉사활동으로 공약분류 의정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언론모니터링 봉사에 참여하였다. 참여한 봉사별로 어떤 활동을 했고, 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를 말해보도록 하였다.

먼저, 공약 분류 의정 모니터링은 2번을 참여하였는데, 선거 공보를 붙이고 5대 공약을 정리하고 공약을 분석하는 활동을 하였다. 봉사에 참여하면서 나 또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지만 평소에 후보들의 공약을 잘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공약을 하나씩 읽어보고 정리하면서 후보들이 앞으로 공약을 잘 이행할지 지켜보는 것이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했다. 사실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이 맞지만 요즘에는 진보와 보수, 두가지 갈래갈로 나뉘어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정치인들이 정당을 내세우고 서로 이해하지 못 하며 싸우지 말고 더 좋은 공약을 내세워 경쟁하고 서로의 나쁜점을 끌어내 기보단 나의 좋은점을 표현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국민 피로도도 훨씬 줄어들 것이고 공약의 질도 높아질 것이니 국민 입장에서는 더 좋을 것이 없다. 어쨌든 앞으로는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잘 읽어보고 투표를 할 것이며 그 후보가 내세운 공약을 잘 지키는지도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으로는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였는데, 2022두65092 강등처분취소 사건과 2023두50127 불합격처분취소 사건 판결문 리서치를 하였다. 판결문이라는 것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대법원 사이트에서 일반인도 굉장히 쉽게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을 처음 알게 되어 놀랐다. 판결문을 읽으면서 내가 변호인이었으면 어떻게 변론을 했는지, 내가 판사였다면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1심에서 판결이 부당하게 된 경우도 있었는데, 3번 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을 많이 방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억울한 사람은 꾸준히 생겨나고 있으니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법조인들이 힘을 써야한다고 생각했다. 판결문 리서치를 처음 해보는 것이다 보니 처음에는 많이 해매고 어떤 판결문을 선택해야할지 고민도 많이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판결문도 읽어볼 수 있어서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다. 판결문을 읽고 잘 정리하니 뿌듯했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니 판결문이 더 잘 이해되었다. 근거를 가지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하니 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지 느끼게 되었고 사람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는 언론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8월 다섯째 주 10대일간지 사설분석을 하였는데, 한 주 동안 10대일간지에 올라온 사설을 모두 읽고 중요한 내용을 표시하여 스크랩북을 만들었다. 그리고 스크랩북을 바탕으로 사설 분석 보고서 또한 작성하였다. 먼저, 10대일간지에 올라온 사설을 모두 읽으려니 그 양이 방대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언론사의 사설을 모아놓고 읽으니 언론사마다 얘기하고자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달라서 비교하며 보는 재미가 있었다. 분석을 어떻게 할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슈에 대한 언론사의 입장을 정리하고 보도량을 비교하는 등 분석을 하였다. 좀 더 참신한 내용의 분석이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아쉬웠고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싶다. 사설을 모두 읽으면서 사실 기쁜 마음이 들지는 않았다. 현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있고,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가 고민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설 내용 중에 긍정적인 내용은 없었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도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대란도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생겨난 문제처럼 느껴져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려는 마음이 조금씩이라도 있다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받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가 근심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다니는 학과는 건축공학과고, 공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읽고 정리하는 활동이 거의 없다. 특히 내가 관심 있는 법에 대한 활동을 할 기회는 정말 없는데 이번 봉사활동을 신청하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 같다. 법조인의 역할은 무엇이고, 내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다시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아직 3학년이기 때문에 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음 속에 남아있는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 내지 기대감이 많이 들었다. 꼭 미래에 법조인이 되지 않더라도 이번 봉사활동은 사회를 배울 수 있었고,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하였다. 대학생인 이 시점에서 해보면 좋을 경험을 가지게 된 것 같아 뿌듯한 기분이 든다. 다음에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참여해 보고 싶다.

### ○ 덕성여자대학교 안 ○ 원

이번 여름학기에 진행한 활동에는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확인 및 분류의 필수활동 및 판결문리서치 활동이었다. 판결문 리서치는 다수 해보았지만 늘 새로운 사건들이라 흥미롭게 다가온다. 그리고 원심판결과 다른 상급법원의 판결이 나온 경우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서 법리적인 관점을 배울 수 있었다. 각각의 관점에서의 차이가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판결문에 이해하기 쉽고 정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면서 일반 시민들이 판결문을 들여다 보면서 정리가 잘 되어있는지 그렇지 않을 시 어떤 우려가 있는지 또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전자에 해당되는 판결문일수록 판결에 이르게 된 과정이 면밀히 적시되어 있어서 법률가가 아닌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반면에 판결문에 쟁점이나 문제사항에 대한 판단이유가 형식적으로 적혀있거나 자세한 말 속에 쟁점을 은밀하게 노출하고 있는 듯한 판시사항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쉽게 판결현황이 이해되지 않아 여러 차례 읽는 과정을 거쳐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은 법적인 지식이 온전히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판결문의 작성이 보다 이유와 쟁점, 판시사항 등이 잘 나타나는 친절한 판결문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는 국민에게 주는 영향력이 크고 특히 국민과의 삶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진행하게 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분류 활동들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각 지역별로 어떠한 지자체의 노력을 할 예정이며, 공약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산과 계획을 통해 실행 가능성이 보이는지 등, 기준으로 공약들을 일일이 보고 확인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매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바이지만, 이러한 활동들

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이러한 활동을 한다는 건, 곧 강력하고도 진정성있는 일종의 사법감시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활동을 할 때 책임감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도 덩달아 생기기 마련이다. 앞으로도 가능한 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들을 하고 싶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져 우리 사회가 국민과 더 가까워지길 바란다.

### ○ 한국외국어대학교 양 ○ 서

2024년도 여름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외부 봉사활동은 처음 해보는 거였는데 평소 좋아하고 진로로 생각 중인 법학과 관련된 활동으로 할 수 있어 의미 있었던 것 같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제공 중인 총 5가지의 봉사 중 3가지 봉사를 했는데 다양한 종류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좋았다. 타 봉사활동은 보통 신체적 움직임이 많고 시간 소모가 큰 경우가 많은데 해당 봉사활동은 재택활동으로 할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다. 아무래도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보니 시험 준비, 학업과 병행하여 봉사활동 등의 활동을 해야 하는데 시간을 크게 할애하기가 어려워 곤란한 적이 많았다. 하지만 해당 활동은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활동이어서 나처럼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매우 잘 맞을 것 같다.

우선 이번 학기 필수 활동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분석 활동이었다. 평소 정치 분야에 대해 지식을 쌓고 소식을 많이 접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조금 생소한 분야였다. 하지만 이 활동을 통해 정치 분야에 더 관심을 붙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공약 분석 활동은 내가 직접 의정 활동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의정 활동에 간접적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다른 봉사활동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사람들 대부분이 선거 결과에는 관심이 많아도 당선자의 공약 이행에 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내가 직접 그들의 공약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은 더더욱 큰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다.

두 번째는 법률번역 봉사활동이다. 현재 소속되어 있는 학교가 한국외국어대학교이다 보니 법률번역 활동은 꼭 한 번쯤 해보고 싶어 신청했다. 사실 살아가면서 다른 나라의 헌법이나 법률을 보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 보니 이 활동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 나는 보츠와나의 헌법을 번역했다. 영-한 번역이다 보니 번역 자체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헌법 조항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문맥을 맞추고 의역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다. 또 사실 보츠와나라는 나라를 이 활동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 우선 그 나라의 헌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전 세계에는 정말 많은 나라가 있고 그에 따른 법률 체계가 있을 테지만, 학부생의 신분으로 타국의 법률을 찾아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경험을 하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더욱 희소 가치 있는 활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내 전공이 스웨덴어여서 만약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스웨덴의 헌법 또는 법률을 번역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다. 이 활동을 총 5번으로 가장 많이 했다. 나는 평소에도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기도 하고 대법원 주요 판결을 찾아보는 것을 좋아해서 이 활동은 정말 재밌게 했던 것 같다. 사실 관심이 없는 이상 일상생활에서 직접 판결문을 찾아보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그래서 판결문을 만약 읽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정리한 판결문 리서치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고 나 또한 그러한 분석 활동을 통해 판결문과 좀 더 친해지고 판결문 읽는 요령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이번 여름학기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활동에서는 할 수 없는 특별한 활동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 매우 뜻깊었다. 다음에 일정이 맞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지원할 예정이다.

### ○ 중앙대학교 양 ○ 혁

지난 봄학기에 이어 이번 여름학기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이어나갔다. 이번 여름학기 봉사활동의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 학교를 다니며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더욱 심도 있게 공부하고자 했다. 또한,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을 통해 사회 이슈가 있는 사건을 접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건이 맞지 않아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을 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여름학기에는 판결문 리서치와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했다. 필수봉사활동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분류 활동이었다. 처음엔 2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배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분류하다 보니 해당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자 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 굉장히 흥미로웠다. 그리하여 추가 신청을 하게 되었고 2명, 4명이 추가 배정되어 총 8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분류하게 되었다. 선거 공약이 150개가 넘어가는 자치단체가 있기도 한가 하면, 어떤 지역은 선거공보도 없고 공약은 5대 공약으로 딱 5개뿐인 지역도 있었다.

모두 마무리하고 하나씩 검토 및 비교하다 보니 지역마다 그 차이가 확연히 눈에 들어왔다. 당시엔 공약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좋아 보였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공약이 많다고 무조건 좋다고 할 순 없을 것 같다. 과연 이 공약들이 얼마나 지켜질지 앞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공약분석까지 해보고 싶다.

다음으로는 원래 목표했던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이어나갔다. 판결문리서치는 대법원 판결문을 대상으로 해당 재판의 당사자, 소송대리인, 재판관들을 파악하고, 해당 사건의 판결요지와 쟁점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하는 활동이다. 판결문리서치는 내가 배운 법학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다. 이번 판결문은 '공유자의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진정한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예비적 청구의 심사 여부'가 문제되었다. 공유물, 등

기, 소유권, 소송법적 요소까지 다룬 판례였기에 리서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 법리를 찾아보고 판례를 분석하여 알기 쉽게 리서치를 해나가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또한 나의 지식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

이번 2024 여름학기 봉사활동에서는 마감 날짜를 착각해 다소 급하게 봉사활동을 한 점이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 가을학기 봉사활동에서 더욱 다양한 판례와 재판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분야를 꿈을 구체화해 나가고 싶다.

### ○ 고려대학교 여 ○ 경

3개월 가량의 시간 동안 법률소비자연맹 2024 여름학기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여러 종류의 봉사활동 중 저는 의정모니터링과 판결문리서치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학기 의정모니터링은 2022년에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당선자 중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의 공약을 분류하는 것이 주요한 활동이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기초단체장은 고령군수와 경주시장이었는데, 잘 알지 못하는 경상북도 지역의 상황을 알 수 있어 유익하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투표하는 지역의 선거공보도 자세히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계기로 기초자치단체의 공약은 보통 무언가를 건설하고 설치하겠다는 공약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내세우는 공약이 100개 이상인데, 4년간 이 공약들을 얼마나 완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긴 글을 읽고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바꾸고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독해력이 함양될 뿐만 아니라 판결문과 법리에 대해 익숙해질 수 있는 유익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주로 노동 문제 관련된 판례를 접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판례는 2022다224290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소근로자지위확인 등)입니다. 소감문에도 작성하였지만 지금껏 접해본 판례 중 길이가 가장 길었는데, 이는 원고가 30명이 넘고 그들

이 속해있는 업무와 회사가 모두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판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관계와 쟁점이 모두 잘 밝혀져 있는 판례였지만 그것이 사실관계, 인정사실, 이유 등으로 모두 떨어져 있다 보니 이해가 어려웠고, 무엇보다 길이가 과도하게 길어 한 번 읽는 데에도 어려움을 빚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어려운 판례를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어서 가장 뿌듯했던 활동으로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외에도 2019두55262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판례에서 차별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기인함을 보여주는 방식이나 2023두417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례에서 부당해고 가 아님을 보여주는 방식 또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타인의 논리적인 의견을 접함으로써 저 자신의 사고능력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에 법조인이 된다면 이 경험을 기반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계명문화대학교 오 ○ 하

<방향 끝, 의미없는 나의 삶 시작>

오랜 방향을 끝내고 경찰이라는 꿈을 가지게 된 나는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다. 경찰행정과이다 보니 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 배우면 배우수록 재미있었다. 이렇다 할 적성을 찾지 못했던 내가 드디어 흥미를 느끼는 분야가 생겼다는 것에 놀라웠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방학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던 나는 온갖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법에 관련된 대외활동을 찾았다. 하지만 공모전과 대외활동 콘텐츠 만들기 대부분이었고, 이미 모집 종료가 된 활동들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에 법과 관련된 대외활동이라는 키워드로 리서치하는 도중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한 봉사활동을 후기로 작성한 블로그를 보게 되었다. 법에 관련된 대외활동이고 단순히 서포터즈, 콘텐츠 만들기 아니라 판결문, 언론 기사 등을 스스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레포트를 작성하는 것이 흥미롭게 다가왔다. 또한 봉사활동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었기에 내가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신청을 하였으나 이전 봉사활동자들의 봉사활동 후기, 내용들을 보았는데 “와...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대외활동이 처음이 나에게 너무 벅찬 활동이 아닐까하는 부담감이 있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담당자분의 메일을 받고 안심할 수 있었다. 너무 친절하게 답변해주시고 어떻게 하는지 샘플을 세세하게 제시해주셔서 거기에 맞춰서만 하면 되었기에 두려웠던 감정은 해소되었다.

나는 필수활동인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분류활동, 판결문 리서치,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였다. 제일 쉬웠던 활동을 꼽자면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분류활동이 제일 하기 쉬웠던 활동이었다. 그와 반대로 언론모니터링 활동은 정말이지 너무 힘들었다. 162개의 사설을 읽고 분석하여 글을 레포트를 작성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더 이상 내 인생에서 포기라는 글자를 만들어 내고 싶지 않았다. 얼마나 포기했던가, 그래서 얼마나 슬퍼했던가, 또한 얼마나 방황했던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고 싶었다. 언론모니터링 분석보고서를 다 끝내고 최종 제출까지 했을 때,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그래, 이렇게 하나씩 해내어 나가보자’. 자신감을 얻었다. 이 마인드를 갖게 되다보니 일의 능률성이 훨씬 올라갔다. 특히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면서 이를 많이 느끼게 되었다. 그만큼 나에게 있어 법률소비자연맹 여름학기 봉사활동은 의미가 컸다.

아쉬운 점도 몇 개 있긴 했다. 첫 번째로 더 빨리 해내었다면 법정모니터링, 사법감시 등 다양한 활동을 했을 것이다. 3개의 활동으로 끝났다는 것이 아쉬웠다. 두 번째는 판결문 리서치 활동 때 나는 ‘입학전형 이의신청거부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의 소’를 선택하였다, 이 사건은 민사사건인데 판결문 리서치 활동 설문조사 형사 재판만 다루는 것 같아 내 의견을 잘 담아내지 못하였다. 민사와 형사의 양식을 나누었으면 퀄리티가 더 높은 보고서와 설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훗날 누군가가 이 활동에 대해서 묻는다면 적극 추천할 것이다. 리걸 마인드를 키울 뿐만 아니라 과제를 해낸다는 성취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대외 활동은 드물기 때문

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가짐이 바뀌었다. 이로써 나는 한 걸음 성장하게 되었다.

### ○ 중앙대학교 유 ○ 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다양한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헌법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은 매우 보람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헌법에서 나오는 영어 법률 용어에 익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법이 어떻게 구성되고 기록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알게 되었습니다. 법이 사회를 어떻게 규율하는지, 그 원칙들이 두 언어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법정에 방문하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진 그 웅장한 분위기는 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큰 인상을 남겼고, 법원의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정의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정을 찾는 과정에서도 주위 분들의 친절함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 길을 묻거나 도움을 청할 때마다 따뜻하고 친절할 안내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덕분에 법정 방문은 한층 더 긍정적인 경험에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배심원으로 법원에 참여하고, 의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치인들의 공약을 처음으로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내세운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감시하며, 정치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더욱 느끼게 되었고,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공직자들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법 체계와 정치 과정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과, 정보를 갖춘 시민이 가지는 힘에 대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의미 있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자 합니다.

### ○ 서울과기대 윤 ○ 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대학교에 입학하여 1년 반을 아무런 대외활동도 없이 허무하게 흘러보냈기에, 2학년 여름방학은 생산적으로 보내자는 목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봉사활동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하는 활동이 많거나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활동이 많기에 사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었고, 다른 대외활동의 경우에는 경력이나 경험이 없으면 잘 뽑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자율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활동만 골라서 참여할 수 있고, 거창한 경험이나 경력 없이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과 목표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제게 매우 매력적이고 안정맞은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한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분류활동과 번역봉사, 법정모니터링,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 판결문 리서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분류의 경우 이번 2024 여름학기 필수 활동이었습니다. 본인이 배정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포스터 및 5대 공약을 보고 세세하게 공약을 분류하면 되는 활동이었습니다. 본 활동의 경우 이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내세운 공약을 분류만 하면 되는 활동이었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50~70개 가량 되는 공약들을 내세웠었는데, 과연 이 모든 공약들을 다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추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또 다시 하게 된다면, 그때는 공약분류에 이어서 공약이행률조사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은 법정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사법부가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지 모니터링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두 활동을 하면서 여러 민·형사 사건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 저마다의 역할함이 있는 것을 보며 그만큼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과 꼼꼼한 재판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번역봉사의 경우 다양한 나라의 헌법 또는 법률을 번역하는 활동이었는데, 제가 맡은 것은 앤티가바부다 헌법과 키리바시 공화국 헌법이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영국의 지배

를 받았고, 영연방에 속해있는 나라지만, 앤티가바바다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키리바시 공화국은 대통령제를 시행 중인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자 인상 깊었던 점입니다. 번역봉사라고 해서 단순히 법 조문을 한국어로 번역만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역사적·정치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러한 맥락과 어울리게 번역을 해야 하기에 조금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만큼 뿌듯함도 크고 많은 걸 얻은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의 경우, 하나의 사건을 정한 뒤, 해당 사건의 1심,2심,3심 판결문을 조사 및 정리하는 활동이었습니다. 해당 활동은 가장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던 활동인데, 그만큼 결과물에 대한 뿌듯함도 크게 남았던 활동입니다. 1심과 2심,3심의 판결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며 법리를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 판결이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것에 흥미도 느끼고, 그만큼 법리요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를 하며 저도 몰랐던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가고, 사건 개요와 해당 판결이 내려진 근거들을 분석하며 법률적인 시각이 더욱 넓어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제게 많은 것을 안겨 준 활동입니다. 혼자서는 쉽게 하지 못하거나, 하기 어려운 활동들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활동들마다 정해진 양식과 틀 그리고 방법에 대해 친절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봉사활동이나 대외활동을 많이 해보지 않은 초심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추후에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참여하여, 이번학기에 하지 못했던 활동들도 해보고 싶습니다.

#### ○ 법학전문대학원 윤 ○ 수

2024년 올해 여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도하는 사회봉사활동은 저에게 매우 뜻깊은 경험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 모집 안내를 보았던 날, 저는 로스쿨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단순히 법률가로서의 전문성뿐 아니라, 해당 법률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또 그 내용을 다루는 법률의 소비자로서의 시각을 두루 갖추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달여 간에 이어진 봉사활동과정을 통하여 법률은 단순히 사회의 규범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률가로서 제게 필요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바베이도스 헌법의 한글 번역 작업을 제게 외국 법체계와 우리나라 법체계의 교차점을 탐구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처음 번역 작업을 시작할 때 생소하고 복잡한 법률 용어와 해당 국가에서만 사용하는 용어 등의 현지화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차 이 과정을 통해 헌법의 기본 원칙과 가치가 타 국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조문의 번역이란 곧 단순히 단어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저는 법의 언어가 어떻게 사회를 형성하고,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연방, 즉 왕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어떤 추가적인 요소가 법률에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어 고된 한편 무척 즐거운 작업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국제적인 법률 비교 연구의 필요성과 가치를 체감하여 앞으로의 학습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정모니터링 활동은 저에게 정치적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경험이었습니다. 평소 정치는 결국 당간의 알력싸움이라고 생각하여 정치인 개인의 선거활동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나, 이번 활동을 통하여 실제 당선인들이 출마 지역에 따라 어떤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지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공약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며, 정치적 결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부의 구성과 선거 운동을 바라보는 저의 인식을 조금이나마 다각도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행정부를

구성하는 데에 역할하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잊지 않고 앞으로의 정치적 참여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다짐하였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이루어진 봉사활동은 법률적 이해와 사회적 책임감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앞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법률가로서의 역량을 쌓는 것은 물론, 일반 시민이 법률을 바라보는 감각 또한 잊지 않고 끊임없이 되새기는 과정을 통하여 보다 균형 잡힌 법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인재로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 ○ 경상국립대학교 이 ○ 민

저는 저의 전공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없을까 찾아보던 도중 처음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봉사시간도 없고 제가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공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는데 아주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양한 봉사활동 중 번역 봉사와 판결문 리서치, 공약 분석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번역 봉사의 경우 일본의 법과 프랑스의 법을 번역했는데 이를 통해 각 나라의 법이 우리나라의 법과 얼마나 유사한지 또는 상이한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보통 학교에서 외국법을 배울 때 미국법을 많이 배웠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엔 저한테 색다른 느낌이 느껴지고 보지 못했던 프랑스 법과 일본 법을 번역할 수 있는 봉사를 신청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법의 경우 제가 불어에 능통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법과 언어 두 가지를 다 공부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제가 했던 봉사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방송법 번역을 할 때는 시간이 프랑스 디지털 격차 해소법을 할 때보다는 적게 들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프랑스 법 못지않게 힘든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법 모두 방송과 관련된 법률이어서 번역 봉사를 끝낸 뒤 한국의 관련 법제를 찾아봤었는데 서로 비교를 해보면서 법학 지식이 훨씬 함양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판결문 리서치의 경우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을 각각 하나씩 진행하였는데 형사 사건은 스토킹 관련 판례였고 민사 사건은 세월호 침몰 사건의 국가배상과 관련된 판례였습니다. 일단 두 사건 모두 제가 평소에 관심있는 분야의 판례였기 때문에 선정하여 판결문 리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판례의 경우 연인관계였던 당사자들이 금전을 빌려주게 되면서 사이가 안 좋아졌고 이것이 스토킹으로까지 이어진 경우였습니다. 전체의 큰 스토킹 사건 중 하나하나의 세세한 사건을 두고도 원고와 피고도 주장하는 입장들이 확연히 다른 것을 통해 원고의 재판제도가 사회를 살아가며 꼭 필요한 이유가 더욱 더 가까이 와닿았던 것 같고 앞으로의 사법체계가 어떻게 조직되고 진행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3심 중 한 번도 피고의 승소가 없었을 만큼 스토킹 행위가 명백했는데 이를 제가 리서치 과정 중에서도 확연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날이 스토킹 범죄가 이슈가 많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사건 판결문 또한 이에 힘입어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을 바탕으로 형량과 판결이 내려지고 있어서 뭔가 사회변화에 맞춰 입법을 제대로 하는 것 또한 사법분야의 역할인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했던 판결문 리서치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보상금 관련 사건이었는데 이미 보상금 수령 시기가 꽤 지났고 피해자의 다른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한 상황 속에서 원고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가 관건인 사건이었고 저도 어떻게 판결이 날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건과 같은 큰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만큼 이 당시 판결을 내릴 때 더 이목이 집중됐을 수도 있겠다 싶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판결이 최종적으로 피고 승소 즉 국가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었는데 이 부분은 저의 의견과 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활동은 이번 학기 필수활동이었던 공약분석 활동이었습니다. 보통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관련 선거가 아니면 선거 공약을 볼 일이 많이 있는데 이 활동을 통해 다른 지역의 현안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아 좋았던 것 같고 실

제로 이 공약이 다 이행되었을지도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번 학기의 필수활동이 아니었다면 공약 분석 활동은 신청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다 하고 난 지금 시점에서는 이 봉사활동이 가장 즐겁게 했던 봉사활동이었던 것 같고 담에도 할 기회가 생긴다면 꼭 신청해서 활동할 것 같습니다. 딱 30시간 맞춰서 봉사를 끝마쳤기에 이번에 하지 못한 봉사활동들도 있었는데 이것들 또한 다음 기회가 있다면 신청하여 해볼 생각이고 최종적으로 봉사를 끝마친 후 저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봉사를 하기 전 보다 발전한 부분이 많았음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저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던 시간과 경험이었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뿌듯한 마음도 큰 것 같습니다.

### ○ 서강대학교 이 ○ 민

2023학년도 동계, 2024학년도 춘계에 이어 2024학년도 하계에도 법률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하계 봉사활동에서는 판결문리서치, 사법감시배심원단법정모니터링,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을 조사 등의 활동을 하였다.

먼저 판결문 리서치의 경우, 동계 봉사활동에서 이미 두 차례 경험이 있었기에 판결문을 읽고, 분석하는 것이 크게 낯설지는 않았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처음 접했을 당시에는 낯선 법률용어들과 익숙하지 않은 판결문의 구성 등으로 인해 단순히 판결문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활동에서는 나의 관심 분야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리서치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학기 두 차례의 리서치 활동 모두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관해 다루며,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을 생각해 볼과 동시에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

사법감시배심원단 법정모니터링 활동의 경우, 이번 연도 춘계 봉사활동부터 시작하여 하계 봉사활동까지 지속해온 활동이다. 우선 주기적으로 법원에 방문해 재판관 방청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학교 수업에서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부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니 재판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용이해졌다. 특정 사건의 진행 과정을 긴 호흡으로 지켜볼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의미가 있었다. 특정 사건의 재판기일마다 방청을 하여 사건의 진행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켜보면서 국민의 알권으로서 재판부와 검찰의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생각해볼 수 있었던 기회였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을 조사는 평소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을 분류하는 작업이었다. 100가지도 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을 찾아보고 분류하면서 내가 몰랐던 다양한 공약들이 있었음을 깨닫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렇게 방대한 공약들 중 과연 실제로 이행될 공약과 말뿐인 공약의 비율은 어떠한지 궁금했던 것도 사실이다.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법률연맹에서 공약 이행을 조사를 통해 나의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줄 것이라 기대해본다.

### ○ 조선대학교 이 ○ 창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여름방학 봉사활동에서 제가 진행하게 된 봉사활동들은 의정모니터링, 번역봉사, 판결문 리서치였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의정모니터링의 경우, 이제까지 경험한 의정모니터링은 이전에 몇 차례 조사를 마친 것들에 대해 시간이 조금 흘러 재조사하거나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가장 먼저 그 조사활동을 위한 큰 틀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양식은 법률소비자연맹 직원분들께서 만드신 작업물인 줄 알았는데, 모든 작업이 순수 우리 봉사자들에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의미 있는 활동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고, 대화 한 번 나누는 적은 없지만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다 같이 만들어 나간다는 것에서 이유모를 소속감도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한 것은 번역봉사였습니다. 번역봉사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사실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있는 편도 아니고 보통 사람들의 수준에 그칠 것이라 생각했고 그만큼 번역봉사를 진행하게 되면 시간은 시간대로 소요되고 그 만큼의 인정은 못 받게

될 것이라 걱정이 만연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정채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자신 는 외국어 부분도 경험해보아야 실력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보다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도전하지 않으면 발전의 기회도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과감하게 번역봉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번도 들은 적 없었던 차드공화국에 대해서도 알아가게 되었고, 차드공화국에 대해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파리올림픽에서 차드공화국에서 출전한 선수를 보면서 '아, 저 나라!'하면서 가족들에게 설명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차드공화국에 대해서도 알아간 것도 좋았지만 영어를 문맥에 맞게 번역하는 일도 꽤 힘들었지만 보람했습니다. 중간에 도저히 매끄럽게 해석이 불가능한 부분은 영문과에 다니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들 모두가 유의미한 경험이 되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판결문 리서치는 총 3개로, 각각 상해 등, 저작권법위반, 강제추행에 대한 판결문들이었습니다. 상해 등 판결문에서는 그 1심과 2심은 굉장히 간략하고 가법게 설명되어 있지만 3심은 결이 다르게 전원합의체 판결로 굉장히 무겁고 긴 판결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각 그룹별 의견이 다른 것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흥미로운 점이었습니다. 다수의견과 그 이유, 그에 대한 반대의견,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등 치열한 논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지만 결국 소송실무가 법률 해석을 넘어설 수 없다는 판결문의 내용처럼 가장 먼저 지켜져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는 사법계의 태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작권법위반인데, 항상 저작권에 대한 중요함은 인식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 저작권의 경계선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모호하다고 보입니다. 당장 주변에게 물어봐도, 이거 어떤 행동에 대해 저작권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본다면 쉽게 대답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빈번합니다. 때문에 그런 저작권법위반에 대해서는 점차 사람들에게 더 접근성 높게 다가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해당 판결문은 그러한 설명을 할 때 활용하면 좋을 만큼 굉장히 쉽고 명확하게 저작권법위반을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요즘 성 문제로 민감한 최근 동향에서 굉장히 말이 많은 성범죄와 무고에 대해 한번 선을 그은 판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판결의 경우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다시 3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사실 법원이 어딘가 잘못해서 판결이 확 뒤바뀌어온 것이 아니라 성범죄의 확정에서 증거가 오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할 때, 그만큼 신중을 기하다보니 다양한 시선과 관점이 있을 수 있어 뒤집히고 또 뒤집히는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판결의 태도에서 드러나듯이, 충분히 인정할 법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확실히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거나 논리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닌 이상에야 최대한 납득 가능한 결과를 내버치는 것이 법원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확실히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학기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도전과 과정이 있었고 이는 저에게 좋은 밑거름이 되어 앞으로 걸어 나갈 길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 중앙대학교 이 ○ 용

지난 2023학년 가을학기 처음으로 법률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한 후로 세 번째로 법률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진행한 봉사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와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분류 의정모니터링이었습니다. 우선,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분류 의정모니터링의 경우 지난 2022년 진행된 8대 동시 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이행률조사를 위한 기본 활동이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제21대 국회의원 공약점검 및 공약이행률조사를 한 바 있었는데 활동파일에 이전에 활동하신 봉사자들이 기록해주신 공약이행 조사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공약이행률조사를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을 떠올리니 이번엔 처음으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분류를 하고 몇 년 후에 누군가가 저를 이어 의정 모니터링을 진행하리라고 생각하

니 새삼스레 저와 같은 봉사자들의 사소한 노력이 모두 모여 민주 시민사회 실천을 위한 대학생들의 감시, 혹은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제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반 이상이 넘어가는 시점에 이렇게 공약 분류와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은 한 명의 국민이자 유권자로서 우리나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중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이 무엇인지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록한다는 점에서 한 명의 민주시민으로서 다른 방식으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약이행률조사와 공약 점검을 하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 하나하나가 해당 주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 할 수 있는데 한 자치단체장의 공약이 한 명의 국회의원의 공약보다 더 많고 다양하며 세분화되어 있어 공약을 조사하면서 새삼스럽게 현대 지방자치 사회에서 자치단체장이 지역발전과 유지를 위해 하는 역할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록 제가 살고 있지 않은 충청북도의 자치단체장의 공약 조사였으나 다시 한 번 지역주민의 대표자를 뽑는 유권자의 선택과 민주적인 감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한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입니다. 저번 학기 봉사활동에 이어서 겨울학기에도 하게 된 판결문 리서치는 주로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법리적으로 중요하지만 그 결과나 자세한 사건의 내막을 모르거나 잘 알기 힘든 각종 사건을 중심으로 민사사건, 행정사건 등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건을 다루는 판결문을 리서치하였으며 한 사건에서도 하나의 분야에서의 지식만이 아니라 예술적인 지식이 요구되기도 하는 등 단순히 법적 지식만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사건 등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분쟁과 범죄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각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과 그에 따른 법적 사고력을 이번 리서치를 통해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판결문 리서치였습니다. 여러 판결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문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최근에 약 2년 동안 저와 같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강동 전세 등의 수법으로 전세사기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세 계약 과정에서 중개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행위주체들과 적극 가담하여 사실상 전세사기의 공범으로 활동한 경우에 민사상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기존보다 더 높게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전세사기 공범인 공인중개사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법원에서는 이에 관해서 엄격한 법리와 논리를 바탕으로 대법원까지의 길고 긴 법정 다툼 끝에 기존의 판례와는 다르게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던 사건을 리서치하며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이성과 논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용적으로는 이전에는 몰랐던 공인중개사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의무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며 대법원도 이러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 엄벌의지를 판결문을 통해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판결문들을 지속적으로 리서치한 결과 판결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시간이 갈수록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한 명의 국민으로서 스스로 입법부 및 사법부의 주요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사회 초년생으로서 법적 지식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와 같은 일반 시민의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본질적으로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던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 성균관대학교 이 ○ 연

여름 방학 동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전공과 관련된 여러 법률 봉사 활동 후기를 찾아보다가 블로그

에서 법률 연맹의 봉사 활동에 참여한 후기를 보게 되었고 다양한 법률 봉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게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하계 봉사에서 참여한 봉사는 법정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번역 봉사, 의정 모니터링이었다. 지난 학기 채권과 법 강의를 통해 모의 법정을 경험해보며 직접 법원에 가 재판 현장을 꼭 방청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신청한 봉사활동이 법정 모니터링이었다. 무더운 여름날 방청한 법정은 민사 법정과 형사 법정이었다. 법정에 처음 가보는 것이라 괜히 떨린 마음이었는데 실제로 방청해보니 민사 법정은 우리가 수업에서 공부했던 것보다 공방 시간이 훨씬 짧고 간단하게 끝나서 신기했고 형사 법정은 실제로 수용자를 보았기에 좀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으나 꿈꿔왔던 검사의 역할을 제대로 보는 시간이라서 너무 뜻깊었다.

판결문 리서치는 판결문은 어떻게 쓰는 것이고 재판 절차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것인지,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속 다수의견뿐만 아니라 반대의견이나 소수의견은 하나의 쟁점에 대해 대법관들이 엄청난 고민을 하고 이다지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구나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재판 활동을 하며 판사 역할을 맡은 친구가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줬던 경험이 있는데 실제 판결문을 읽어보니 우리가 그때 작성했던 판결문은 진짜 엉성했었다는 것이 떠오르며 웃음이 나기도 했다. 이번 학기 물권과 법 강의를 들으며 교수님께서 판결문의 중요성과 판결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첫 수 시간부터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 봉사 활동이 아니었다면 교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아 판결문 리서치 봉사 활동에 참여한 것이 앞으로 수업을 수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의정 모니터링은 국회의원의 선거 공약을 분석하는 활동이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었던 나에게 매우 값진 시간이었다. 다음 선거 때는 우리 지역 후보의 선거 공보나 5대 공약을 좀 더 열심히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번역 봉사는 코트디부아르 공화국의 헌법과 피지 공화국의 헌법을 번역하는 활동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번역해야 번역 투가 어색하지 않을까 고민해보며 번역했지만 어색해서 담당자님께 피드백을 받으니,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읽어보고 번역해보라고 조언해주셨다. 아예 번역할 때 한쪽 창에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켜두고 계속 읽으면서 전문 부분을 수정하며 어색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지난 학기 헌법의 이해 강의를 들으며 우리나라의 헌법을 공부했었는데, 비록 짧은 부분이지만 다른 나라의 헌법도 이번 기회를 통해 읽어보며 어느 나라든 헌법 전에서 지향하는 가치는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 큰 흥미를 느껴 많은 시간 참여했는데, 이 활동을 통해 내가 가사 사건에 가장 큰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 감시 활동을 함에 자부심을 느끼고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

#### ○ 중앙대학교 이 ○ 림

법조인의 꿈에 다가가며

올봄에 법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찾고 있던 중에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만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사법정의를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학동안 제가 신청한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 활동과 필수 활동인 의정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정 모니터링은 제가 평소에도 궁금했던 국회의원이나 시장,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수행률과 관련해 제가 직접 조사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에 들어가면서 저는 의원들의 5대 공약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공보 포스터와 적혀있는 공약들을 찾아보며 선거에 내세웠던 공약들이 어떤 식으로 정리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배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하면서 저는 선거를 위해 무슨 공약을 내세웠는지 정리했는데 각 지역

마다의 특수한 환경과 조건과 연계되어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공약들이 나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선거를 위해 단순히 사람과 정당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닌, 실제로 무슨 공약을 통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실제로 그 공약을 수행할만한 인물인지 알고 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의 경우 저는 제 관심 분야인 아동 인권·복지 관련 유명 판례들을 조사해보려고 했습니다. 지난 학기 법과 관련된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판결문을 읽어보게 되었는데 분량이 방대하고 어휘나 문장구조들도 읽는데 어려움을 느꼈던 저는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 판례에 더 익숙해지고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진행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는 소송 당사자나 사건의 쟁점, 판결요지 등을 찾고 정리하는데 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리서치 활동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판결문을 처음 읽고, 다시 읽고, 또다시 읽어보는 과정 속에서 사건의 쟁점과 양 당사자의 주장이 어떻게 엮였는지 사건의 핵심이 되는 판결이 무슨 근거로 나오게 되었는지를 찾으며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 개의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더 해보면서 판결문의 구성에 점점 익숙해지게 되었고 어려웠던 판례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판결문은 제가 마지막으로 진행했던 리서치 활동의 판결인데 학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를 올바르게 정당한 방법에 의거해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면 그 징계는 합법이 아니라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던 것과는 달리 3심에서는 결국 원심을 뒤집고 파기했는데 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학칙 및 법에 의한 올바른 절차와 정당한 근거를 통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사법 체계의 핵심을 꼬집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판결문 리서치활동을 진행하며 저는 제 시야 밖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관해 알게 되었고 그 사건들이 재판을 거치면서 양 당사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무엇이 가장 큰 쟁점이었는지, 판사는 어떤 근거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사건을 겉핥기 식으로 아는 것이 아닌 본질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판사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생각해보는 과정은 법지식과 제가 생각하는 정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제 관심분야와 꿈에 대해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사법정의와 연관된 분야에 공익을 위한 봉사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학의 활동은 여기서 끝나지만 다음에도 계속해서 봉사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 ○ 한국외국어대학교 이 ○ 늘

죄를 입증하기 위해 조문과 증거 등을 찾아 유리하게 사용하는 일이 퍼줄 맞추기처럼 재밌을 거 같아 검사라는 꿈을 갖게 됐다. 대학에 오자마자 법에 대한 호기심에 다양한 분야의 교양을 들으며 배운 내용도 조금이라도 적용할 방법을 찾다가 발견한 게 법률 관련 봉사활동이었다. 그래서 발견하자마자 신청하여 여름학기에 봉사를 하게 됐다. 법에 대해 배운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잘 할 수 있을까 의심했지만 자세한 매뉴얼과 비교적 자유로운 질의응답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었다.

모든 활동을 한 번씩 해보고 싶은 욕심에 이번 학기에 법정 모니터링, 경제신문 사설분석, 판결문 리서치, 의정 모니터링, 배심원단 활동을 했다. 크게 기억에 남는 건 세 가지 활동이었다. 첫 번째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다. 처음 판결문을 보는 거라 비교적 내용이 적었던 보험금 사건을 리서치했다. 사건 경위를 하면서 한 쪽에 유리한 사건이라고 생각했으나, 같은 증거를 다르게 해석하고 설득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이끈 점이 매우 흥미로웠다. 또한, 판결문에 적힌 논리적인 문장을 공부하면 로스쿨갈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평소 경제 범죄에 관심이 있어서 사기 사건의 판결문도 리서치했다. 여러 사건이 병합된 사기여서 사건 파악하는 것에만 엄청 시간을 들였고 처음 보는 용어도 많아서 힘들었지만 리서치를 완료했을 때의 뿌듯함은 이로 말할 수 없었다. 또한 이런 사건은 어떤 증거나 진술이 필요하지 파악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

두 번째로 배심원단 활동이었다. 뉴스에서 봤던 사건을 실제로 방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신청해서 진행했다. 책으로만 배웠던 법률 내용과 사법 절차를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피고인을 심문하는 과정을 보면서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적법한 절차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몸소 와닿은 것은 처음이었다.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불법으로 인해 피고인이 느꼈을 위축과 당혹함을 느낄 수 있었고 변호인이 아니었으면 이 사실을 모른 채 재판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 검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재판받도록 마련한 제도가 얼마나 중요인지 생각해보는 계기였다. 또한, 재판에서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검사의 심문을 볼 수 있어서 꿈에 대한 열망이 한층 커지는 귀한 시간이었다.

세 번째로 경제신문 사설분석이었다. 경제학부생이어서 경제 기사에 대해 공부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이 활동을 하게 됐다. 한 주 동안의 이슈를 파악하고 언론 사별로 정치적으로 편향됐는지, 논조 차이가 큰지 분석했다. 대부분 비슷한 이슈를 비슷하게 파악했지만 꼭 이 표현을 사용했어야 하나 생각이 드는 과격한 논조도 보여 아쉬웠다. 또한, 학교에서 배운 경제 지식을 바탕으로 기사를 읽어서 잘 이해됐지만, 기본 지식이 없으면 읽기 힘들었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을 첨부했으면 쉽게 읽혔을까 고민도 같이 했다. 평상시라면 기사 하나하나를 따로 봤겠지만 경제 사설을 분석하면서 유기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키울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좋았다.

다음번에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이번 에 못한 법률 번역 봉사를 하고 다양한 분야의 판결문 리서치를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좋은 법과 정책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

### ○ 중앙대학교 이 ○ 수

저에게는 이번 학기가 2023 봄학기, 여름학기를 이어서 세 번째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전에 봉사활동을 진행했을 때에는 법 관련 기초 지식이라고는 전무한 상태였던지라 판결문리서치를 진행하며 공공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계기로 법학에 이전보다 깊은 관심이 생겨 지난 학기 학부에 개설된 법학 수업들을 수강했습니다. 확실히 법학에 대한 기초지식과 이해도가 생기니 동일한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느껴지는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판결문리서치 활동과 의정모니터링(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분류) 활동을 위주로 활동했습니다. 이전에도 두 학기 동안의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다양한 판결문을 읽어 보았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법률 용어나 소송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생긴 상태로 판결문을 읽어 보니 이전보다 적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사실관계나 판결 요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행정사건이었던 2023두50127 사건의 판결문리서치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학교에서 행정법 수업을 수강하며 들었던 '하자의 승계'나 '하자의 치유' 내용이 실제 사건에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원심과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사실관계에 접목하여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했을 때에는 이 활동을 통해 공동체에 이바지하고 자원봉사를 통한 정신적 필요로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학기 활동을 하면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지향하는 3가지 변화 중 봉사자의 변화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단순히 자원봉사의 의의뿐만 아니라, 실제로 법률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판결이 내려지는지 스스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법으로써 주어지는 나의 권리를 미래에 보다 주체적으로 향유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또한 저는 이번 학기에 총 4명의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분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공약분류 활동을 하며 저는 그간 투표권은 행사하면서도 후보자들의 공약을 면밀히 살펴보는 일은 소홀히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의 대표적인 공약 3~5가지 정도만을 보고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하며 공약을 분류한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공약은 최소 70개에서 많으면 200개를 웃돌았습니다. 공약을 분류하는 내내 이것이 과연 실현가능한 것들인지 의문이 들거나, 추상적으로 보이는 공약들이 종종 보였습니다. 단순히 겉보기에 파격적이고 시민을 위한 것 같은 공약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차원에서 공약을 내건 것인지, 실제로 이전에 관련 노력 또는 성과를 보인 적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권을 행사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공약분류가 아닌 공약이행률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에도 공약의 수에 비해 이행률은 현저히 떨어지거나 약속과 달리 공약이행률을 증가시키기 급급해 보이는 방식으로 공약을 이행한 의원들이 몇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대표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 아니었다면 느끼지 못했을 것들이기에 지속적으로 이곳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아니었다면 대학생의 신분으로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을 하지 못했을 듯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하는 마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 ○ 경희대학교 임 ○ 언

여름학기 동안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 법정모니터링, 의정모니터링 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이 법률 연맹 봉사활동의 시작이었는데,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재판의 진행 절차, 재판장의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었고, 억울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긴 피고인을 보며 '열 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이 첫 재판 방청이었는데, 엄숙하고 위엄 있는 재판장의 분위기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됩니다.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던 큰 사건의 재판을 방청할 수 있어 뜻깊었고, 판사, 검사 및 사건의 당사자가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많이 다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인원이 재판을 방청하는 것만으로도 재판의 당사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느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에는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보여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을 한 직후 법정모니터링 활동도 신청하여 총 8회의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니터링 문항 하나하나가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사법기관의 의무로 다가와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초반 방청에는 엄숙하게만 느껴졌던 법정이 회차가 쌓일수록 뿌듯함과 경이감이 드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되길 희망하여 여권 건의 방청 모두 형사 사건을 선택하였는데, 생각 중인 진로의 실무 현장을 관찰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기, 폭행, 주거침입, 마약류 관리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등 다양한 형사 사건과 여덟 개의 재판부를 관찰할 수 있는 흔하지 않은 양질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하나의 사건이 항소와 연기를 반복하며 길어지는 것에 반하여 출석한 기일에 진행되는 재판에 할애되는 시간은 수 분이 채 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피고인에게 필요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여름학기의 필수 활동인 의정모니터링까지 수행하였습니다. 지역 선거 당선자들의 공약을 자세히 분석하고 선고 공보와 5대 공약까지 기입하는 활동이었습니다. 투표권을 얻은 후 몇 차례의 선거들이 있었지만 선거 공보를 자세히 읽고 분석한 후 투표권을 행사한 것 같지는 않아 스스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선된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률에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투표권을 가진 민주 시민으로서 앞으로는 지역 내 정치 현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을 느꼈습니다.

여름학기 동안 세 종류의 활동을 하며 법학으로 진로를 설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더욱 많은 대학생이 법률연맹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 학기 동안 법, 법원, 정치, 재판 등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적이고 단단한 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체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될 대학

생들에게 법률 연맹의 봉사활동은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해 줄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름학기봉사활동이 인상 깊어 가을학기 봉사활동도 연이어 신청하였는데, 다음 학기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기를 희망합니다.

### ○ 경북대학교 임 ○ 수

2024년 여름학기 봉사활동은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두 번째 봉사활동입니다. 봄학기 봉사활동 때 했던 판결문리서치 활동이 여러 사건들과 관련 법리들을 조금이나마 파악해 볼 수 있었고 흥미를 느껴 다시 참여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판결문리서치 활동과 의정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우선 판결문리서치 활동에선 주로 경제 및 경영과 관련된 사건을 찾아 진행했습니다. 학교에서 경제학을 배우고 있기도 하고 경제와 관련된 사건이 회산의 경영과 관련된 경우가 다수 있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임 및 상표법 위반에 대한 사건에 대해 진행했습니다. 배임죄와 상표법위반죄는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판결문을 처음 읽었을 때의 느낌은 여타 다른 강력범죄들에 비해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사실관계가 얽혀있어 이해하기가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천천히 판결문에 적힌 대로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여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표법위반과 관련된 판결문 활동 후 설문조사의 한 질문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질문은 당사자가 판사라면 동일한 판결을 내리겠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의 대답은 그렇다 였습니다. 진행했던 판결은 상표를 무단으로 내려받아 사용 후 이를 무료 즉 사은품 등의 목적으로 배부하였을 때 사은품을 상품으로 보아 상표법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상품은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하는 물건에 해당해 상표법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상품의 여부는 무료로 나누어주는 것에 구애될 것이 아니므로 그 행위 역시 상표법위반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과 같은 생각을 한 이유는 상표법위반죄가 규율하고자하는 것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이지 그것을 팔았는가의 여부와는 거리가 멀어보였기 때문입니다.

의정모니터링 활동은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 분류 활동입니다. 이번 학기 활동에서 배정 받은 2명의 자치단체장 외에 관심있는 지역들의 공약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관심을 가졌던 지역에 대하여 어느정도의 지역 상황을 알고 있기에 해당 공약이 정말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선거기간 때 선거공보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공약들이 정말 실현 가능한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해볼 수 없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의정모니터링 활동은 공약을 분류하며 공약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그 공약이 정말 현실성이 있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 깊게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위 두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평소에는 접할 기회가 없었던 사건을 공부해볼 수 있었고, 무심코 넘기 쉬운 공약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앞으로 사건 또는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고민이 많던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담당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 서울대학교 장 ○ 정

지난 학기에 이어 두 번째로 법률봉사활동을 신청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법률지식을 얻음과 동시에 사회 문제를 분석하는 활동이 매우 뜻깊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번 여름 학기 동안에는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분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공방 보도경향분석을 진행했다.

우선 조근제, 진병영 의원의 민선8기 공약분류 활동을 진행했다. 함양군, 함안군에 해당되는 공약들을 분류하며 현재 지방에서 필요한 정책이 어떤 것들인지 알게 되는 계기였다. 함양군의 경우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으나, 과연 어떤 식으로 도시를 조성해야 관광객이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해 보였다. 함안군의 경우 전국 청렴도 최하위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 그것을 위해 공직자 부정청탁신

고 핫라인이나 불성실 민원처리 대응팀을 구축하겠다는 정책이 눈에 띄었다.

공통적인 정책은 농산업과 청년정책에 관한 것들이었다. 두 지역 모두 농촌인 만큼 농번기 일손이 필요한 상황이고, 단순 농업에서 나아가 융복합 산업 발전을 꾀하고 있었다. 더불어 모두 청년의 숫자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청년 진로 설계, 일자리 마련 등에 관한 정책이 다수 있었는데, 실제 청년인 나의 입장에서 보기에 솔직히 청년 유입량을 대폭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은 지속해야겠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서울인구집중현상과 지방나후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방에 대한 보도경향 분석을 진행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기사 80여 건을 분석하면서 각 언론사의 논조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지 비교했다. 역시나 조선일보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반면 한겨레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금투세의 필요성을 밝히는 내용의 기사를 위주로 보도하였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가 투자량을 줄이고 시장을 왜곡하는지에 대해 두 신문사는 극명히 다른 이론을 근거로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이 세금이 투자를 저해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킨다고 말했다. 반면 한겨레는 이것이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더불어 소득불평등 완화의 쟁점이 있어서도, 조선일보는 금투세가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는 그것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이번학기 역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사회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법률적, 사회적 지식을 쌓아 더욱 다각도로 사회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 중앙대학교 장 주 은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법조인이 꿈이었기에 자연스럽게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법률과 관련된 다양한 대외활동과 봉사활동을 하던 중 비대면으로 활동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인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도 2024년 봄에 우연히 알게 되어 두 학기 연속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24년도 여름학기 필수활동인 의정 모니터링부터 안도라 헌법 번역 봉사활동과 키프로스 헌법 번역 봉사활동, 그리고 판결문 리서치 활동까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선의정 모니터링 활동의 하나로 했던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분류활동을 통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도봉구의 당선자공약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어떤 사회 문제나 어떤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이다 보니 확실히 당선자 공약 중 노인에 초점을 맞춘 공약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청년 일자리 부족, 저출생, 의료단지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공약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번역 봉사활동은 제 전공이 영어영문이다 보니 영어를 사용하는 키프로스 공화국의 헌법과 영어는 아니지만 영어와 유사한 에스파냐어를 사용하는 안도라의 헌법 번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에스파냐어를 번역해 보는 것은 처음인지라 걱정을 많이 했지만, 스펠링이나 몇 개의 단어를 제외하고는 영어와 아주 유사했기에 제 예상보다는 쉽게 번역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두 나라의 헌법 모두 몇 개의 의회 특수용어를 제외하고는 번역이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제 언어적 재능을 통해 이러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고, 다음 학기에도 번역 봉사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제 생각보다 어려웠던 활동인데, 그 이유는 제가 평소 법학 강의를 수강하면서 대다수의 판례를 발췌하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판결 전문 정독을 해왔기 때문에 판례 전문을 읽은 후에 쟁점을 정리하고 해당 판결의 근거를 찾아 표로 정리하는 것이 생각보

다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저도 판결문을 읽고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법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판례를 읽고 이해하는 게 더 힘든 일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덧붙여 앞으로는 판례를 좀 더 꼼꼼히 읽는 습관을 들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24년도 봄학과와 여름학기에는 대회를 준비 중이기도 했고, 다른 대외활동도 진행하고 있었기에 바빠서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다가올 가을학기에는 법정 모니터링 활동도 꼭 해보고 싶습니다. 2024년도 봄학기에 이어 여름학기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제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어서 정말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 ○ 중앙대학교 전 ○ 란

2024년 봄학기에 이어 여름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으로 활동하면서, 저번 학기와는 달리 더 많은 재판과 법적인 논리를 접해보고자 번역 봉사 대신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가 수행한 봉사는 사법감시배심원단, 법정모니터링, 의정 모니터링 그리고 판결문 리서치의 총 네 가지 활동입니다.

먼저 저작권(미국수능 SAT)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대한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봄학기에 이어 이번 학기 위 사건 선고 이전 마지막 재판을 방청하면서, 사법제도 하에서 역을 겪는 상대적 약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사건은 저작권법 위반의 핵심인 원본과 침해본이라는 중요 증거조차 없는데 기소되었고, 심지어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검사 측의 사정으로 2년 8개월 동안 재판을 연기, 혐의를 찾지 못하자 6년 후에는 영똥하게 주민등록번호법 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까지 했습니다. 설령 검사 측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SAT 문제 구매자에게 불법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입금하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민등록번호 리스트를 소유하여 사용한 증인보다 더 무거운 벌금을 부과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거로 부적합한 FBI 가짜 공문 및 ETS 회신문과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게 검사실에서 행한 증거조사, 내사단계에서 압수수색, 심지어 그 대상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한 불법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위법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특히 이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고 선고 전 최후 변론을 한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12년 동안 그는 '피고인'이라는 불확실한 신분으로 많은 제약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죄자로부터 수사 받는다는 자괴감도 함께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 역시 피고인의 누나가 쓰는 노트북에서 증인이 불법으로 사용한 주민등록번호 리스트가 담긴 파일과 같은 제목의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검사 측의 주장대로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불법 행위를 했더라도 그를 입증할 증거가 신뢰와 정당성을 토대로 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만든 것은 이미 허위 문서 등의 증거 조작을 한 검찰 스스로입니다. 한때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던 이 사건에서마저 재판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점이 그 사각지대를 짐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피고인과 변호사는 사법감시배심원단의 방청이 큰 위안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의 작은 관심과 방청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고, 다행이었으며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형사 17단독, 형사 10단독, 민사 208 단독, 민사 94단독, 제 27민사부 등 총 5개 재판부에 대한 법정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이 봉사활동의 경우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 죄명을 모두 적고, 한 재판부 당 30분 이상을 방청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관련 정보를 사진으로 남길 수 없고 재판 진행 중에도 미리 파기하는 상황이 많아 해당 내용을 기록하기 어려웠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은 다룰 수 없으나, 각 재판부를 모니터링한 소감을 차례대로 적어보고자 합니다.

형사 단독17의 경우, 특히 재판 중 외국인 당사자가 존재했는데, 판사님께서 통역사분의 통역 내용을 더 적절한 영어 단어로 되짚어 주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형사 10단독의 경우,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신부에 대한 모욕죄

에 관한 재판을 하였는데, 방청하던 신랑분께서 억울함과 분함을 담아 한 변론을 들으며 현재의 사법제도로는 피해자의 감정까지 담아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누군가를 변호하는 것 자체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미움 받을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느껴 변호사라는 직업의 무게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특히 판사님께서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구체적인 문구 하나 하나를 세심하게 살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관련 서류가 많아 증인이 이미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자꾸만 물어본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민사 208 단독의 경우 점차 전문화된 현대 사회에서 사건 관련 배경지식이 없는 판사가 내리는 판결이 적절할지에 대한 제 고민을 발전시켜주었습니다. 수많은 선고 사건들이 후에 과학기술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이때 판사님께서 대리인에게 "이렇게 주면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관련 서면도 제출하세요."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원적인 현대 사건에서의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는 '특수전공 판사'의 선발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서면을 통한 쟁점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협의(俠義)된 법을 적용 및 판단하는 것은, 법 이외 특정 전문 분야 관련 지식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국민 일반의 시선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 94 단독 모니터링에서는, 바람직한 증인과 변호사의 태도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증인에게 특정 방향으로 대답을 유도하였고, 비꼬기까지 하였으며, 증인 역시 변호사의 말을 자주 끊는 등 미성숙한 재판 문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7민사부에서는 서면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판이 지체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차분히 다시 설명하시고 모든 이들의 말을 경청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사건의 경우 원고 측 변호인의 편의를 위한 추가 증거 요청에 피고 측 변호인은 '다분히 모색적이고, 기교적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거절하는 변론을 펼쳤는데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위와 같이 여러 재판부를 모니터링하면서 전반적으로 재판부에 배당되는 사건 수와 제한된 할당 시간에 놀랐으며, 그럼에도 대부분의 재판부가 사건 내용을 전부 숙지하고 있다는 점이 대단했습니다. 다양한 재판의 진행 과정과 그 변론을 방청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한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재판부 방청의 경우 세입자로서 처음에는 저도 모르게 피고 측의 주장을 지지했으나, 피고 측 변호인의 주장을 들으며 포섭되었습니다. 법정을 이용하면서 단시간에 많은 재판이 진행되는 선고재판은 모니터로 사건번호를 크게 띄워놓고, 많은 방청객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정이 있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셋째로,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이상일 경기도 용인시 의원과 김성제 경기도 의왕시 의원에 관한 의정모니터링을 수행했습니다. 이들 공약 중에는 과거에 이미 수행했거나 추상적인 공약 역시 존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공약 수가 약 241개에 달하는 등 공약을 지킬 것이라는 신의에 따른 투표의 정당성과, 현실에서의 실현 정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관심있던 소유권이전등기와 소년부 승치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다룬 대법원 판례에 대해 판결문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전자는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 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023다269139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약정으로 실제 명도일을 지정했는데,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이 강행규정으로서 임차인에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점, 매매계약의 담보책임에서 권리의 하자가 용익권(임차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인 때는 사실상 피고에 대하여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대법원의 결정은 임대인, 매수인의 보호보다는 임차인의 단순 반복 의사를 우위에 둔 것으로 느껴져 아쉬웠습니다. 위와 같이 임차인의 의사가 추후 매도인과 매수인의 신의칙 준수와 깊게 결부될 때마저 그 표시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도리어 역차별의 문제가 아닐까요?

후자는 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승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대법원 2024모398 사

건이었습니다. 피고가 이제껏 범죄기록이 전무하고 평소 행실이 발랐다는 이유로 같은 소년범이자 공모자인 공모외1인보다 양형이 적게 나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소년의 성장'을 위한 소년범의 이념을 제대로 해석하여, 이와 같은 판결은 추후 소년범들에게 어떤 죄든 쉽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 역시 '소년의 성장'을 위한 법에서, 왜 자신의 잘못을 가장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형량을 이렇게나 낮게 선고할까 의문이 들었고, 앞으로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양형 기준의 유래와 발전에 관해 학습하고자 합니다.

앞선 3개월의 봄 학기 활동이 법을 '살펴보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여름 학기 활동은 '법에 대한 의문사항'을 보다 깊은 수준까지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정 모니터링에 좋은 피드백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측에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다음 학기도 함께 활동해 특정 법 분야와 의문점을 깊게 학습하고 싶습니다.

## ○ 동국대학교 전 ○ 미

벌써 법률소비자연맹에서 2번째 봉사입니다. 처음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알게 된 것은 친구의 추천이었습니다. 함께 로스쿨을 준비하는 법학도로서 사법감시, 판결문리서치, 실제 사법피해자의 사건내용정리 등의 봉사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활동은 법정치설문조사였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저에게 질문의 뜻을 묻는 답변자들에게 설명해주기 위해 현 정치에 대해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설문을 통해 현 20대의 법정치 의식 수준과 다양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사법부의 공정성, 법 준수 의무성에 관한 질문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법학도로서, 그리고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 법정치 의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사법감시배심원단으로 법정 참관을 갔습니다. 과거에도 몇 번 법정에 참관한 적은 있었으나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만 초점을 두었을 뿐, 재판에 참여하는 법조인(검사, 변호사, 판사)의 태도를 중점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모니터링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의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 주의깊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논쟁했던 쟁점은 주민등록번호의 개인식별 여부였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은 ATM 승금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피고인의 변호를 위해 열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재판 중의 변호인의 모습보다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의자에 앉아 몇 천 페이지나 되는 문서를 손에 들고 집중하며 재판을 준비하는 변호인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어쩌면 지금껏 내가 생각해온 법조인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닐까, 다른 사람의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 등을 하며 혼자 생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판결문리서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법학과에 재학하며 일반인보다는 판결문을 정리한 경험이 많았기에 비교적 어려움 없이 쟁점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껏 제가 해온 판결문 정리는 교수님이 정해준 판결문 토대로 했다면 이번 활동에서는 제가 직접 관심 있는 판결문을 찾아 정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판결문 제공도 신청해보고 꽤 흥미롭던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앞으로 로스쿨에 가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정모니터링에 참여했습니다.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번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분류한 것이 제가 처음으로 정치인의 공약을 자세히 들여다본 경험인가 같습니다. 공약을 정리하다 보니 '우리 주변의 사소한 모든 것들이 이들의 공약에서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많은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이들의 공약이 행동도 공금해졌습니까. 배정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우리 동네는 아니었지만, 우리 동네가 속하는 단체장의 공약도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률연맹 소개에 있는 글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와 사회의 안전, 공익, 발전과 정의, 평화를 저해하는 국가기관 또는 그 어떤 세력이나 기관의 위법, 불공정, 행태, 부정부패가 제보, 발견되면 공동하여 감시, 고발한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 조건은 건강한 사법이라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 나라의 국민, 그리고 건강한 사법을 위해 노력하는 한 나라의 법조인이 되리라 다짐하며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 ○ 연세대학교 정 ○ 하

작년에 이어 올해 2024년도 여름학기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여러번 참여했던 경험이 있어 익숙한 봉사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봉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처음으로 의정모니터링 활동 중 공약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봉사자들이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에 대해 찾는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약집을 직접 참고하면서 어떠한 경로로 공약에 대해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리비아라는 낯선 나라의 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잘 모르는 용어들이나 문화에 대해 접할 수 있었으며 특히 다민족, 그리고 농촌 환경에 대해 중요시하는 나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항상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이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항상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 ○ 명지대학교 정 ○ 연

이번 2024년도 여름학기 봉사활동을 신청하고, 필수 봉사활동으로 의정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이 첫 봉사활동이 아니었고, 전에도 의정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어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봉사활동에서는 각 국회의원들의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였다면,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각 국회의원들의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합하여 세분화시키는 활동이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단계별 활동을 하게 되어 기분이 되게 새로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의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뉴스를 보기 시작했고, 가끔 조사한 국회의원들의 소식이 들려올 때면 내적 친밀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의정 모니터링을 할 때 항상 느끼는 것은, 법과 정치가 정말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 공부할 때는 그냥 공부로만 받아들였었는데, 이렇게 직접 조사하고 분류하다 보니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가 조금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필수 봉사활동 말고도 판결문 리서치 활동도 같이 했는데,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선택하게 된 계기에는 법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저는 현재 법학과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평소에도 판례를 많이 보지만, 대부분 이론 중심적인 수업이기 때문에 판례 하나하나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다수 판례의 판결 결과를 암기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면 판례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총 4번 하였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은 논점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판결문의 대부분이 하나의 논점 안에 세부적으로 논점을 또 나누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논점으로 정해서 어떤 부분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하는지가 항상 고민됐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대법원 판례검색'에서 판례 검색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사건의 대리인(변호인)의 과거 판결 기록까지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분석할 판결문을 검색할 때, 대리인(변호인)의 과거 판결 기록을 볼 때 가끔 판결문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판례 하나하나를 제대로 알고 싶다는 제 열정에 이 활동은 너무나 만족스러운 활동이었습니다.

### ○ 광운대학교 정 ○ 영

#### 1. 서설

법률소비자연맹을 찾게 된 계기는 저의 학과와 관련하여 꾸준히 할 수 있는 봉사를 찾던 도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보게 된 글에 의해서였습니다. 여러 블로그, 후기들이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대한 장점 등을 설명하였고, 둘러본 결과 꾸준히 유의미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공약분류 등 여러 봉사 분야가 특히나 제 진로와 매우 적합하다는 생각에 스투럽없이 바로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 2. 봉사를 진행하며

저는 이번학기 동안 봉사를 진행하면서, 판결문리서치, 번역봉사 그리고 필수활동이었던 공약분류 봉사를 진행하며 여러 법률적 사실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시작했던 판결문리서치의 경우 여러 쟁점, 사실관계 등을 정리하며 전체적으로 텍스트를 파악하는 능력이 더욱 좋아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법학부를 재학 중이면서도 판결문을 그다지 많이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번 봉사는 그런 점에서 제 식견을 넓혀줬다는 느낌을 크게 받았습니다.

특히나 여러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다 보면 글을 일목요연하게 머릿속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만큼, 만약 지인들 혹은 후배들에게 추천하게 된다면 이 봉사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번역봉사의 경우 또한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선 여러나라의 헌법을 정리하게 되는 만큼 대륙법, 영미법 국가간의 차이를 궁금해서라도 찾아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전체적인 법형성 과정을 알게됐기에 전체적으로 법을 보는 시선이 넓어졌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시간이 가장 오래걸리고 직접 봉사를 하면서도 여러 영어로 된 법률용어들을 찾아봐야되는 만큼 노력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가치 있는 봉사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법률쪽 서비스가 해외로 많이 진출하는 만큼 번역봉사는 이에 맞는 능력을 함유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약분류 활동의 경우에는 직접 지자체장의 공약을 조사하며 어떤 식으로 지역에 맞는 정책을 피고자 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곰씹어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제 생각 이상으로 많은 공약들이 제시됐었다는 것을 알게되어 흥미로운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무관심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현실점에서 이런 봉사활동은 분명히 현 젊은 세대들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활동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 3. 봉사를 마무리하며

비록 이번 학기의 경우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 진행하는 탓에 많은 봉사시간을 확보하지는 못했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분명히 얻어갈 것이 많은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덕에 여러 봉사활동을 체험하며 유의미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다시 한번 다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봉사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신 담당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 ○ 경북대학교 정 ○ 주

법조인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진로를 고민하던 중 법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매 학기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알게 되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여름학기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첫 번째로 신청한 활동은 필수 활동인 의정 모니터링이었는데, 경기도 수원시 이재준, 시흥시 임병택 국회의원의 공약을 조사하였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구 국회의원의 공약을 이렇게 자세히 분석해 본 것은 처음이라, 매우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시흥시와 수원시에서 지향하는 목표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공약의 수가 많아서 놀라고, 지역 발전을 위해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점적으로 한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었습니다. 명예훼손, 보험금, 영업금지 그리고 유언효력확인소 사건으로 총 네 가지 사건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에 더 흥미를 느끼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민사사건에 더 관심이 있었고, 민사사건 내에서 최대한 다양한 분야로 다루어보려고 했습니다. 사건에 관해 사실관계를 읽고 먼저 스스로 생각해 보고 어떤 부분이 재판부와 같고 다른지 비교하며 리서치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법원의 판단과 근거를 정리하며 판결이 어떤 식으로 도출되는지 알게 되었고, 그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간략히 들었을 때는 한쪽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가도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 내린 판결이 2심에서 번복되었고, 또다시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과정을 보면서, 법적 판단의 복잡성과 심도에 대해 깊이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원고 승소라고 판단했다가도, 이후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검토하며 그 판단에도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결국 원고 패소로 판단이 바뀌기도 하였는데, 이 과정은 법적 사안의 복잡성과 다양한 시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변동을 통해, 법적 논리와 판단의 신중함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판단이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본인이 판사라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를 묻는 설문 문항에 답변하며, 판사의 입장에서 결정을 내리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제 판단이 잘못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이 크다는 점에서 혼자서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판결문을 이전에 읽어본 적이 없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 걱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판결문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각 법리와 판결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과 관련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습니다. 다음 학기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면, 이번 봉사 경험을 토대로 직접 재판을 방청하며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 ○ 고려대학교 조 ○ 서

여름학기 봉사활동으로 사법감시배심원단, 당선자 공약 분석, 판결문 리서치, 헌법 번역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봄학기에 이어 여름학기에도 봉사활동에 지원했던 것은 봄학기에는 해보지 못했던 다른 활동들을 경험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판결문 리서치와 헌법 번역 활동은 이번 학기 처음 도전했던 것으로 어렵고 생소했지만 그만큼 배운 게 많은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공들여 진행한 판결문 리서치가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정하는 것조차 일이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대법원 판례를 찾아 해당 법원에 원심 판결문 제공을 요청하면 공개제출로 제공이 불가하다는 답이 왔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판결문을 제공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대법원 판례를 간단하게라도 훑어보며 다양한 사건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후에는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문을 차례대로 읽고 쟁점을 찾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예상외로 익명처리 혹은 기호화된 주요 내용이 많아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검색해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 사건이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세부정보를 확인하여 하나의 스토리로서 소송 과정을 알게 되니 쟁점을 찾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은 1심의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고, 뒤집힌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부분 파기환송되었습니다. 같은 사실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는 법리에 따라 혹은 쟁점 판단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문의 경우 주요한 법리를 잘 정리해주는데, 이를 꼼꼼히 읽다보니 법리가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어 판결로 이어지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을 통해서도 피고 신문 과정과 당사자 최후 의견 진술을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 신문은

피고 변호사와 검사 모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각자가 이끌어내고자 하는 대답이 다른만큼, 질문도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나 다른 측면을 부각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인상깊었습니다. 이렇게 검사와 변호사의 대비되는 모습은 최후 진술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검사는 신문을 통해 확고히 한 자신의 주장을 피력했고, 변호사는 기소의 타당성 결여를 지적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해당 재판으로 인해 자신이 받은 영향과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었지만, 수년에 걸친 재판이 한 개인의 지위를 무척이나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구나 느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름학기 봉사를 통해 조금 더 사회와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일상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판례, 재판, 공약, 헌법 등을 다루며 법·제도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작성한 자료들이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법과 제도를 이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 ○ 연세대학교 진 ○ 윤

지난 봄학기에 봉사자로 활동하며 저는 법률과 그 적용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몸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생명과학공학에 매진해온 저에게 법은 다소 낯선 영역이었지만, 지난학기에 봉사를 하며 이러한 분야가 개인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법률 번역, 정치의식 모니터링과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하며 이러한 봉사활동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더 투명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가 법률 지식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고, 사회 정의 실현에 있어 법과 정치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법률 소비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명의 유권자로서도 더 적극적으로 법과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이 커져 이번 학기에도 봉사활동에 다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 역시 번역에 참여했는데, Jefferson's Manual을 주로 번역했던 지난 학기와는 달리 이번 학기에는 부르키나파소와 피지의 헌법을 번역하였습니다. 각국의 헌법을 번역하며 각 사회의 구조적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를 정확하게 번역에 나타내며 이에 대한 지식이 깊어짐은 물론, 여러 나라의 헌법을 알리는 의미있는 일을 한다는 점에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의 기본원칙과 민주주의 정신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세밀한 문장 하나하나를 번역하면서 법의 의미를 다시금 곱씹게 되었습니다. 특히 번역 작업은 단순한 언어적 전환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법정신과 철학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뜻깊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의정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공약 이행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공약이 어떻게 제시되고, 그 내용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그 지역 유권자들의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상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행률을 조사하는 일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었지만, 그만큼 중요한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봉사자로서 참여하면서 공약 이행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바랐고, 유권자로서도 추후에 유용한 능력이라 느껴 현명한 유권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학기 새로 시도해본 활동으로는 판결문 리서치가 있었는데, 특허와 지적재산권 분쟁의 복잡성과 주요 쟁점을 깊이 배울 수 있어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리서치를 위해 선정한 판결문은 대법원 2020후10292로, 간단히 요약하면 원고는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 무효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특허법원은 원고의 특허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이해할 만큼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특허등록의 무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 특허의 무효 판결을 통해, 특허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술자

가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청구범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분쟁에서 주로 다루지는 쟁점들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제 이해가 한층 깊어졌습니다. 앞으로 특허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도 더욱 구체화되었으며, 이런 판결을 분석하는 경험이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판결문은 일반적으로 접하기에 난해하거나 복잡할 수 있지만, 법적 투명성을 높이고 법의 기준과 적용 방식을 이해하여 공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 대중에의 공개와 이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활동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서 뜻깊었고, 특히 해당 사건을 다루며 특허 제도의 올바른 운영과 법적 분쟁 예방을 돕고, 기술 혁신과 경제적 경쟁력 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뿌듯하였습니다.

### ○ 서울시립대학교 채 ○ 진

전공을 활용하여 공익을 증진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과, 지렛대 시민운동의 취지에 감화하여 지난해 가을학기에 이어 올해 여름학기에도 법률연맹의 봉사활동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번 학기에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의정모니터링 활동의 일환인 공약분류와 벨리즈 헌법 영문 번역봉사를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 의정 모니터링 활동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김경일 파주시장, 심재국 평창군수 두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에 대한 조사 분류작업이었다. 신문 기사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보며 지역 사회의 교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공약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분주히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주민참여, 지방 재정 자립 등 지방자치행정에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이를 구체화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 또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면서 살펴 보았던 다양한 정책 내용과도 연관지어 볼 수 있어 좋았다.

지난 가을학기에 미국 주 헌법 번역 봉사를 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한 나라인 벨리즈의 헌법에 대해 파헤쳐 보게 되었다. 9차례의 개정을 거처온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나라에 대해 궁금한 외국인에게 우리의 최상위 법규범으로써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려 줄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벨리즈 헌법도 생소한 국가인 벨리즈의 실체를 알려주는 ‘벨리즈의 얼굴’로 인식할 수 있었다. 벨리즈 헌법을 번역하면서 벨리즈 헌법 3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종·출생지·정치적 신조·피부색·성별에 차별 없이 타인의 권리나 자유 그리고 공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질적인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라고 명시한 부분이 인상 깊었다. 자유·평등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존중이 헌법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 세계인이 공유하고 있는 규범에 대해 새삼 느끼게 되었다.

무더운 여름날 의정 모니터링을 활동을 통해서 국민주권의 확산에, 벨리즈 헌법을 번역하면서는 법치주의의 가치가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데 약간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 기쁘다.

### ○ 동국대학교 최 ○ 윤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판결문을 분석하고 요약해서 보고서로 작성하는 것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저의 전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법학을 배우면서 많은 판례들을 보고, 참고하고, 학습하였지만 이번 판결문 리서치 봉사를 진행했던 것처럼 1심부터 대법원 판례까지의 모든 내용을 살펴보고 보고서를 작성한 경험은 해당 봉사활동을 통해 처음 해본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전공 강의 시간에는 해당 교과목과 관련된 판례들만 살펴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판결문 리서치 봉사를 진행하면서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저만의 생각을 적립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 만족스러운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문 리서치 보고서는 총 6개를 작성하였고, 각각의 판결 내용은 의료법, 법인세법, 임금등의 청구, 교권보호, 법원원 입학전형이의신청, 공무살 비밀누설 등에 관한

것이었고 이렇게 다양한 6가지의 대표 판례들을 분석하고 요약하는 과정을 통해 저의 전공 학습과 판례에 대한 저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피고와 원고의 입장차이, 그에 대한 법관의 판단, 승소와 패소 등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과 일반인들에게 보다 편리한 자료를 만든다는 점에서 나름의 자부심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법조인과 법률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 로스쿨 진학에 대해서도 보다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의미있는 법률 봉사를 제공하고, 관리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의미있는 법률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중앙대학교 최 ○ 빈

2024년도 여름학기에 처음으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의정모니터링, 그리고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 세 가지를 수행하였는데, 각종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이에 대한 법리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봉사활동 중 가장 먼저 참여한 것은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이었는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과 SAT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관한 두 재판을 방청하였습니다. 해당 활동을 통하여 처음으로 법정에 출입하여 실제 재판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학기 학교에서 민법과 형법 등 법학 과목을 수강하였는데, 이론으로만 접하였던 법리가 실무적으로 활용되는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지난 자백을 반복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자백을 반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실제 법정에서 보지 못하게 느껴졌습니다.

의정모니터링에서는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약 분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음성군과 옥천군의 당선인의 선거공보를 보고 공약사항을 정리하였는데, 공통적으로 겹치는 정책들과 지역 특성을 살린 정책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의 인구 분포나 지형적 특징, 산업 분포 등을 고려하여 공약을 수립하였음을 실감하며, 추후 봉사활동에서 진행할 이행 평가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이번 학기 봉사활동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던 것은 판결문 리서치였는데, 언론에 대한 정보도청구, 가족관계에서의 인지청구, 그리고 노사관계에서의 해고무효소송 판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판결문을 읽고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데 부담감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1심과 2심, 3심에 거쳐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와, 법관들의 과거 판결 및 변호사들의 과거 재판 결과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더 깊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법리가 다르게 해석 및 적용되는 흐름을 살펴볼 수 있어 흥미로웠으며, 이번 학기 수강할 법학 과목들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마치며, 개념적으로만 접했던 ‘법’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확인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학기에 진행될 봉사활동에서는 더 다양한 분야의 판결문을 살펴보고, 번역 활동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가을학기 필수 활동인 국정감사모니터링 역시 학부 전공 수업의 내용과 연결지을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 ○ 중부대학교 최 ○ 준

2024년 여름학기 봉사활동에서는 판결문 리서치와 법정모니터링, 의정모니터링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법에 관심이 많아서 사건의 내용이 궁금하거나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대법원 판례를 종종 찾아서 읽어보곤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은 내가 관심있게 읽어 본 판례들이 많았으니까 판례를 선택함에 있어 능숙

할 것 같았고, 부담없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신청하였습니다. 판결문을 이해함에 있어 법률용어도 비교적으로 익숙하여 큰 무리없이 판결문을 이해할 수 있었고, 민사사건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직접 읽어보고 분석해보면서 사회를 보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았던 사건은 2024다230569 판결로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전속계약 내용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는 법률행위일 때 무효의 범위는 전속계약의 전부 무효인지,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는 해당 부분만 무효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했고 해당부분이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원고는 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성을 인정해주어 전속계약의 전부 무효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이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원고가 유명 연예인이었다는 점도 있었지만, 1심 판결문에 전속계약서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 부분을 직접 볼 수 있었고, 피고 측에서 주장하는 법리인 전속계약이 이미 원고의 독자적 회사 설립 행위로 인해 파기 되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만 또는 위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불만,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거하는 데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도 아니므로, 결국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의 진술이 어떤 방식으로 변론이 이루어질지 기대하다가 생각보다 피고측이 너무 쉽게 인정해서 많이 실망한 것도 많이 작용한 것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활동한 봉사활동은 의정모니터링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이번 의정모니터링은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분류 활동이었고, 저는 성동구와 성북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해서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의 공약들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이 많이 높았구나를 깨달았고, 국회의원 개개인별로 추구하는 가치나 지역에 대한 추진 방향성 등을 알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어차피 투표를 해도 국회의원들은 보여주기식 공약 이행이라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비판했지만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행동했던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고, 주권시민으로서 더욱 더 열심히 투표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여름학기 필수 봉사활동이라서 시작했지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법정모니터링 봉사활동은 솔직히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법정모니터링을 신청할 당시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어 언제든지 법정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었고, 법정모니터링은 꼭 해보고 싶은 봉사활동이어서 신청을 했지만 생각보다 군대의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군생활을 하는데 법정을 한 번도 못가보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이판사판으로 구관계자에게 양해를 구해 허락을 받아 법정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공개재판이 원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 긴장하면서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처음 방청했던 재판이 여진전문금융업법위반이라 다소 생소했고, 증인신문 하는 것만을 보고 사건의 쟁점과 맥락을 파악해야하는 것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지속적으로 방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보니 법정모니터링 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정모니터링을 하면서 공판에서 검사, 판사, 변호사의 법정 태도를 지켜볼 수 있어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재판을 방청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 ○ 강서대학교 황 ○ 은

이번 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법조인을 꿈꾸며 로스쿨을 준비 중인 제게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세계 각국 헌법 번역봉사와 판결문 리서치, 제가 한 이 두 가지 활동을 통해 법적 사고력과 어휘력, 실무 능력을 기를 수 있었으며 앞으로의 진로 경로를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동안 알제리 헌법, 키프로스 헌법, 온두라스 헌법, 그리고 라오스 헌법의 번역작업을 맡았습니다.

각국의 헌법을 번역하면서 제가 가장 인상깊었던 점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 많은 나라들에서 유사하게 다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각국의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 공통적이라는 말은 인권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시되는 현재에서 어쩌면 당연한 말이지만, 이 경험을 통해 법적 문서의 번역은 단순히 언어적 문제를 넘어서, 각국의 법적 가치와 기본권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를 요구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헌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기본권 조항들은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번역한 모든 나라의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인권, 표현의 자유, 평등권, 자유권, 그리고 법 앞에서의 권리와 같은 내용은 거의 유사하게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본권들은 각국의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에 따라 구체적인 표현이나 강조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보편적인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통된 인간의 권리들은 헌법이 단순히 특정 국가의 법적 규범을 넘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세계적인 기준을 따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번 번역 봉사를 통해 이러한 점을 다시금 알게 되었고, 이는 법적 문서의 번역 작업에서 일반적인 보편성과 국가의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배움을 주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또한 평소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학습 기회가 되었습니다. 리서치를 할 판결문을 검색하는 과정에서부터, 제가 법의 어느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은지를 새롭게 알 수 있었고, 직접 고른 판결문을 분석하며 법원의 논리와 판결의 근거를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법적 해석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법적 해석은 객관적이지만, 어떤 때는 아주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른 판결은 누군가의 인생을 판가름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법적 해석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적 사고방식을 함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분석적 능력과 논리적 사고를 기를 수 있었고, 법조인을 꿈꾸는 제게 다시 한번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법조인이 되고 싶은 제 열정과 법률에 대한 관심이다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활동을 통해 얻은 다양한 법적 경험과 새로운 시각은 제 목표를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로 다음 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필수 활동인 의정 모니터링, 번역, 판결문 리서치, 세 가지 활동을 경험했지만 다음 학기에는 법정에 직접 가서 참관하는 법정 모니터링까지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법적 문제를 다루고, 제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법률 분야에서 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겠습니다.

※ 이하 법률연맹 홈페이지의 자원봉사 소감문을 참조

The Due(True) Administration  
of Justice is the Firmest Pillar  
of Good Government  
공정한 사법은  
민주국가의 가장 튼튼한  
기둥이다.

미국 George Washington이 1789.9.28초대 대통령 취임직후  
초대 법무부장관에게 당부한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임.  
현재 뉴욕 변호가 Supreme Court에 각인·선언되어 있음